

2023년도 제27차 정기총회

2023년도 제27차 정기총회 자료집

일 시 : 2023년 2월 2일(목) 19:3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23년 정기총회 순서(안)

일시: 2023년 2월 2일(목)

** 접수 및 간단한 음식 나누기 오후 6:00~6:30

I부. 정책토론회: 2023년 정전협정 70년 평화 만들기 (오후 6:30~7:30)

발제: 김귀옥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브레인스토밍: 여혜숙 공동대표 외 진행

전체 나눔

II부. 본 회의 (오후 7:30~9:00)

1. 개회선언
2. 서기 임명
3. 성수 보고
4. 회순 채택
5. 전차 회의록 낭독
6. 2022년 감사보고
7. 2022년 사업보고와 승인
8. 2022년 결산보고와 승인
9. 평화회원상 시상
10. 정관개정 및 승인
11. 임원 선출 및 승인
12. 2023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3. 2023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4. 기타토의
15. 회의록 받음
16. 폐회

202년도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

2022년도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 2022년 1월 27일(목) 19:00~
- 방식 : 온-오프라인 병행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서기 : 손빛나리, 이덕경

□ 주요 내용

사전행사: 비대면 화상회의로 회원 각자의 소망을 간단하게 나누다.

1. 개회선언

- 김정수 의장이 19:24에 개회를 선언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2. 서기임명

- 손빛나리, 이덕경 회원을 추천하여 김정아 회원 동의, 한정숙 회원 재청하고 모두가 가하여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3. 성수보고

- 손빛나리 활동가가 재적회원 47명 중 참석 27명, 위임 3명 총 30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김정수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회되었음을 선언하다.

4. 회순채택

- 김정수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다.
- 한정숙 회원이 동의, 박인혜 회원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5. 전자 회의록 낭독

- 이덕경 회원이 전자회의록을 낭독하다.
- 김성은 회원이 동의, 김귀옥 회원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회의록을 받다.

6. 2021년 감사보고

- 김정수 의장이 박유희 감사가 작성한 사업 감사 보고서와 안수경 감사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독하다.

7. 2021년 사업보고와 승인

- 김정수 의장이 2021년 사업 총평을 보고하다.
- 여혜숙 소장이 부설 갈등해결센터 사업을 보고하다.
- 김귀옥 원장이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을 보고하다.
- 정현백 회원이 동의하고, 배현주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다.

8. 2021년 결산 보고와 승인

- 손빛나리 활동가가 평화여성회 결산을 보고하다.
- 여혜숙 소장이 부설 갈등해결센터 결산을 보고하다. 한정숙 회원이 인건비 지출이 예산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 한정숙 회원이 질문하여 여혜숙 소장이 본회 평화여성회 활동가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었었는데, 21년 평화여성회 재정 여력이 있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다. 김정수 상임대표가 이 부분이 감사의 지적사항이어서 22년부터는 추경예산을 잘 편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답하다.
- 김태원 활동가가 부설 여성평화연구원 결산을 보고하다.
- 2021년 안수경 감사의 회계감사 권유대로 본회와 부설기관의 수입 지출의 변경이 있을 시 2022년부터는 추경을 하여 집행하기로 함을 김정수 의장이 말하다.
- 여성평화연구원의 출판비가 사용되지 않았고 차입금으로 명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현백 회원이 질의하다. 여혜숙 소장이 2021년에 출판되지 않아 연차로 이전됨을 설명하다. 정현백 회원은 정규 예산으로 출판비가 책정되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여성단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규 예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책 발간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를 제안하다.
- 김성은 회원이 회계감사의 권유를 수용하기를 요청하고 김정수 의장이 차년도에는 추경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다.
- 한정숙 회원이 동의하고, 김성은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다.

9. 2021년 평화회원상 시상

- 고유경, 김다미, 조영주에게 2021년 평화회원상을 시상하다.

10. 2022년 임원선출 및 승인

- 김정아 임원인선위원장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임원 선출안을 설명하다.
- 신임이사장에는 한경숙 회원, 신임이사로는 김성은 회원이,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은 여혜숙과 부설 여성평화연구원장은 김귀옥 회원이 중임하기로 하다.
- 모든 회원이 박수로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위 임원 선출안을 승인하다.

11. 2022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정수가 본회와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부설 갈등해결센터의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보고하다.
- 정현백 회원이 벽찬 실무에 지치지 않도록 25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필요한 자료정리 등을 제안하다. 이에 여혜숙 회원이 외부 프로젝트에 쏟을 에너지를 평화여성회의 내실을 기하고 후원의 밤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에 일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제안하다. 김귀옥 원장은 코로나 시대에도 다양한 방식의 후원행사가 가능하며, 내부 성찰의 시간과 자료 정비의 시간이 필요함을 지적하다. 이에 김정수 상임대표가 회원 정체현상의 극복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여

후원행사를 기획했다고 답변하다. 이에 정현백 회원이 본회와 부설기관에서 책임져서 해주기로 하는 것에 감사함을 표하며 동의하다.

- 부설 여성평화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김성경 회원이 맡기로 했음을 김귀옥 원장이 알리며 차세대 여성평화운동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하다. 배현주 회원이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국제토론회'는 세계에 평화여성회의 위상을 알린 계기였다고 평가하고, 이 네트워크를 이어 갈 구상을 해주기를 회원이 제안하다. 이에 대해 김정수 상임대표가 총회 후 정책토의를 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하다.
- 한정숙 회원이 2021년에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을 맞아 자료집을 내려고 했으나 못하였는데, 2022년에는 평화여성회 25주년을 기해 다른 차원의 활동과 연계한 자료집 혹은 토론회의 의미를 살린 자료집 등을 발간할 것을 제안하다. 김정수 의장이 2021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는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개최한 것으로, 여성평화연대를 강화할 것인가 등 주요한 과제를 위해 다자적 접근 등에 회원 의견과 참여방안을 모색하기로 답하다.
- 김성은 회원이 세계여성평화건기 단체와 연대하여 할 일을 찾기를 제안하다. 조영미 회원이 2023년이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중요한 해이고, 아시아와 세계단체와의 연대도 중요한 시기이므로, 더 많은 단체와 연대하는 활동을 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리다. 일례로, 국제여성과의 라운드테이블, 제3국에서 북한여성을 만나는 시도, 다시 남북 크로싱을 시도하려는 계획이지만, 남북정세와 북미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려면 펀드레이징도 필요하고, 단체 연대도 중요함하다고 밝히다. 평화여성회의 역사성과 토대 위에서 그 일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정현백 회원이 동북아여성평화회의(6자회의) 체계를 살려서 러시아, 중국 부분을 추가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다. 특별히 러시아 부분을 한정숙 이사장에게, 고유경회원에게는 독일 에버트재단 등과 연결하기를 부탁하다.

12. 2022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 김정수 상임대표가 평화여성회, 부설기관의 예산안을 보고하다.
- 202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같이 동의 재청받기로 김정수 의장이 제안해서 회원 모두가 이를 받아들이다.
- 이권명희 회원이 동의하고, 조영미 회원이 재청하고 모두가 가하여 승인하다.

13. 기타토의

- 회원 모두가 두 사람 이상 회원 가입을 독려하기를 김귀옥 회원이 제안하다.
- 2022년 3·8여성대회는 3월 5일에 열리게 됨을 공지하다.

14. 회의록 받음

- 이덕경 회원이 회의록을 낭독하다.
- 회의록은 평화여성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15. 폐회

- 21:41에 김정수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감사 보고

2022 사업 감사 보고

1. 2022년도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 단체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성실히 매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평화여성회’는 부설기구인 ‘갈등해결센터’와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2022년에도 평화와 갈등 해결의 메시지를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통로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인 2023년도를 맞이하여 ‘평화여성회’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깨우는 여성평화운동의 리더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23. 1. 31.

감사 박 유 희 (인)



2022년 회계 감사 보고서

감사 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감사 일시 : 2023. 1. 19.

감사 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실

감 사 : 안 수 경

2022년 (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계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본 감사는 본회를 비롯 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포함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의 회계 기간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감사개요

제출한 결산보고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통장 등의 대조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의견

- 1) 감사 결과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을 잘 비치하고 있었고, 계산도 정확하였으며, 통장과의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2) 작년 감사 시 권고 사항을 잘 이행하였습니다.
- 3) 손빛나리 간사의 성실하고 꼼꼼한 회계 집행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19일

감사 안 수 경



2022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2022년 사업 총평

II. 2022년 사업 보고 및 평가

I. 2022년 사업 총평(안)

2022년은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환경이 극심하게 후퇴한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해 ‘대북 선제 공격’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기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 후에 국방부 국정과제로 이행 중이다. 또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선제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이에 응답하면 경제협력을 펼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북한으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대외관계에서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지정학적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북한은 단거리·중거리·장거리, SLBM, ICBM 등 80회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NLL(북방한계선) 해상경계선 이남 동해상 공해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 군사 당국은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지상·해상·육상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하였고, 동해에서는 최초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훈련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적대적 말 폭탄을 주고받는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주민들은 의도하지 않는 전쟁의 발발에 대한 실제적 위협을 느끼는 불안 속에서 2022년을 마무리하였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는 동시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고 있다.

한 해 동안 어수선한 안팎의 상황 속에서 평화여성회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는 반평화적·반성평등적 공약에 대한 비판과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한 대선정책 제안 활동을, 대선 후에는 새 정부의 평화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여성계 입장문 발표 등 활동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2022 여성평화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초래하는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하는 여성·평화시민사회와 연대하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호소하는 동북아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어드보커시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아울러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계의 목소리를 모아 성명서를 내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3.8 세계여성의 날 대회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평화여성회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뿐만 아니라 2022년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최대의 현안이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 여성들의 연대와 지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노력했다.

2022년 평화여성회 사업계획에 따른 활동 및 사업의 특징과 성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평화여성회는 1997년 3월 28일 창립하여 2022년 25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2022년 총회에서 그간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향후 여성평화운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한 행사 중 기념행사를 25주년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회원들이 참여하여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후원행사를 겸한 이 행사는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5년 동안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회원들을 초청하여 '나와 평화여성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평화여성회'를 주제로 한 '5행시' 나누기, 평화여성회 활동에 대한 향후 기대 등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평화여성회 자료 정리와 향후 활동에 대한 비전과 방향 수립을 위한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2023년 과제로 남겨 두었다.

둘째, 여성·평화·안보(WPS) 1325 의제 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했다. 통일교육협의회 지원사업으로 “위기와 전환의 시대, 여성의 눈으로 평화와 통일을 들여다본다”라는 주제 아래 ‘2022 여성평화통일아카데미’(6강 진행)과 ‘2022 여성평화통일기행’(1박 2일)을 개최하였다. 여성평화아카데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 남북관계 후퇴 등 변화된 환경을 젠더(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여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되었다. 모든 강의를 여성전문가·활동가 강사가 진행하였고, 온라인으로 열린 6회 강좌에 평균 25명 정도 참여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1박 2일 ‘여성평화통일기행’은 강의, 참여 활동, 생태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힐링과 생태-평화-접경지역의 존재와 그 의미를 재발견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2022년 사업계획으로 수립한 평화 지향적 징병제 개선을 위한 담론발굴은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위 아카데미에서 1회 강의 프로그램으로만 진행하였다. WPS 1325 의제 기반 여성평화교육매뉴얼 개발과 여성평화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진행 역시 수행하지 못했다. 계획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시민사회, 평화단체들과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안 대응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참여, 국제평화어드보커시 방문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의제를 기반으로 한 대선 정책을 제안하였고, “대북 선제공격”, “여성가족부 폐지” 등 발언과 공약으로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입장 발표 및 기자회견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쟁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 무장갈등, 전쟁 발발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입장문 발표를 견인하였다. 2022년 하반기에는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시민사회활동에 연대에 집중하였다. 하반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긴급하게 조직된 GPPAC 동북아 지역시민사회 단체들의 평화 어드보커시 방문(워싱턴-뉴욕-브뤼셀-헤이그)에 참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동북아 시민사회 목소리를 유엔-워싱턴-EU 정책담당자와 싱크탱크, 그리고 시민사회에 전달하였다.

넷째, 부설 갈등해결센터는 평화적 갈등해결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대화> 방식의 대화모임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내부적으로는 ‘대선 한 달 후’와 ‘2020 평화통일기행’에서 대화모임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퍼실리테이션 역량이 강화되었고, 교육 현장에서도 시도한 결과 긍정적 성과를 이루었다. <평화통일 국민참여 사회적대화> 모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였고, <전문가포럼>에도 참여하였다.

다섯째,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성인지적 여성평화 담론 형성과 확산활동 전 개하였다. <여성과평화포럼>을 4차례 개최하고, 『여성과 평화』 제7호(1월)를 발간했다. 연구원의 내부 의사소통과 여성과 평화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위원 워크숍>(2회)은 북토크와 토론회를 결합시켜 진행시켰다. 연구원 이사(14일)와 18인의 연구위원들의 헌신적인 후원으로 어렵고 바쁜 환경에서도 여성평화운동에 일조할 수 있었다.

II. 2022년 사업 보고 및 평가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21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 2022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안 승인, 신임임원 선출 등

4)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와 장소/방식 : 2022년 1월 27일(화) 18:30~21:00, ZOOM+평여 회의실
- 성원보고 : 재적회원 47명 중 위임 3명, 참석 27명 총 30명으로 성원
- 주요안건 : 2021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변경, 조직 변경의 건 등

(2) 2023년 총회준비위원회

- 구성 : 한정숙 이사장, 김정수(위원장/본회 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부설갈등 해결센터 소장), 김귀옥(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김성경(연구원 부원장), 손빛나리(활동가)

① 1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2년 12월 22일(목) 15:30, 본회 회의실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김귀옥, 손빛나리
- 안건 : 2022년 사업과 결산안 보고와 검토, 2023년 사업방향(본회 브레인스토밍, 부설기관 계획안) 논의, 2023년 임원 명단자료 확인, 2023년 총회 일정, 총회 순서, 평화회원상 추천 등 총회 준비사항 확인

② 2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3 1월 2일(화) 17:00, 본회 회의실 & 온라인 줌회의 결합
- 참석 : 한정숙, 김정수, 여혜숙, 김귀옥, 손빛나리
- 안건 : 2023년 사업계획(본회, 센터, 연구원) 및 예산안 논의, 신입임원 추천, 선거관리위원 추천, 2023년 총회 순서, 참석자 명단, 평화회원상(김지호, 이덕경, 윤여령 회원) 결정 등 총회 준비사항 확인

③ 3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3년 1월 8일(수) 10:30, 본회 회의실 & 온라인 줌회의 결합
- 참석 : 한정숙, 김정수, 여혜숙, 김귀옥, 김성경, 손빛나리
- 안건 : 2022년 사업 총평 및 2023년 사업계획 검토, 정관개정안 검토, 2023년 총회 참석회원 명단 등 총회 준비사항 확인

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 이사장 : 김성은
- 이사 :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박현선, 배현주, 여혜숙, 윤은주, 조영희, 한정숙 (존칭 생략, 가나다순)

3) 회의

(1) 1차(59차) 이사회

- 일시 : 2022년 1월 21일(금) 16:00, 온라인 ZOOM 회의
- 구성 : 김성은(이사장),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박현선, 배현주, 여혜숙, 윤은주, 조영희, 한정숙 이사(가나다순)
- 참석 : 김성은,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배현주, 여혜숙, 한정숙
- 배석 : 손빛나리 활동가, 김태원 간사
- 사회 : 김성은 이사장
- 안건 : 2021년 제2차 이사회(통합 제58차) 회의록 검토와 승인, 2021년 사업 및 결산(안) 검토와 승인, 2022년 사업 및 예산(안) 검토와 승인, 신입임원 추천과 승인, 차기 이사장 추천과 만장일치 승인(한정숙 이사), 2022년 총회 순서(안) 승인, 2022년 평화회원상 추천자(고유경, 김다미, 조영주 회원) 승인 등

(2) 2차(60차) 이사회(제5차 운영위 겸해서 진행함)

- 일시 : 2022년 7월 11일(월) 12:00, 신촌 동강참치
- 구성 : 한정숙(이사장),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박현선, 배현주, 여혜숙, 윤은주, 조영희(가나다순)
- 참석 : 한정숙(이사장),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여혜숙 이사
- 위임 : 김귀옥, 박현선, 배현주, 윤은주 이사
- 배석 : 손빛나리 활동가
- 사회 : 한정숙 이사장
- 안건 : 2022년 상반기 본회와 부설기관(갈등해결센터,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활동 및 회계 보고와 승인, 2022년 하반기 본회와 부설기관 사업계획 보고,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출판지원금 관련 논의,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사업/행사 일시와 방식 등 논의(2022년 10월 24일(월) 17:30), 차기 공동대표단 인선의 건, 차기 임원 추천 등 논의

1-3. 운영위원회

-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김정수 (상임대표)
 - 위 원 :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귀옥(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3) 회의
 - (1) 1차 : 2022년 3월 14일(월) 14:30~, 온라인 줌회의 진행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귀옥(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손빛나리 활동가
 - 주요 내용 : 2022년 2~3월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 3~4월 활동 계획 보고(한국여성평화연구원 6월 [여성과 평화 포럼] 주제-대통령선거 및 지자체선거와 여성의 정치 참여 관련 주제, 연구원 학술토론회 재정마련 방안 논의), 기타 안건(20대 대선 이후 평화여성회 활동 방향 논의(씨클대화 방식 진행 의견) 등
 - (2) 2차 : 2022 4월 25일(월) 10:30~, 온라인 줌 회의의
 - 참석 :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귀옥(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손빛나리 활동가

- 주요 내용 : 2022년 1차 운영위회의록 검토, 2022년 3~4월 사무국, 본회, 부설기구 사업 보고, 회계 보고, 5~6월 사업계획(본회, 부설기관) 공유, 평화여성회 25주년 맞이 및 향후 방향 논의를 위한 준비 등

(3) 3차(확대운영위) : 2022년 5월 12일(목) 10:30~, 본회 회의실

- 참석: 한정숙, 김정수, 여혜숙, 김귀옥
- 주요 내용 : 평화여성회 25주년 기념사업 관련, 25주년 행사 준비위원회 구성과 기념행사 방향, 평화여성회 차기 대표 추천, 2022년 2차 이사회 일정 및 안건 등 논의

(4) 제4차 : 2022년 7월 4일(월) 14:00~, 온라인 줌회의 진행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김귀옥, 손빛나리
- 주요 내용 : 2022년 5~6월 본회 및 부설기관 활동 보고, 3차 (확대)운영위 논의 내용 공유 및 확인, 2차 이사회 제출할 25주년 기념사업(안) 논의, 7~8월 본회 및 부설기관 활동계획 공유 등

(5) 제5차(제2차 이사회와 겸함) - 2022년 7월 11일(월) 진행, 이사회 보고 참조

1-4. 사무국회의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손빛나리(활동가)

3) 내용 : 주 1회 혹은 격주 1회 시행. 일정 및 업무 공유. 주간 사업 논의.

4) 일시

- (1) 1차: 2022.01.11.(화) 15:30-16:30 회의실
- (2) 2차: 2022.01.24.(월) 15:30-16:30 zoom
- (3) 3차: 2022.02.07.(월) 16:00-17:00 회의실
- (4) 4차: 2022.02.16.(수) 문건으로 공유
- (5) 5차: 2022.02.22.(화) 15:00-16:00 회의실
- (6) 6차: 2022.02.28.(월) 15:30-16:30 회의실
- (7) 7차: 2022.03.08.(화) 문건으로 공유
- (8) 8차: 2022.03.16.(수) 15:30-16:30

- (9) 9차: 2022.03.29.(화) 11:00-12:00 zoom
- (10) 10차: 2022.04.06.(수) 15:30-16:30 zoom
- (11) 11차: 2022.04.12.(화) 15:00-16:00 회의실
- (12) 12차: 2022.04.20.(수) 문건으로 공유
- (13) 13차: 2022.04.28.(수) 15:30-16:30 회의실
- (14) 14차: 2022.05.04.(수) 16:00-17:00 회의실
- (15) 15차: 2022.05.12.(목) 14:30-15:30 zoom
- (16) 16차: 2022.05.20.(금) 15:00-16:00 zoom
- (17) 17차: 2022.05.27.(금) 15:00-16:00 회의실
- (18) 18차: 2022.06.02.(금) 15:00-16:00 회의실
- (19) 19차: 2022.06.15.(수) 15:00-16:00 zoom
- (20) 20차: 2022.06.20.(월) 16:00-17:00 회의실
- (21) 21차: 2022.06.27.(월) 16:00-17:00 zoom
- (22) 22차: 2022.07.11.(월) 15:00-16:00 회의실
- (23) 23차: 2022.07.25.(월) 15:00~16:00 회의실
- (24) 24차: 2022.08.03.(수) 11:00~12:00 zoom
- (25) 25차: 2022.08.09.(화) 14:00~15:00 회의실
- (26) 26차: 2022.08.19.(금) 14:00~15:00 회의실
- (27) 27차: 2022.08.31.(수) 14:00~15:00 회의실
- (28) 28차: 2022.09.19.(월) 16:00~17:00 회의실
- (29) 29차: 2022.09.26.(월) 16:00~17:00 회의실
- (30) 30차: 2022.10.06.(목) 15:00~16:00 회의실
- (31) 31차: 2022.10.14.(금) 15:00~16:00 회의실
- (32) 32차: 2022.10.27.(목) 16:00~17:00 회의실
- (33) 33차: 2022.11.21.(월) 16:00~17:00 회의실
- (34) 34차: 2022.12.01.(목) 15:30~16:30 zoom
- (35) 35차: 2022.12.28.(수) 15:00~16:00 회의실

2-2. 법인, 세무, 행정 업무

1) 목표

- 본 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2) 통일부 법인 및 세무 업무

- (1) 2021년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내역 제출_홈택스 (일자: 1월 6일)

- (2) 2021년 하반기(7-12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자 : 1월 10일)
- (3)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일자 : 1월 21일)
- (4) 일용근로자 가입(제외) 확인서(2021년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소득 신고분)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팩스 제출 (일자 : 2월 7일)
- (5)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일자 : 2월 22일)
- (6)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일자 : 2월 22일)
- (7) 2020년 하반기(7-12월) 원천세 수정 신고 및 소득세 납부 (일자 : 2월 23일)
- (8) 2021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자 : 2월 23일)
- (9) 2020년 김세민 활동가 소득세 납부(가산세 포함) (일자 : 2월 23일)
- (10) 2021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자 : 2월 24일)
- (11) 2021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_ (일자 : 2월 25일)
- (12) 2022년 상반기(1-6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자 : 7월 7일)
- (13) 2022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및 2020년 7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납부 (일자 : 8월 30일)
- (14) 2022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자 : 9월 26일)

3) 행정업무

- (1) 교육이수증 발급(2013년 또래조정 직무연수 교육관련_ 김인선 선생님)
(일자 : 1월 11일)
- (2) 2022년 법인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연결계좌 확인 및 카드 배송지 주소 수정 (일자 : 1월 18일)

- (3) 전자세금용(홈택스) 공인인증서 연장(만료일 2023.02.01.) (일자 : 1월 20일)
- (4) 2022년 월평균보수액 변경신고_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일자 : 1월 25일)
- (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일자 : 1월 25일)
- (6) 오즈메일러 문자 충전(5,128통) (일자 : 1월 28일)
- (7) 경력증명서 발급
 - 여혜숙(제2022-1호) (일자 : 2월 7일)
 - 강인화_연구원(제2022-2호) (일자 : 4월 18일)
 - 정용숙_연구원(제2022-3호) (일자 : 5월 13일)
 - 김정아_센터(제2022-4호) (일자 : 6월 23일)
 - 박수선_센터(제2022-5호) (일자 : 12월 23일)
- (8) 법인 대표자 변경 등기서류 법무사에게 송부 및 수임료 지급 (일자 : 2월 11일)
- (9) 전년도(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기간 연장신청_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일자 : 2월 16일)
- (10) 여성미래센터 입주단체 긴급회의_2022년 관리비 인상의 건 (일자 : 2월 17일)
- (11) 법인 대표자 변경 등기 처리 완료 (일자 : 2월 17일)
- (12)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_국민건강보험공단 (일자 : 2월 18일)
- (13)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_근로복지공단 (일자 : 2월 18일)
- (14) 대표자 변경신청 및 고유번호증 재발급_홈택스 사업자 정정신고 (일자 : 2월 21일)
- (15)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4대보험 사업장 변경사항 신고_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일자 : 2월 24일)
- (16) 2021년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일자 : 2월 24, 25일)
- (17) 강의경력증명서 발급(2022-01호)_이덕경 (일자 : 2월 28일)

(18) 미지급 연대회비 납부

- 통일교육협의회(2021) (일자 : 2월 28일)
- 6·15 여성본부(2016) (일자 : 11월 10일)

(19)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_국민건강보험공단 (일자 : 3월 2일)

(20) 연대회비 납부

- 통일교육협의회(2022) (일자 : 3월 7일)
- 종전평화캠페인(2022) (일자 : 6월 7일)
- 6·15 여성본부(2022) (일자 : 11월 10일)
-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2022) (일자 : 11월 10일)
- 시민평화포럼(2022) (일자 : 11월 10일)
- 한국여성단체연합(2022) (일자 : 11월 10일)

(21)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윤택림(『여성과 평화』 7호 원고료 후원) :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일자 : 3월 11일)
- 백영민(2021년 후원금 내역) (일자 : 5월 25일)
- (주)미디어스페이스(법인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일자 : 12월 28일)

(22) 수행실적증명서 발급(비스케이프) (일자 : 3월 18일)

- ‘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 중 교육영상제작 관련 업무 수행

(23) 사무국 유선전화 및 인터넷 통신사 재약정 진행 (일자 : 3월 22일)

- 3년 재약정 진행으로 추가 할인 제공받음 (약정기간 : 2022.03.22. ~ 2025.03.22.)

(24) 서울특별시 202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일자 : 4월 15일)

(25) 재직증명서 발급(2022-01)_김정수 (일자 : 4월 20일)

(26) 공익법인 관련_‘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제출_홈택스 (일자 : 4월 20일)

(27) 공익법인 관련_‘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_홈택스 (일자 : 4월 20일)

- (28) 공익법인 관련_‘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_홈택스
(일자 : 4월 26일)
- (29) 사무실 미사용 전화회선 해지처리(LGU+ 번호 070-5029-1644, 1645, 1646, 1649)
(일자 : 4월 26일)
- (30) 비영리법인 운영상황 통일부에 메일로 회신 (일자 : 4월 27일)
- 담당 주무관: 손효영, 제출내용: 통일부 요청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 일체
- (31) 공익법인 관련_‘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_홈택스 (일자 : 4월 28일)
- (32) 2021년 (사)캠프 협력사업 결과 e나라도움 정보 공시 처리 (일자 : 4월 29일)
- (33) 2022년 통일교육협의회 회원사업 회계 교육 참여(온라인) (일자: 5월 2일)
- (34) 사무국 에어컨 청소비용 지출 (일자 : 6월 22일)
- (35) 은행업무용 공인인증서 갱신 (일자 7월 14일)
- 공인인증서 기한 (~ 2023.07.18.)
- (36) 2022년 통일교육협의회 사업 보조금 카드 거래정지 해제 처리(1년 이상 미사용
으로 휴면처리된 카드) (일자 : 8월 22일)
- (37) 여성미래센터 입주단체회의
- 1차 회의 (일자 : 8월 30일)
- 2차 회의_서면 대체 (일자 : 12월 29일)
- (38) 사무국 업무용 PC ‘알약’ 랜섬웨어 이슈 해결 (일자 : 8월 31일)
- (39) 오즈메일러 사용료 결제(12개월) (일자 : 9월 19일)
- 기간 : 2022.09.19. ~ 2023.09.22.
- (40) 2022년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워크숍 참여 (일자 : 11월 15일)
- (41) 2021년도 기부금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시 (일자 : 11월 17일)

(42) 줌(zoom) 1년 사용료 결제 (일자 : 11월 17일)

- 기간 : 2022.11.12. ~ 2023.11.11.

(43) 여성미래센터 소방시설 점검 (일자 : 11월 29일)

(44) 여성미래센터 입주단체 공동체모임 (일자 : 12월 1일)

(4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연말 재정사업 ‘곶감판매’ 우진지관 구입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홈택스) (일자 : 12월 28일)

【2】 평화·통일 사업

1.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 사업

2022년 3월 28일이면 평화여성회가 창립된지 25년이 된다. 전문적 여성평화운동 단체로 출범한 평화여성회의 그간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향후 여성평화운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 평화여성회 자료정리와 25년 사업 평가 및 비전 마련
- 회원참여형 사업 기획과 진행
- 25주년 기념행사와 기금마련 후원의 밤 개최 등

2. 여성·평화·안보(WPS) 1325 의제 대중화 사업

여성·평화·안보(WPS) 1325 의제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여성평화교육 방법론을 수립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 평화지향적 징병제 개선을 위한 담론 발굴
- WPS 1325 기반 여성평화교육 매뉴얼 개발
- 여성평화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진행

3.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 참여,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쟁 예방을 위한 어드보커시와 여성들이 만드는 적극적 평화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 대응 성명서, 논평 발표
-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여성·평화·안보(WPS) 정책 및 공약 제안 활동
- 남북여성교류 재개와 협력을 위한 활동
- 여성평화군축운동 전개를 위한 국내외 여성평화안보 네트워크 활동

1.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 사업

1) 창립 25주년 기념 사업/행사 관련 회의

(1) 1차 : 2022년 5월 12일(월) 12:00, 평화여성회 회의실

※ 평화여성회 3차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에서 논의

- 참석 : 한정숙, 김정수, 여혜숙, 김귀옥

- 내용 : 평화여성회 25주년 기념사업 진행 여부 및 컨셉 브레인스토밍 등

(2) 2차 : 2022년 7월 4일(월) 14:00 온라인

※ 평화여성회 4차 운영위에서 논의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김귀옥, 손빛나리

- 내용 : 2022년도 2차 이사회에 제출할 기념행사 관련 논의

(3) 평화여성회 25주년 기념행사 기획(준비)팀 회의(1차)

- 일시: 2022년 9월 5일(월) 오후 8시 30분

- 장소/방식: 온라인 줌 회의

- 참석: 김정수, 여혜숙, 김성경, 손희정, 윤보영, 이덕경, 손빛나리

- 안건: 25주년 기념사업 일시, 장소 등 확인, 내가 기억하는 기념행사 경험 나누기, 25주년의 의미와 기념행사 브레인 스토밍, 기타 준비할 것 리스트 만들기 등

(4) 평화여성회 25주년 기념행사 기획(준비)팀 회의(2차)

- 일시: 2022년 9월 14일

- 주요 내용 : 평화여성회 25주년 기념행사 기획안 수립, 준비/홍보/영상준비 /축하영상 요청/당일발언자/참가자신청 구글폼 등 준비할 것 정리

2) 평화여성회 25주년 기념행사 안내 공문 발송 및 홍보자료 제작

3)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11월 24일(월) 저녁, 영등포산업선교회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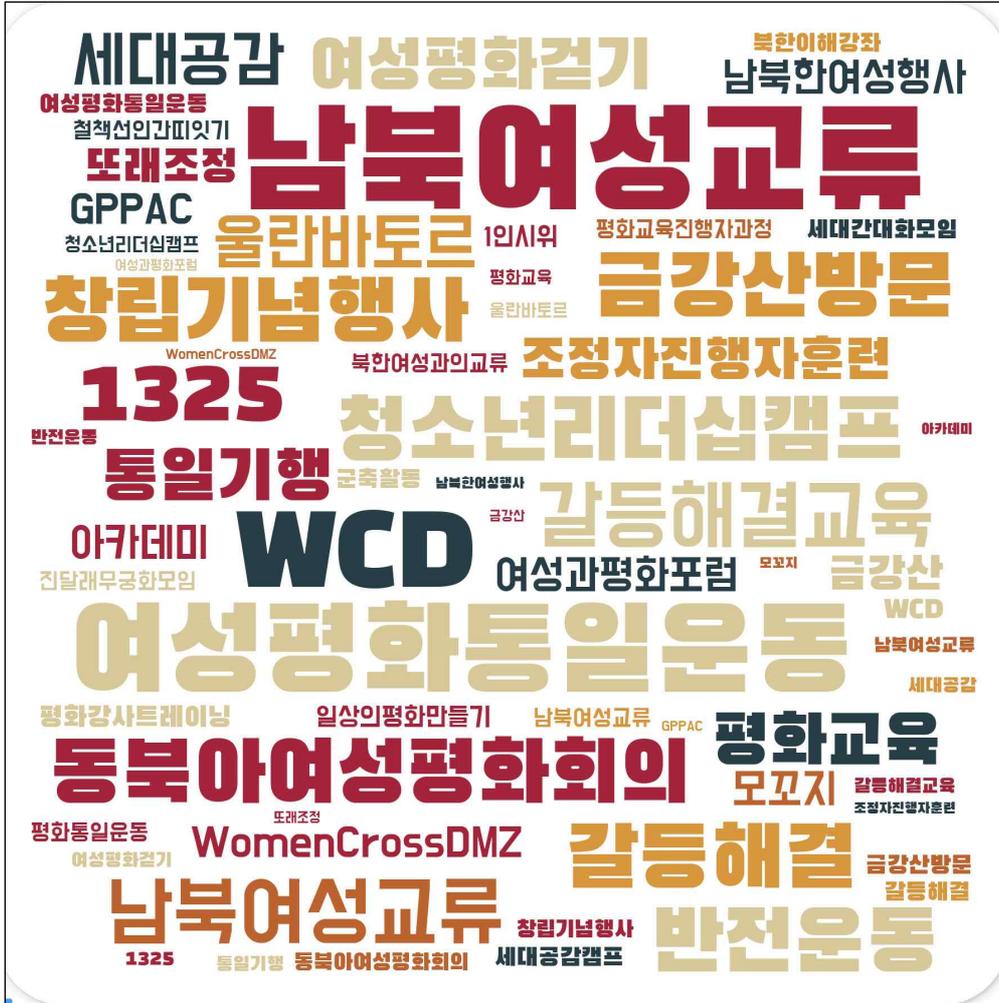
- 참석 : 60여명

▣ 본 행사(사회: 여혜숙 공동대표)

순서	내용
사회자 인사	환영과 감사 인사
인사와 인사말	한정숙, 김정수, 여혜숙, 김귀옥 한정숙 이사장 환영 인사
축하공연	최주희 성악가, 김수민 반주자
25주년 영상	평화여성회 25년 이야기
축하 영상	GPPAC NEA 사무국 메리 조이스, 김지호 회원
현장 축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현경 교수
회원 참여 시간	평화여성회와 함께 한 나의 평화발걸음; 평화여성회 과거, 현재, 미래 연결하기 - 김숙임, 김엘리, 박수선, 정경란, 이덕경, 윤보영, 김성경 회원
쉬어가는 코너	5행시 시상
마침	김정수 상임대표 감사인사



□ 설문조사 1: 평화여성회, 하면 생각나는 것은?



□ 설문조사 2: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중점적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은 활동과 주제는? 무엇이든지 알려주세요!!!

아직은 잘.../ 이번에 간 다음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평화통일운동의 여성의 활동

현안 대응 & 주제 확장
 어떤 정세도 넘을 수 있는 평화의 보편적 가치와 방식을 집중탐구
 기후변화 협력, 기후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적인 평화 이슈를 연결하는 평화 운동, 다양한 세대와 이슈의 연결

남북여성/ 북한여성과 함께 백두에서 한라까지 여성평화건강기/ DMZ에 여성평화생태농장 만들기.

여성평화안보 의제 실천하기/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 이행,

평화교육, 역량강화 : 평화교육과 관련 활동
 지금처럼 지지치 않고,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청년세대와의 공감/ 청소년과 어르신 통일교육
평화통일 진행자, 평화통일 교육
평화와 여성 문제에 대한 온 오프라인 대중 강좌 기획 운영
여성평화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 여성들의 평화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 등

평화문화/ 우리사회 내 평화 문화 확장 및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국제연대/ 다른 나라의 평화단체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각 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심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평화여성회 활동방식/ 가까와질 수 있는 방법/

좀 어려운 단체라는 느낌이 크답니다/ 더 많은 회원모집

- 통일을 위해 여성이 함께 하고 싶다는 취지의 평화여성회 영원하기를

▣ 설문조사 3: '평화여성회' 5행시 - 수상작

** 평화여성회 오행시 - 축하상 - 이성숙(어린이어깨동무 팀장)

평 평화를 위해 모였다

화 화해를 위해 모였다

여 여성들이 모였다

성 성공적인 25년

회 회상해보면 멋진 시간!

** 평화여성회 5행시 - 간절상 - 한산석 회원

평 평일에는 부르지 마세요.

화 화납니다

여 여유 있는 주말 행사라면

성 성의껏 밀린

회 회비 지참해서 달려갑니다

** 평화여성회 5행시 - 사회비평상 - 김다미 회원

평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꼭꼭 누릅니다

여 여러분~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관심주세요?

성 성장하던 민주주의가 말라비틀어지고 있습니다

회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민중이 피땀을 흘려야 할까요?

** 평화여성회 5행시 - 용기를 주는 격려상 - 이정아 대표(경기여성단체연합)

평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여정이 결코

화 화려한 꽃길일 수 없어요

여 여성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더욱 그러해요

성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더욱 멀기만 하지요. 그렇다고...

회 회군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앞으로 가야해요 그 여정에 평화여성회가 있네요

1997 ~ 202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5주년 기념행사 25공감

2022.10.24(월)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여성평화운동단체로 출발한 지 벌써 25년이 되었어요. 25주년을 축하하고, 돌아보고, 다시 나아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연대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2. 10. 24(월) 오후 5시 30분 ~8시 30분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3층 강당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3길 24)

프로그램 5:30 ~ 나눔바자회
6:00 ~ 소박한 밥상
7:00 ~ 본행사
(축하공연, 평화여성회와 나의 평화 발걸음: 과거-현재-미래)

후원계좌 국민은행 347-01-0018-351(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신청 bit.ly/평화25

문의 02) 929-4846/4847

초대하는이름 이 사 장 : 한정숙
공동대표 : 김정수(상임) 여혜숙(갈등해결센터 소장)
이 사 : 김귀옥(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김성은 김정아
김지영 박현선 배현주 윤은주 조영희



참여신청 QR코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4) 25주년 후원행사 : 25공감 후원모금 현황

(1) 재정모금액 : 18,055,111원

- 후원금 총액 : 14,541,111원

개인(12,591,111원), 단체(1,950,000원)

- 바자회 수입 : 3,514,000원

- 물품기증(김윤옥 회원 도자기 2점, 김지영 회원 토종 농산물,
김지호 회원 진도 생산 잡곡선물세트 외)

(2) 후원행사 지출액 : 2,839,670원

5) 평화여성회 25주년 기념행사 평가

(1) 평화여성회의 25주년을 축하하는 모임을 회원들과 함께 기획하여 평화여성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평화여성회'를 주제로 한 오행시를 선 발하며, 동시에 25주년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경험과 소회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2) 여성·평화시민사회 단체에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을 알리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감사와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평화여성회가 참여하고 있는 GPPAC NEA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창립 25주년을 축하 받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구축 활동에 참여한 평화여성회의 기여한 데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3)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열린 후원행사를 겸해 열린 25주년 기념행사는 제목 그대로 '25공감'이 되어 후원금, 물품 기증과 나눔을 통해 평화여성회의 재정에 보탬이 되었다. 이를 통해 평화여성회와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 인하게 되었다.

2.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대중화 사업

A. 통일교육협의회 지원사업 진행

1) 2022년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지원 사업 신청 및 집행

- 사전준비회의 :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온라인회의

참석: 김정수, 여혜숙, 박인혜, 이덕경, 손희정, 손서정

- 사전오리엔테이션 : 손빛나리 참석

- 신청일 : 2022년 4월 6일(수)

- 온라인심사 : 2022년 4월 12일(월) 오후 1시 20분~

- 결과발표 : 2022년 4월 22일(금) - 신청금액 대로 선정됨

- 예산변경 신청 및 승인 : 3회
- 사업마무리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2022년 11월 10일

2) 사업명 : 위기와 전환의 시대, 여성의 눈으로 평화와 통일을 다시 들여다 본다: '2022 여성평화통일아카데미' & '2022 여성평화통일기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2년 6월 9일 ~ 9월 23일 ○ 사업대상 : 여성, 일반 시민 ○ 참여 총인원 : 183명 ○ 주최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주관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후원 : (사)통일교육협의회 ○ 사업금액 자기부담금 : 1,000,000원 지원사업금 : 9,000,000원

(1) 목 적

① 우리 사회에 다가온 다양한 위기들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전개될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2022 여성평화통일 아카데미(6강 진행) 및 2022 여성평화통일기행(1박 2일) 진행함

② 기후 위기, 코로나 감염병, 미중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다양한 갈등과 병역제도 개혁 등 시민들의 삶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 환경의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비롯한 그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 여성평화통일 아카데미 6개의 강의 주제에 반영 및 1박 2일 평화통일기행 주제로 선정하여 진행함

③ 다양한 위기에 대한 진단, 한국사회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여성평화통일의식 향상과 여성평화통일운동 역량 강화로 이끈다.

➔ 여성평화통일아카데미와 여성평화통일기행 강사와 사회자, 진행자를 여성들로 구성하여 여성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 주제와 의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성인지적 관점), 경험, 지식을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안 및 여성평화통일운동을 위한 실천 방안을 발굴함

▣ 세부사업 1 : 2022 여성평화통일아카데미

주제 : “위기와 전환의 시대, 여성의 눈으로 평화와 통일을 다시 들여다 본다”

장소 : 온라인 줌(ZOOM)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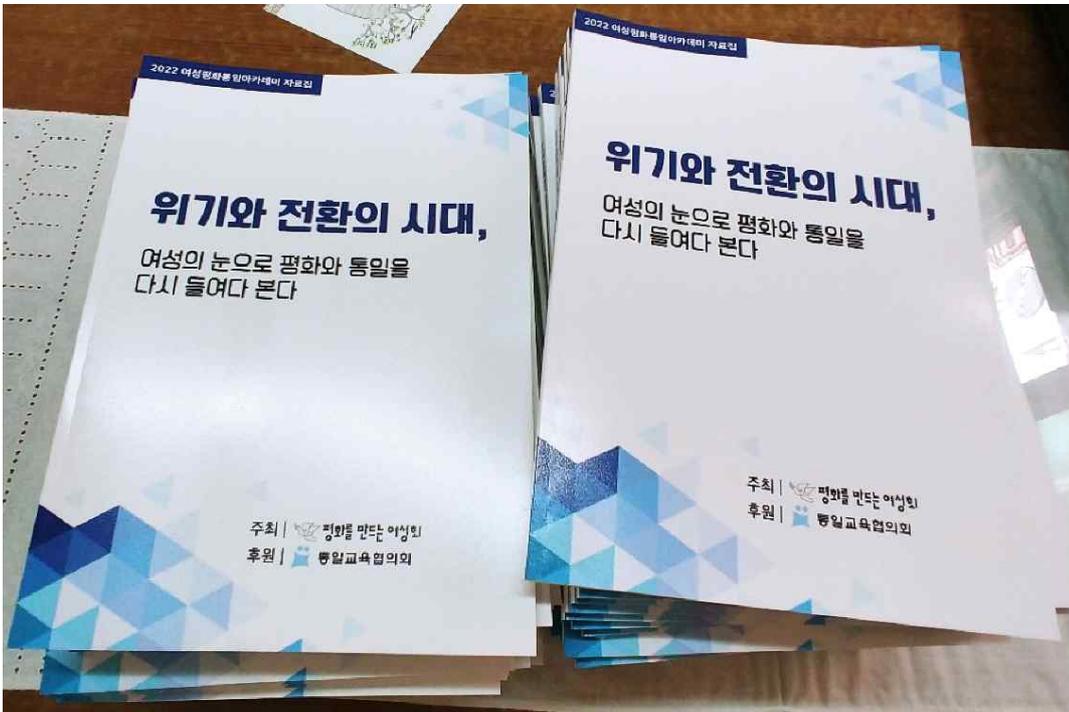
대상 : 여성·시민-1회당 약 30명 이상

- (1)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자문 활동 진행, 이후 강사 섭외, 웹자보 제작, 홍보활동, 온라인 강좌 참가자 모집활동 등 진행함. 홍보는 평화여성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개재, 언론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이뤄짐. 통일뉴스에서 본 프로그램을 소개함([평화여성회, '2022 여성평화통일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현장소식 < 기사본문 - 통일뉴스 \(tongilnews.com\)](#)). 아울러 평화통일단체, 여성운동 단체들로 구성된 여러 SNS(페이스북,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활동하고 동시에 참석자를 모집함
- (2) 1차 사업변경신청 승인 받음 : 6강 추가 & 웹자보 수정하여 다시 홍보함
- (3) 2022 여성평화통일아카데미 6강 진행함. 6회의 강의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줌 강의로 진행하였음. 동시에 참가자들에게 사전 사후 설문조사 실시함. 6강 종료 후 평가회의 진행함

회수	일시	강의명(주제)	
1회	6/9 (목) 19:30 - 21:30	코로나19 감염병이 남북관계에 준 위기와 기회는? - 코로나19와 우리의 삶의 변화 - 코로나19와 남북관계 변화 - 코로나19와 북한여성의 삶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남북협력의 과제 등	강사: 최혜경(어린이 어깨동무 사무총장) 사회: 윤보영(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강사)
2회	6/16 (목)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 우크라이나 사태의 기원 이해 - 서방(NATO)과 러시아의 입장 - 우크라이나 여성·시민들의 현재 -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	강사: 고가영(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사회: 손서정(가톨릭대 강사)
3회	6/23 (목)	미-중 경쟁과 갈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 미-중 경쟁의 현재와 전망 - 한국의 외교적 선택 - 여성평화통일운동의 과제	강사: 고유경 (WILPF Korea Peace Now 캠페인 컨설턴트) 사회: 조영미 (여성평화 운동네트워크 집행 위원장)
4회	6/30 (목)	기후 위기와 남북협력의 과제 - 기후 위기의 현황과 대안은 - 기후 위기가 남북관계에 주는 위기와 기회는 - 일상의 기후 위기 극복은	강사: 명수정(한국환경 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 이권명희(가치교육 연구소'숨' 소장)

5회	7/7 (목)	<p>갈등 속의 병역제도, 평화적 개선 방향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갈등과 병역제도 - 인구 위기와 병역제도 - 젠더 갈등과 병역제도 	<p>강사: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p> <p>사회: 이덕경 (시민교육 콘텐츠 연구소 전문위원)</p>
6회	7/14 (목)	<p>젠더 정의와 한반도 평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와 평화 의제 연관성 - 남북여성교류와 젠더 의제 - 한반도 평화와 젠더 정의: 지향점 	<p>강사: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p> <p>사회: 윤여령(충북대 강사)</p>

(4) 6강 종료 후 강의자료 정리하여 자료집 발간: 40부





위기와 전환의 시대,

여성의 눈으로
평화와 통일을
다시 들여다 본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경험하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우리의 삶과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들의 경험·지식·지혜를 통해 들여다 보는 여성평화통일아카데미와 평화통일기행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22 여성평화통일아카데미

일시 2022년 6월 9일~7월 14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방식 온라인 ZOOM
대상 여성, 시민 30명 선착순 (청소년도 신청 가능)

비용 무료
신청 2022년 5월 16일(월)~6월 3일(금)
링크 url.kr/q5w7sg

회차	일자	강의명	강사
1회	6.9 (목)	코로나19 감염병이 남북관계에 준 위기와 기회는?	최혜경 (어린이 어깨동무 사무총장)
2회	6.16 (목)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고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3회	6.23 (목)	미-중 경쟁과 갈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고유경 (WILPF Korea Peace Now 캠페인 컨설턴트)
4회	6.30 (목)	기후 위기의 현황과 남북협력의 과제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5회	7.7 (목)	갈등 속의 병역제도, 그 평화적 개선 방향은?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6회	7.14 (목)	젠더 정의와 한반도 평화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우수참가자에게는 '2022 여성평화통일기행' 참가 기회를 드립니다.

2 2022 여성평화통일기행 (1박2일)

주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통일 교육 협의회

문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6

2) 세부사업 2: 2022 여성평화통일기행

주제 : 여성들의 참여로 만드는 DMZ 평화지대, 평화통일의 미래

날짜 : 2022년 8월 26(금)~27(토)

장소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소재)

대상 : 여성·시민

참가 : 35명

(1) 프로그램 기획회의와 장소 예약, 프로그램 구성 회의, 특강 강사 섭외, 써클 대화 진행팀 회의(설문지 만들기, 대화 규칙 정하기), 웹자보 제작, 참가자 모집 활동 및 홍보, 버스 예약(비교 견적 받음), 여행자 보험 가입, 플래카드 제작, 이 름표 등 안내자료 준비, 필요 물품(문구류 등) 구입 등 진행함. 준비상황 변화에 따라 3회 예산변경 신청하여 수락받은 후 진행함

(2) 참가자 안내 공지, 1박 2일 기행 시 사용할 안내자료(팸플릿 형식) 제작 및 참가자들에게 배포

(3) 2022여성평화통일기행(8월 26~27일) & 상하행 차량에서 사전사후 설문 진행

전체 주제 : 여성들의 참여로 만드는 DMZ 평화, 그리고 통일		
	1일차 : 2022년 8월 26일(금)	2일차 : 2022년 8월 27일(토)
오 전	서울~인제 - 출발시간: 오전 9시 - 출발장소: 합정역 홀트아동복지회 앞 - 차 안에서 간단한 인사	o 아침식사 8시~9시 평화감수성훈련(2) : 이권명희 써클대화 : "여성들, 평화의 DMZ를 상상하다." - 총진행: 여혜숙 - 모듬진행: 이덕경, 이권명희, 김다미 마무리 전체 프로그램에서 느낀고 배운 것 나누기/ 평가 설문지 작성하기
	o 점심식사(12시~1시) 오리엔테이션) 특강 및 소개 : DMZ 평화생명 동산 소개 및 DMZ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현재의 생태문화적 가치, 그리고 미래의 나아갈 길 - 강의: 정성헌(한국디엠지평화생명동산이사장)	o 점심식사(12시~1시) o 서울로 출발 진행자 소속과 지위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갈등해결센터 소장) 이덕경(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전문위원) 이권명희(가치교육연구소 '숨' 소장) 김다미(전 광명노인복지관 상담사)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프로그램 : 향로봉 산림유전 자원 생태체험 	
저 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녁식사(6~7시 30분) 	
	<p>“DMZ에서 평화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감수성훈련(1) 이덕경 - DMZ, 여성들의 삶과 평화 (채효정 작가, 한국디엠지평화생명동산) 	

(4) 씨클 대화 진행자 평가회의 진행(2022년 9월 23일) 및 사업 종료

(5) 1박 2일 기행 활동 및 평가내용 포함 자료집 제작(비교견적 받음) 및 발간 : 40부





여성의 참여로 만드는 DMZ 평화기대, 평화통일의 미래

2022 여성평화통일기행 참가자 모집

- 일시** 2022년 8월 26일 (금) ~ 8월 27일 (토)
- 참가비** 무료
- 장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소재)
- 참가신청** <https://url.kr/gx3kci>
- 대상** 여성·시민 30명 선착순
- 신청마감** 2022년 8월 5일 (금)

	일차	날짜	일정
주요 일정	1일차	8월 26일 (금)	서울 출발 - 오전 9시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부근)
			DMZ 역사와 생태문화 이해하기
			DMZ 생태환경 체험하기
			평화를 느끼고 나누기
	2일차	8월 27일 (토)	써클 대화 - DMZ 평화지대를 상상하다
			서울 도착 - 오후 5시 경

주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통일 교육 협의회
 문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6

3) 사업 성과

- (1) 2022 여성평화통일아카데미는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진행하였고,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오랜만에 1박 2일로 평화통일기행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아카데미와 평화통일기행 전체 183명이 참가하여 애초에 예상/기대하였던 참가자 215명(6회 강좌 180명, 기행 35명)의 85%를 달성하였다. 여성평화아카데미의 경우 목표의 82% 달성, 평화통일기행의 경우 목표의 100% 달성하였다.
- (2) 2022 여성평화아카데미는 **주제의 측면**에서, 변화되는 환경(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 남북관계의 후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연속 강의로서, 참가자들의 다양한 관심에 부응하여 호응을 얻었다. **강사의 측면**에서 6강 모두 여성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한 바, 여성과 평화, 여성과 안보, 여성과 기후변화 등 주제에 대한 여성들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의 담론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진행방식의 측면**에서 6강 모두 온라인 줌강의로 진행하여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의 신청자들도 온라인 줌에 접속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접근성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주최자(평화여성회) 측면**에서 어려운 주제를 가능한 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강사들과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최적화된 강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향후 강의 주제들을 발전시켜 실천적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3) 2022 여성평화통일기행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한국디엠지평화생명동산에서 진행하였다. 본회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한 1박 2일 대면 프로그램이어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다. **프로그램 주제 측면**에서, 남북관계는 위축되었으나 참가자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을 회복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었고, 특별히 강원도 인제 DMZ 접경지역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행방식 측면**에서, 체험활동(접경지역 생태체험, 씨클대화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속의 한반도 평화, 특히 접경지역의 평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주최자(평화여성회) 측면**에서, 오랫동안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참가자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동시에 여성평화운동의 관점에서 여성평화통일 인식의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준비한 실무팀과 씨클대화 진행팀 모두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다.

B. Women, Peace, Security(WPS) 의제 관련 활동

1)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WPS 의제 연속 세미나

※ 본 사업은 평화여성회 공식 사업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한정숙 이사장의 제안, 김정수 상임대표의 기획으로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WPS 의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음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 의제 연속세미나

○ 취지: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 의제는 2000년 10월 유엔에서 1325번째 통과된 결의안(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과 이후 채택된 9개의 후속결의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국가안보나 군사안보 중심의 안보 개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전쟁과 무력 분쟁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남성과 소년들과 다른 경험을 한다. 20세기 후반 증가한 무력 분쟁에서 성폭력과 젠더 폭력은 분쟁의 결과로 발생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전쟁의 수단(weapons of war)으로 채택되어, 분쟁 속 여성 인권 침해 문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분쟁 속 성폭력-젠더 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으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평화 과정이나 평화협상에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동시에 분쟁 후 재건과 회복 과정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경험, 이해를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0년 10월 유엔안보리는 국제여성인권운동, 여성평화운동의 요구를 수용하여 평화 과정의 여성 참여, 분쟁 속 여성 인권 침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구호와 회복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채택을 담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후 9개의 후속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러한 결의안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국가행동계획 채택을 권고하여 2005년 덴마크가 최초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대한민국도 여성평화운동단체들의 국가행동계획 채택 요구와 국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4년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 1기(2015~2017), 2기(2019~2020)를 지나 현재 3기(2021~2023) 국가행동계획을 이행 중이다.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코이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렇게 10개

부처가 예방, 참여, 보호, 구호와 회복, 이행점검 등 영역의 목표와 세부계획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번 WPS 세미나에서는 WPS 1325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의 국제사회 성평등, 여성인권, 평화안보 담론에 대한 흐름, 대한민국 1325 국가행동계획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국제사회 특히 분쟁지역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가 여성인권운동, 여성평화운동으로 수용되는지 그 사례를 이해함으로써, 다시 한국사회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담론화, 정책화, 실천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동시에 여성주의 관점에서 군대와 병역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여 향후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 일시 : 2022년 봄 학기

○ 방식 : 온라인 줌 세미나

○ 강의

1강 : 유엔과 국제사회 성평등 규범의 발전과 현재(조영숙(한민국 양성평등 대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2강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과 대한민국 국가행동 계획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3강 : 분쟁지역 여성평화운동(고유경(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Korea Peace Now 캠페인 컨설턴트)

4강 : 여성과 군대(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광주지역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강의

- 일시와 장소 : 2022년 6월 8일,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강당

- 강사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3) WPS 아카데미_제7기 청년외교살롱

- 일시와 장소 : 2022년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 주제 : WPS Actions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에서 한반도 평화까지

- 강의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4) 경기도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활동

(1) 경기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 자문

- 주제: 경기도 평화교류 협력사업의 여성참여 확대 방안
(책임연구: 임혜경)
- 자문: 김정수 상임대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
- 자문: 2022년 상반기 4회

- (2) 2022경기여성평화포럼(여성, 경계를 넘어 만나다) 참석 및 사회자 역할
- 2022년 10월 13일(목) 오후,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5) 여성가족부, 외교부 WPS 의제 관련 활동

- (1) 여성가족부 4기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 자문-민주평통(온라인)
- (2) 외교부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회의 참석(5월 2일)

3.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1) 현안 대응 : 성명서, 논평 발표 등

1월 11일 - [공동성명] 윤석열 후보의 반(反)페미니즘 선동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처

1월 21일 종교·시민사회,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 발표

1월 28일 [2002년 군산개복동 화재참사 20주기 성명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년, 여성을 죽이는 폭력의 역사, 이제는 끝내자!

2월 7일 [공동성명] 성차별에 무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야말로 ‘옛날 얘기’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라.

2월 8일 [여성시민종교단체 공동성명] 윤미향 국회의원의 제명처리 철회를 요구한다.

2월 10일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한다 - 평화여성회 회원들 연명, 조직, 홍보, 기자회견 등 참여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지하)
- 순서
 - 사회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발언1: 한정숙(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 발언2: 이하영(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 입장문발표 : 차경애(전YWCA회장), 이영분(기독교여민회 총무)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98>

여성신문 2월 10일 "여성연구자·활동가 220명 "이번 대선으로 성평등 후퇴 우려"



2월 12일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선언문]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 평화여성회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에 참여

2월 28일 [공동성명] 윤석열 후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악의적 오해와 혐오 편승 유세를 규탄한다.

2월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Stop the War in Ukraine! Give Peace a Chance!

March 3, 2022 Honorable Wendy Sherman Deputy Secretary of State United States of America & Madame Choe Son-hui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ar Honorable Wendy Sherman and Madame Choe Son-hui, 편지에 평화여성회 연명

3월 2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의 회복을 염원하는 91개 한국여성단체 공동입장문: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

협의 종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제안, 조직, 언론홍보 등

- 언론보도 (연합뉴스) : [우크라 침공] 국내 여성단체 "러시아, 핵무기 사용 위협 중단해야" (2022.03.02.)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2173600530?input=1195m&fbclid=IwAR0j_VCWZcyUy9ZtEQc-uGTN4dwA_iVgdFN8hU6OrlqDQVbhBdj4ug386NY

3월 3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 - 평화와 협력이 유일한 길입니다! -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 김정수 상임대표 참석 및 발언

3월 11일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기자회견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쳐'

3월 25일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문 발표에 연명

3월 28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입장문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발표

3월 30일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인수위 앞 기자회견 참여 및 발언 : "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바랍니다. 남북 합의 존중과 이행, 적대 관계 종식,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적극 나서주시옵시오"

4월 5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에 연명

4월 5일 115개 국제 및 해외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들, 4월 3일(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합동 성명서 발표

4월 18일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올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전면 중단하라!" 시민단체성명서 연명

4월 19일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여성시민사회 성명서 연명

4월 20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입장문 연명"

4월 25일 2022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Stop arms race, Give peace a chance!)

4월 29일 [공동성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고려인 동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의 긴급 구호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5월 19일 “우리는 인간안보를 보장할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운동단체 기자회견 조직 및 기자회견 참여 – 64개 여성단체 연명

일시 : 2022년 5월 19일(목) 오전 11시 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
순서 :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언 –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박종화(전국여성연대 사업기획국장)
공동주최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6월 21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시민사회 기자회견(용산 대통령실 부근) 연명 및 참가

7월 5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존치 결정을 염원하는 세계시민들의 요청서 연명: “우리는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압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테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 존치 결정을 요청합니다!”

7월 25일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평화의 약속 결의문> 대결로 치닫는 위기의 한반도,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듭시다

8월 10일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약칭.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 발족선언 참여

9월 30일 독도 인근 동해 해상에서 열리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반대 기자회견 참여 및 발언

10월 4일 [공동성명]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불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10월 25일 [공동성명]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선언

10월 27일 [704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김정수 대표 발언)

11월 3일 [한반도 충돌 위기에 즈음한 비상평화회의] "충돌은 안됩니다. 전쟁을 부르는 적대와 군사행동을 모두 멈춰야 합니다!"(용산 대통령실 앞, 김정수 대표 발언)

11월 7일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

11월 15일 [기자회견문]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한다!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충돌 조장하는 통일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2)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평화·안보(WPS) 안보 정책 및 공약 제안 활동

(1)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선 TF 참여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제20대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돌봄·연대·정의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 정책』 자료집 발간에 참여

①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영역 중 6.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여성·평화·안보 정책 수립" 과제 제안

6.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여성·평화·안보(WPS) 정책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대 6.15 정상회담 이후 활발히 진행된 남북여성교류 현장에서 남북여성들은 화해와 협력의 주체로 나서 6.15 공동선언의 실천, 전쟁 방지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정치적 부침에 따른 여성교류 축소 등 남북여성교류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성들의 고유 관심사와 젠더 관점의 공동의제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8년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 상회담 당시 잠깐의 교류 이후 현재 남북교류는 중단되었으나, 남북여성들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 구축, 남북여성들의 삶의 질 개선,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의 과제를 안고 있다.

○ '유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평화·안보 영역의 성인지적 의제 개입을 통하여 남

북여성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한반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에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에 관한 국회보고가 의무화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 배정이 '의무'가 아닌 '노력'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이행 모니터링·평가 체계 및 정부-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민간자문단 참여 부처별 이행점검과 전체 민간자문단 회의가 각 연1회에 머무르고 있다.

- '여성·평화·안보' 의제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내 명시되어 있으나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참여 기반 확대, 남북여성 역량강화와 협력 지원, 국제사회 분쟁 하 여성인권 옹호 활동을 위한 여성·평화·안보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평화·안보법' 제정이 필요하다4).

2) 정책과제

○ 남북여성교류 인프라 구축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젠더분과 설치, 교류협력 각 분야별 위원회 및 실무기구에 여성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화
- 남북여성교류협력과 민관거버넌스 담당부서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 설치

○ 한반도 평화 구축 정책의 여성 참여 제도화 및 성주류화

-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지자체 교류협력기금에 남북여성 경제협력 기금 신설
- '1325 제4기 국가행동계획'의 '구호와 회복(Relief&Recovery)' 영역에 북한 여성 개발협력, 혹은 남북 여성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포함

○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정책 수립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개정 : 효과적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 및 국회보고 의무화
-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거버넌스 제도화 : 시민사회 이행 보고서 작성과 제출 의무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여성·평화·안보법' 제정을 위한 조사연구와 방향 수립
- 청와대 비서실 내 '여성·평화·안보 비서관' 설치를 통한 관련 정책 조정

② 오마이뉴스 '페미니스트 주권자 연속 기고'(4)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성평등한 정부가 필요하다.” <http://omn.kr/1xk1p>



③ 각 당 후보들에게 젠더정책 질문 & 답변 받음

돌봄·연대·정의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과제 제20대 대통령 후보 공개 질의 답변 결과							
질의 내용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오준호	 이백운	 김재연
1. 기득권 남성의 과대 대표성 해체 및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보장을 위해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	보류	○		○	○	○
2.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	○	부분 찬성	○		○	○	○
3.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종식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X	○		○	○	○
4. 민법 79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3조의 가족 정의 개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한 보편적 가족구성권 보장	○	보류	○		○	○	○
5. 자녀 출산, 양육, 배우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	부분 찬성	○		○	○	○
6. 여성 참여보장과 '1325호 국가행동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통한 여성-평화-안보(WPS) 정책수립	○	○	○	답 변 하 지 않 음	○	○	○
7. 2030 NDC 목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향 조정, 기후변화 정책 수립을 위한 여성의 참여 및 평등한 접근권 보장 등 젠더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수립	○	○	○		○	○	○
8.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노동자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	부분 찬성	○		○	○	○
9. 임금,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직책별 승진까지의 성별 소요 연한, 고용형태별 성비, 직군별 성비 공개 및 데이터를 통한 격차 및 성평등 수준 평가, 문제해결 및 개선 계획 제출, 이에 대한 실행 점검 등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성평등 공시제 전면 도입	○	부분 찬성	○		○	○	○
10.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공개, 차별 판단기준으로서의 4/5 룰을 근로감독과 매뉴얼에 반영, 성차별 질문 자체도 성차별로 인정하는 고평법 해석확대, 면접관 성비 한쪽 성 60% 초과 금지와 처벌규정 강화를 통한 채용성차별 근절	○	부분 찬성	○		○	○	○
11.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와 사회적 돌봄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가치 제고를 통한 임금 보장 등 필수노동자 비정규직 사용 금지	○	부분 찬성	○		○	○	○
12. 모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법제도 마련	○	부분 찬성	○		○	○	○

(2)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에 1325 국가행동계획 정책 제안하여
5대 비전(평화와 안보) 18. 평화번영 정책 중 하나로 수용됨



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1325위원회' 설치

- UN안보리 1325 결의안을 기반으로 한 여성-평화-안보 정책 수립
-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한반도 실현
- 해외 개발협력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여성평화ODA 정책 추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 국무총리실 산하 '1325위원회' 설치**
 - 안보리 1325 결의안을 기반으로 한 여성-평화-안보 정책 수립
 -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한반도 실현
 - 해외 개발협력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여성평화ODA 정책 추진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종합적 추진체계 마련**
 - 전시 인권·성착취 문제의 역사적 재조명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
 -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자료 조사·수집·관리, 연구·집적, 교육, 국제사회 연대 및 홍보
- 일본군'위안부' 역사 왜곡 및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수립**
-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3) 남북여성교류 재개와 협력을 위한 활동

➔ 6.15 남측위 여성본부 활동 보고

4) 여성평화군축운동 전개를 위한 국내외 여성평화안보 네트워크 활동

(1) ➔ 국내 사안별 연대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Korea Peace Now 캠페인 국
내 네트워크) 보고

(2) ➔ GPPAC NEA(울란바타르 프로세스) 활동 보고

【3】 정보 홍보 사업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1) 홈페이지 <http://www.peacewomen.or.kr/>

(2) 페이스북 활동 : 평화여성회 2022 페이스북 업로드 리스트

<https://www.facebook.com/koreawmp>

2021년 12월 30일 · 2021년 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로운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월 4일 ·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여성회가 참여하고 있는 GPPAC NEA 2021년도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활동 보고를 공유드립니다. 평화여성회와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대한 보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gppacnea.org/.../ulaanbaatar-process-7-summary.../>
Ulaanbaatar Process 7 - Summary Document
December 21, 2021

1월 13일 · [공동성명] 윤석열 후보의 반(反)페미니즘 선동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처

1월 20일 · 2022년 1월 19일에 열린 한국여성단체연합 2022년 총회는 여러모로 의미있는 총회였습니다. 지난 해, 여성연합운동의 혁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물이 2022년 사업계획안으로 제안되었고, 또 공석이었던 두 분의 대표님도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평화여성회도 2021년 열심히 활동했다고 '여성평화가교상'을 받았습니다. 여성연합이 새출발을 다짐하는 총회에서 받은 모범회원상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한해 여성평화운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기쁘면서도 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은 기쁨을 주네요!!

1월 22일 · 종교·시민사회, 대선후보들에 '평화통일 요구안' 발표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전문)

1월 27일 · [2002년 군산개복동 화재참사 20주기 성명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년, 여성을 죽이는 폭력의 역사, 이제는 끝내자

1월 28일 · 평화여성회가 어제(1월 27일) 저녁 정기총회(온라인)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김성은 이사장님께서 이임하시게 되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제작해서 코로나 상황이라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의 글을 읽어 보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김성은 이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1월 28일 · 평화여성회가 2022년 1월 27일(목) 정기총회(온라인)를 개최하여 신임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하여, 그

리고 여성들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요청드립니다!

2월 7일 [공동성명] 성차별에 무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야 말로 '옛날 얘기'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라.

2월 8일 [여성시민종교단체 공동성명] 윤미향 국회의원의 제명처리 철회를 요구한다.

2월 10일 한반도의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220명이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 공유합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
여성연구자·활동가 220명 “이번 대선으로 성평등 후퇴 우려”

2월 10일 <https://www.khan.co.kr/.../nation.../article/202202101453001>
여성 연구자·활동가 220명 “이번 대선으로 평화·성평등 후퇴 우려”

2월 10일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90>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가 할 말이 아니다”
여성연구자·활동가 220명, 선제타격·사드추가배치 비판

2월 14일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선언문]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2월 22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정숙 신임이사장 인사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2일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기자회견”(2021년 2월 10일) 중 한정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발언문

2월 24일 평화여성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단체들과 함께 20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돌봄.연대.정의 :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젠더정책"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공유합니다.

2월 25일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성명 2022년 2월 9일

2월 25일 평화여성회는 그동안 'WPS(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 결의 국가행동계획'을 성평등한 한반도 의제와 결합시켜 거버넌스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쪽에서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정책 제안해 달라고 해서 1325 국가행동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여성.평화.안보 정책'(새롭게 명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과 조직적 위상 제고를 포함한 내용을 보냈더니, 이렇게 수용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2월 28일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11시, 러시아대사관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Stop the War in Ukraine! Give Peace a Chance!

2월 28일 [공동성명] 윤석열 후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악의적 오해와 혐오 편승 유세를 규탄한다.

2월 28일 Joint Statement Stop the War in Ukraine! Give Peace a Chance!

3월 2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의 회복을 염원하는 91개 한국여성단체 공동입장문 :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종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3월 3일 어제(3월 2일) 91개 여성단체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서가 통일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 서술이나 사실관계 확인, 우리가 익숙히 알던 지명(키예프 등) 표기 등등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밤에 최종본을 완성하였습니다. 다행히 통일뉴스가 실어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시민이나 군인 모두 포함하여), 자연환경, 역사적 공간, 현재의 삶의 자리 모두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빨리 돌아오기 바랍니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 91개 여성단체, '러 핵무기 사용 위협' 중단 촉구 공동입장문 "외교와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전문)

3월 3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
- 평화와 협력이 유일한 길입니다! -

3월 4일 오후 1:45 · 여성연합에서 후보들에게 보낸 젠더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화여성회에서 제안한 "평화과정에 여성참여,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기반 '여성평화안보' 정책 수립"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2173600530?input=1195m>
[우크라 침공] 국내 여성단체 "러시아, 핵무기 사용 위협 중단해야"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논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

3월 11일 오늘(3월 11일) 오전 11시,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기자회견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처>에 참석했습니다. 평화여성회도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참여 단체입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3월 12일 <https://youtu.be/0hsb1CvpHxM>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윤석열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

이다”

3월 15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82819> 윤석열 당선자, 할당제 발언 신문 기사 공유

3월 15일 여성과 평화 포럼 안내: 우크라이나 사태의 기원과 향후 전망(4월 21일 예정)

3월 16일 <http://bit.ly/성평등선언> 어제 오후에 연명시작하여 오늘 오후 1시 30분 현재 6,350명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계속 연명 부탁드립니다!!

3월 24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회원대화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제목은 "대선 한 달 후, 지금 어떠신가요?" 입니다.

3월 25일 [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3월 29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입장문]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3월 30일 3월 29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운영위원회/총회로 모였습니다

3월 31일 3월 마지막날에 부설 갈등해결센터 '설렁설렁 모임'이 온라인으로 모였어요.

4월 5일 115개 국제 및 해외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 3일(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합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4월 5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4월 8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도 참여해서 발언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집회> 분노한 사람들, 전국에서 모여 우리의 힘을 보여주세요!!

4월 22일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주최 '여성과 평화포럼'(주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기원과 향후 전망)을 진행했습니다.

4월 29일 [공동성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고려인 동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의 긴급 구호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4월 29일 2022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Stop arms race, Give peace a chance!)

5월 16일 위기와 전환의 시대, 여성의 눈으로 평화와 통일을 다시 들여다 본다.
<2022 여성평화통일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5월 17일 [연명 요청]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운동단체 기자회견(일시: 5월 19일(목) 오전 11시,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

5월 17일 [공동입장문: 북한 주민을 위한 코로나 방역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월 20일 5월 설렁설렁 모임은 19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어요.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5월 20일 여성신문 기사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단체공동기자회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

6월 2일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 후,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제7회 <여성과 평화포럼> 안내 (주제: 다른 정치는 가능한가?)

6월 9일 오늘(9일) <2022 여성평화통일아카데미> 1강을 시작합니다.

6월 13일 오늘은 효순이와 미선이가 미군장갑차에 사망한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평화여성회, 효순미선 20주기 추모제 공동주최 안내)

6월 14일 내일(6월 15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매년 돌아오는 6월 19일 세계전시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으로 진행됩니다.

6월 21일 오늘(6월 21일, 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박물관 정문 쪽에서 89개 종교·시민단체들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월 7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존치 결정을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요청서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연명을 받아 전달했다고 합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도 연명했습니다.

7월 18일 2022 여성평화통일기행 참가 신청하세요!!

7월 25일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평화의 약속 결의문> 대결로 치닫는 위기의 한반도,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듭시다

8월 3일 평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주최 제8회 여성과 평화포럼(주제: 한반도 평화의 비전과 경로: 철학과 전략의 근본적 전환은 위하여, 발표: 박명림 연세대학교)이 8월 23일(화) 저녁 8시부터 온라인 줌으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약칭.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선언문

8월 29일 평화여성회 2022 성평화통일기행, 참 오랫동안 인제로 다녀왔습니다.

8월 29일 인제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트위터에서 평화여성회 여성평화통일기행 알린 것 공유드립니다!

9월 7일 평화여성회를 지지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2022년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9월 23일 2022 GPPAC NEA(울란바타르 프로세스) 회의(몽골, 9월 12~15일) 참가 보고

9월 27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25공감 안내

9월 30일 오늘 독도 인근 동해 해상에서 열리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 공유드립니다.
(장소: 용산 대통령실 부근 전쟁박물관 정문 앞)

10월 4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25공감 안내

10월 14일 내일(토, 10월 15일, 오후 2시) 종각역 2번 출구에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반대하는 전국집중행동이 열립니다.

10월 14일 어제(10월 13일.목) 2022경기여성평화포럼(여성, 경계를 넘어 만나다)이 임진각평화누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10월 15일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반대하는 전국집중행동 - 사진 업로드

10월 25일 어제 평화여성회 25주년 기념행사 '25공감'을 잘 마쳤습니다.

10월 25일 평화여성회도 연명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군사협력 중단 촉구 가계선언'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10월 27일 오늘 704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를 진행했습니다. (김정수 대표 발언)

11월 3일 [한반도 충돌 위기에 즈음한 비상평화회의] 충돌은 안됩니다. 전쟁을 부르는 적대와 군사행동을 모두 멈춰야 합니다!

- 일시 & 장소 : 2022년 11월 3일(목) 오후2시, 용산 대통령실 앞

- 발언: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11월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 발족 기자회견문

11월 12일 동경에서 11월 12~13일 열리는 제20회 역사인식과 아시아의 평화포럼에 왔습니다.

11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20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이틀째, '정치.외교문제가 된 역사논쟁'과 '역사인식의 쟁점을 둘러싼 수업실천' 세션이 진행됩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선언도 받고 있습니다.

11월 16일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22.11.15.

11월 1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32주년 기념 정의기억연대 2022 후원의 밤에 참석 중입니다.

11월 21일 12월 19일(월) 오후 5시~ 평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주최, "사회적 재난과 여성: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여성과 평화포럼이 열립니다.

11월 30일 여성가족부 폐지 절대 막아! 문자행동☞

12월 2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직거래 곳감 구입 안내]

12월 2일 GPPAC(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 동북아 단체들과 함께 12월 4~18까지 워싱턴-뉴욕(UN)-헤이그-브뤼셀(EU)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어드보커시 트립을 다녀옵니다.

12월 6일 지팩 동북아 시민사회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어드보커시 방문 보고(1)

12월 7일 지팩 동북아 시민사회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어드보커시 방문 보고(2)

12월 9일 지팩 동북아 시민사회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어드보커시 방문 보고(3)

12월 11일 지팩 동북아 시민사회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어드보커시 방문 보고(4)

12월 14일 지팩 동북아 시민사회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어드보커시 방문 보고(5)

12월 14일 지팩 동북아 시민사회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어드보커시 방문 보고(5)-1

12월 17일 지팩 동북아 시민사회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어드보커시 방문 보고(6) - EU와 유럽의 한반도 문제 담당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12월 17일 지팩 동북아 시민사회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어드보커시 방문 보고(7) - 브뤼셀 소재 European Peacebuilding Liaison Office (EPLO) 미팅, 라이덴대학교(헤이그 캠퍼스) 학생들 미팅, 헤이그에서 International Crisis Group(ICG)의 한반도 담당 Senior Consultant 크리스토퍼 그린과의 만남 등 비공식 미팅 보고

12월 28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송년인사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3. 메일을 통해 본회 소식 전달

- 12월 30일(2021년) 평화여성회 2022년 신년인사

- 1월 24일 : 2022년 제26회 정기총회 참석여부 회신의 건

- 1월 28일 : 2022년 정기총회 개최와 신임이사장 취임 알림

- 2월 16일 :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3월 5일, 광화문 일대) 신청하세요!

- 2월 21일 : 한정숙 신임이사장 인사드립니다!

- 2월 25일 :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젠더정책 카드뉴스

- 3월 4일 : 우크라이나의 평화의 회복을 염원하는 여성단체 입장문 발표

- 3월 4일 :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3월 15일 : 여성평화연구원 주최 4월 21일 예정, 여성과 평화 포럼 - 우크라이나 사태의 기원과 향후 전망, 안내드립니다

- 3월 24일 : 4월 9일 예정, 회원 대화모임 안내 - 대선 후 한달...

- 4월 11일 : 4월 21일(목) 저녁 '여성과 평화 포럼' 다시 안내드립니다

- 4월 11일 : [평화여성화- 2020년 3~4월 활동 보고와 안내

- 5월 16일 : 2022 여성평화통일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5월 17일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 및 공동 성명문 연명 요청
- 6월 7일 : 평화여성회 2022 여성평화통일아카데미 6월 9일(목) 저녁 시작!
- 6월 7일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제7회 '여성과 평화 포럼' 안내
- 6월 29일 : 평화여성회 5~6월 활동 보고
- 7월 18일 : 2022 여성평화통일기행(8월 26~27) 신청하세요!
- 8월 3일 : 여성평화연구원 제8회 여성과 평화 포럼 안내(재발송함)
- 9월 7일 : 추석인사 드립니다!
- 9월 22일 :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10월 24일/월, 오후 5시 30~) 안내 (9월 27일, 10월 11일, 10월 18일, 10월 24일 재발송)
- 10월 14일 : 여가부폐지반대 공동행동 집회(10월 15일 오후2시) 안내
- 10월 27일 : 평화여성회 25주년을 축하하고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1월 21일 :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제9회 여성과 평화 포럼 안내드립니다!
- 12월 2일 : 연말연시 곳감 구입 안내드립니다! (12월 27일 재발송)
- 12월 26일 :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12월 27일 : 평화여성회 2023년 제27차 정기총회 공지
- 12월 28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22년 송년인사 드립니다.

【4】 회원 사업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1. 회원대화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화모임

“대선 한 달 후, 지금 어떠신가요?”

- 일시 : 2022년 4월 9일(토) 오후 8~10시
- 온라인(zoom) : 참가신청자에게 추후 알려드립니다.

○ 취지 이 대화모임은 대선에 대해 분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선 후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인해 각자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나누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 대화모임에 대한 안내
대화모임은 서로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말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야기 나눌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꼬리를 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자리에 두고 가기를 바랍니다.

○ 순서

1. 인사 나누기 (20분)
어디에 계신 누구인가요?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드는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인가요?
2. 대선 과정과 결과가 나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40분)
3. 대선 과정을 통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40분)
4. 대화모임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또는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20분)

○ 참가 신청 : wmpeace@naver.com

➔ 갈등해결센터 활동보고 참조

2. 회원확대와 재정자립 기반 조성사업 :

▣ 2022년 신규회원가입 현황

번호	가 입 일	성 명	비 고
1	2022.02.28.	문명녀	
2	2022.03.08.	신혜진	
3	2022.04.02.	김아름	
4	2022.04.26.	도지인	
5	2022.07.05.	김태경	
6	2022.07.08.	노향란	
7	2022.08.17.	윤혜란	
8	2022.08.27.	김현미	
9	2022.08.27.	이상임	
10	2022.09.29.	오채림	
11	2022.11.03.	김경민	

3. 재정 사업

1) 25주년 후원행사 : 25공감

(1) 일시 :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17:30 ~ 20:30

(2) 장소 : 영등포산업선교회 3층 강당

(3) 재정모금액 : 18,055,111원

- 후원금 총액 : 14,541,111원

개인(12,591,111원), 단체(1,950,000원)

- 바자회 : 3,514,000원

- 물품기증(김윤옥 회원 도자기 2점, 김지영 회원 토종 농산물, 김지호 회원 진도생산 잡곡선물세트 외)

(4) 후원행사 지출액 : 2,839,670원

2) 연말연시 기금마련 활동 (꽃감 판매)

(1) 판매기간 : 2022년 12월 12일~2023년 1월 10일

(2) 총 판매액 : 8,842,000원

(3) 재정모금액 : 1,887,000원

【5】 연대 및 협력 사업

I. 국내 상설연대

1. 한국여성단체연합

- 1) 3차 총회준비위원회 : 1월 10일(월) 오후 2시~ 온라인, 김정수 참석
- 2) 2022년 총회
 - 일시와 장소 : 1월 19일(목) 오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강당(1층)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김정아
 - 비고 : 평화여성회 특별상(우수단체상) 수상
여성연합 정관개정으로 이사회와 공동대표자회 분리함
평화여성회 대표는 평화통일운동 영역 대표로 이사회 참여하게 됨
- 3) 이사회 참석
 - 1차(2월 14일(월) 오후 1시 30분,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안건: 3.8 여성대회 기획안 논의, 기부금 관련 경과보고 등
 - 2차(5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안건: 내규개정, 재정안정화 방안, 22년도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등
 - 3차(10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안건: 여성연합 내규개정안 확정
 - 4차(11월 8일(수) 오후 1시 30분,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안건: 제37차 총회 관련 논의 등
- 4) 공동대표자회의
 - 1차(2월 9일(수) 오후 2시, 온라인)
 - 2차(4월 7일(목) 오후 2시, 온라인)
 - 4차(11월 8일(화) 오후 2시, 여성미래센터
※ 김정수 대표 - 남북관계, 국제정세 현안 등 발제
- 5) 2022 전체활동가대회
 - 일시 : 2022년 8월 23일, 온라인 진행
 - 활동 : 그룹세션 발제(김정수 상임대표)
(전쟁과 평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성운동 좌표 그리기)
- 6) 대선TF 활동
 - ※ 평여 활동 ☞ 본회 활동 보고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평화.안보 (WPS) 안보 정책 및 공약 제안 활동] 참조

- (1) 회의 : 2월 17일(목)오후 4시, 온라인
 - 평화여성회,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단체로 참여
 - 3월 11일(금) 오전 11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집회 참여 :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기자회견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2) 2022년 3월 11일(금)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
 -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기자회견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처> 참석
- (3) 평가회의 : 4월 12일 오후 1시, 온라인
- (4) 2022년 4월 16일(토) 오후 1시~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집회” 참가 및 발언(김정수)
- (5) 10월 15일(토) 종각역 2번 출구,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반대하는 전국집중행동” 참가(김정수, 김귀옥, 김정아)
- (6) 11월 8일(화)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 행동” 발족식 - 평화여성회도 참가단체로 참여 중
- 7)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 (1) 긴급회의 (2월 17일(목) 오후 2시, 온라인)
 - 참석 : 손빛나리 활동가
 - 안건 : 2022년 관리비 인상의 건 외
 기존-기본관리비 407,000, 세콤 13,200원, 청소관리비 11,000원
 인상-기본관리비 448,800, 세콤, 청소관리비 동일
 - 비고 :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정수기관리비, 복합기 등 별도
- (2) 1차(8월 30일 - 온라인)
- (3) 2차(12월 29일 - 서면으로 대체)
- (4) 여성미래센터 입주자단체 공동체 모임(12월 1일)
- 8) 기타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여성운동상 심사 : 2월 22일(화), 온라인(비고 : 여성운동상 상금 후원(김정수, 10만원)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참석 : 3월 5일(토) 오후 2시, 보신각터
참석 : 한정숙, 김정수, 여혜숙, 이권명희
비고 : 한정숙 이사장과 우크라이나 유학생(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보고

2. 6.15 남측위 및 여성본부

1) 6.15 남측위 활동

- (1) 6.15 남측위 한반도 평화 어드보커시 활동 참석
 - 3월 3일(목) 오전 11시, 달개비 :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 - 평화와 협력이 유일한 길입니다! -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 김정수 상임대표 참석 및 발언
 - 4.27 판문점선언 기념 기자회견 참석 및 발언 외

(2) 6.15 국제연대위원회 모임

- 2월 17일(목) 12:00
- 3월 11일(금) 18:00

(3) 기타: 5월 3일(화) 오후 이창복 의장님 출판기념회 참석 및 축하발언

2) 6.15 여성본부 활동

- (1) 여성본부 공동대표/집행위원회 2021년 2차 회의
 - 일시: 2021년 12월 30일(목) 오후 2시
 -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701호, 줌
 - 참석: 공동대표단: 최소영(상임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정수(공동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한미경(공동대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안미정(집행위원장,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유정은(한국교회여성연합회 부장), 황보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장), 박혜인(전국여성연대)

(2) 6.15 여성본부 북측여성분과위에 FAX 전달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성원 여러분께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에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여러분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남북/북남 간의 경색된 국면임에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여성들의 뜨거운 가슴은 여전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3.8 세계여성의 날(3.8 세계국제부녀절)을 맞아 북측에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2022년에 각계각층의 남북/북남여성들이 만나 여성의 힘으로 평화와 살림, 자주적 통일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는대로 남북/북남여성들이 실무회의로 모일 것을 제안한 바, 북측 여성분과위원회 성원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고대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계속 평화통일을 위해 힘 모아 나아갑시다.

(3) 2022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집행위원회

① 1차 회의

- 일시: 2022년 3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110호
- 참석: 최소영 상임대표, 김정수 공동대표, 한미경 공동대표/ 안미정 집행위원장, 황보현 집행위원, 유정은 집행위원
- 안건: 2022년 운영위원회(총회) 준비, 회원단체 확인 및 회비납부 관련 논의, 사업 및 회계 감사 준비, 2022년 사업계획안 논의 등

② 2차 회의

- 일시: 2022년 3월 25일(금) 오후 2시
- 장소: 온라인
- 참석: 최소영 상임대표, 김정수 공동대표, 한미경 공동대표/ 안미정 집행위원장, 황보현 집행위원, 유정은 집행위원 (총 6명)
- 안건: 참가단체 확인, 2022 운영위원회(총회) 점검 (특별히, (가)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대책위원회 조직과 관련해서는 6.15여성본부 내 참가단체들이 미리 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함). 회비 협의 등

(4) 6.15 남측위 여성본부 2022년 1차 운영위원회(2022년 정기 총회)

- 일시 : 2022년 3월 29일(금) 오후 2시~

- 장소 : 6.15 남측위 회의실
- 참석 : 본회 김정수 상임대표
- 안건 : 2021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승인,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2022년 평화통일운동 정세와 전망 논의 등

(5) 6.15 남측위 여성본부 주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참가 및 사회(김정수 상임대표)

- 일시: 2022년 6월 15일(수) 12:00
- 장소: 구 일본대사관앞, 평화로 소녀의 상 부근
- 비고: 6월 15일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기념하여 6.15 남측위 여성본부에서 수요시위를 주관하게 됨. 동시에 매년 6월 19일은 “세계전 시성폭력 추방의 날”로 제정되어 정의연에서 주최하는 수요시위를 통해 이를 기념하고 전시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 하고 있음

(6)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 ①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성 선언문(일시: 2022년 3월 17일)
- ②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운동단체 기자회견문’
 - 일시: 2022년 5월 19일
 - 제목: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
 - 참여: 6.15 여성본부와 63개 여성단체, 개인들(87명)
- ③ 제154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일시: 2022년 6월 15일(수) 정오 12시

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 대의원 총회

- 일시와 장소 : 2월 25일(금)오전 11시, 온라인
- 참석 : 김정수
- 비고 : 평화여성회 김성은 이사, 민화협 공동의장으로 참여

2) 민화협 여성위원회

- 4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민화협 회의실(마포)

3) 민화협,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교류 지원 및 추진 일본 방문

- 일시, 장소: 2022년 11월 24일(목)-25일(금), 동경

- 금강산가극단 관람 및 동경 민화협과의 간담회
- 참석: 여혜숙

4) 여성위원회 평화기행

- 일시, 장소: 2022년 11월 26일(토), 강화 평화전망대, 교동거리
- 참석: 김다미 외 9명

5) 민화협 후원의 밤

- 일시, 장소: 2022년 12월 13일(화) 17:00,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
- 참석: 여혜숙, 김정아

4. 시민평화포럼

1) 시민평화포럼 2022 제13차 총회

- 일시와 장소 : 2022년 2월 21일(월)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 비고 : 김정수 대표, 공동대표 중 1인으로 선출됨
여혜숙 공동대표는 시민평화포럼 감사로 참여

2) 운영위원회(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 1차: 3월 23일(목) 오후
- 2차: 4월 7일(목) 오후
- 3차: 6월 14일(화) 오후
- 4차: 10월 20일(목) 오후

3) 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7월 13일(수) 오후, 창비빌딩 회의실)

5. 정의기억연대

1) 수요집회 : 2월 2일(수) 정오, 평화로 소녀상 옆, 김정수 참석

2) 정의연 네트워크 활동

- (1) 수요집회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연명

- (2)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 일시와 장소 : 5월 5일(목) 11:00~,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마당(마포)

(3) 윤석열 정부 한일관계 관련 회의(온라인 회의)

- 일시 : 2022년 5월 23일
- 내용 : 현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 현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수요시위에 대한 정부 입장과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등 입장 마련의 필요성 제기, 향후 워크숍을 통해 통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참석 : 김정수

(4) 국회소통관 정의연 기자회견 참석

- 일시: 11월 10일(목) 오전

(5) 2022년 7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존치 결정을 염원하는 세계시민들의 요청서 연명: “우리는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압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테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 존치 결정을 요청합니다!”

6. 통일교육협의회

1-1) 총회

- 일시, 장소: 2022년 2월 15일 (화) 11:00-12:00, 온라인 (zoom)
- 참석: 여혜숙
- 안건: 2021년 사업·결산보고 승인, 2022년 사업·결산보고 승인

1-2) 임시총회

- 2022년 5월 17일(화), 11:00-11:30, 온라인 (zoom)
- 참석: 여혜숙
- 안건: 이사 총원 건

2) 여성분과위원회

- 2022년 3월 17일(목) 11:00, 통교협사무실
- 안건: 2022년 여성분과위원회 사업검토

3) 2022년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단체 지원사업 신청

➔ 본회 사업보고 참조

4) 여성분과위원회 평화기행

- 일시, 장소: 2022년 9월 28일(수), 파주기행

- 참석: 김정옥 회원 외 4인

5) 회원단체 간담회

- 일시, 장소: 2022년 11월 15일 (화), 통일교육원
- 참석: 여혜숙, 손빛나리

II. 국내 사안별 연대

1.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Korea Peace Appeal)

- 1) 20대 대통령 인수위에 입장문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근
 - 참석 및 발언 : 김정수

- 2) 집행위원회 참석 등

2.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참석: 여혜숙)

- 1) 상임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2022년 3월 25일(금) 14:00-16:00, 흥사단 3층강당
 - 안건: 2021년 사업보고, 2022년 사업계획 검토, 운영위원회 날짜
- 2) 운영위원회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2022년 4월 18일(월) 14:00-16:20, 흥사단3층 강당
 - 안건: 2021년 사업보고, 2022년 사업계획 검토, 정관개정안
- 3) 평화통일 국민참여 사회적대화 퍼실리테이터 (여혜숙, 이덕경, 박인혜)
8월, 9월 (서울, 수원, 춘천, 부산, 대전, 파주)
- 4) 2022 통일·대북 정책 분야 전문가 대화
 - 일시: 2022년 8월 17일(수) 12:00-18:00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 회의장
- 5) 평화통일 국민참여 사회적 대화 모니터링 : 춘천, 대전
- 6)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2022 사회적대화 심포지움

- 일시: 2022년 11월 3일(목) 9:00-18:00
- 2부 토론: 여혜숙

3.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 한국참여 여성단체 네트워크

- 구성: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YWCA연합회)

1) 운영위원회

- (1) 21차 운영위- 8월 2일(화) 오전,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2) 22차 운영위- 10월 4일(화) 오후, 신도림 시네큐 회의실

2) 다큐멘터리 Crossings 상영 및 관람

- 10월 4일(화) 오후, 신도림 시네큐(한정숙, 김성은, 정현백, 김정수 회원 등)
- 12월 15일(금) 오후, 신도림 시네큐(김성은, 여혜숙 회원 등)
- 임진각 누리마루공원, 철원국경선평화학교 상영 시 김성은 회원 등 관람

3) 2022 Nobel Peace Summit(12월 12~13일, 평창) : 한정숙 이사장,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참석

4) 기타 - March 3, 2022 Honorable Wendy Sherman Deputy Secretary of State United States of America & Madame Choe Son-hui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ar Honorable Wendy Sherman and Madame Choe Son-hui, 편지에 평화여성회 연명

3. 효순미선 20주기 추모제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 (2022년 6월 13일)

B. 국제 연대

1.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PAC(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위원회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활동

- 평화여성회는 GPPAC NEA 서울 포컬포인트로 참여 중

1)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하여 여성평화연대 메시지 전달



2) GPPAC NEA Monthly On-Line Call

(1) April 20, Seoul/Tokyo 2 pm

- Agenda : The results of the recent Republic of Korea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ir implications for peacebuilding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more broadly, as part of the Ulaanbaatar Process. SK Presidential Election: Result and Impact 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tc.
- Participants from WMP : 김정수

(2) July 20 Seoul/Tokyo 11 am

(3) October 31

3) GPPAC NEA 활동가 소개 - 온라인 인터뷰 진행

- 27 July 2022 News An interview: "Every voice matter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Jeongsoo on Korean women's role in making peace possible”

- <https://gppac.net/news/every-voice-matters-peace-korean-peninsula-kim-jeongsoo-korean-womens-role-making-peace?fbclid=IwAR23fwdvqp3J0mJMJ25AX4IcZf0Mof8jYLPDbRfeVWy3AbQAAkjK03NEY20>

4) 2022 GPPAC UBP Publication 원고 제출

- 발간물 제목 :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The New Normal*
- 발간일 : 2022년 9월 12일
- 김정수 원고 : "The Result of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Impacts and Challenges to South Korean Women's Peace Movement“

5) 2022 GPPAC NEA UBP 연례회의 참석

- 일시 : 2022년 9월 12~15일,
- 장소 : 몽골 울란바타르 테레지 국립공원 내 리조트

2022 GPPAC NEA(울란바타르 프로세스) 회의(몽골, 9월 12~15일) 참가 보고

평화여성회는 GPPAC(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무장갈등 예방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위원회에 초기부터 참가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GPPAC NEA 연례회의가 2019년 8월 모인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9월 12~15일 몽골의 Terelj National Park (울란바타르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서울(한국)에서는 평화여성회(김정수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참여연대, 피스모모 활동가들이 참석했고, 공동주최한 몽골의 Blue Banner NGO, Peace Boat(도쿄, GPPAC NEA 사무국),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베이징, 홍콩, 교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타이페이, 마닐라의 시민사회 평화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2015년부터 지팩 동북아 회의는 '울란바타르 프로세스'(UBP)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UBP의 주요 아젠다는 (1) 한반도 평화 구축, (2) 동북아비핵지대화 실현입니다. UBP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남과 북의 인사들이 다자적 협력의 틀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조선평화옹호국가민족위원회'(Korea National Peace Committee:KNPC) 인사들이 참석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긴 편지를 보내 모두 읽고 북측 인사들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주요 행사로 몽골이 1992년 이래 단일 국가로서 비핵국가(비핵지대)를 유엔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P5)을 향해 선언하고, 지난 30년 동안 '비핵 지위'(Nuclear Free Status) 국가로서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축하하는 행사도 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의 7배 되는 영토에 인구는 300만 정도인데, 전체 군인 수는 1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전 시기 구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그리고 1990년대 초 민주화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핵 무력 국가 사이에서 중립적 비핵국가로서 정치적-외교적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몽골이 안전보장을 "군사적" 차원에서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확보했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회의 특징 중 하나는 지난 번 회의 까지는 주로 베이징(홍콩)에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타이페이(타이완)에서 참석한 점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그 한 가운데 중국-대만 관계가 이른바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베이징-타이페이에서 온 참석자들의 발언에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이른바 국익을 넘어서 동북아 지역 시민들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지팩 동북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지팩 글로벌 본부의 활동가가 마침 우크라이나에서 온 분이어서 우크라이나 여성의 관점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혹은 특별 군사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의제 차원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카렌 타나다 선생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분은 GPPAC SEA(동남아위원회)로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무엇보다 필리핀 평화협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필리핀의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초안작성에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지역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어떻게 기울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팩 동북아위원회는 이번에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The New Normal"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평화여성회의 김정수 대표도 "The Result of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Impacts and Challenges to South Korean Women's Peace Movement"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회의 부대행사로,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것으로, 몽골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와 사막화 극복을 위해 시작한 "10억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나무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매우 심각하고 현재 농사가 가능한 토지가 국토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진행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담론으로 논의된 것이 이른바 전통적 안보(국가안보, 군사안보) 담론과 비전통안보(인간안보, 공동안보)의 결합에 대한 논의 - 즉 안보개념의 재구성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이른바 전쟁을 "억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 동북아 시민사회, 평화운동의 역

할은 "억지"가 아니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젊은 평화교육활동가들이 회의 기간 내내 도전적 문제제기,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 참여적이고 성찰적인 마무리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있고 또 선배 활동가로 매우 "뿌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오랫동안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 피스보트의 메리 조이스(GPPAC NEA 사무국), 몽골 블루배너의 활동가들, 그리고 영자이한 대표님(전 유엔주재 몽골 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6) 2022 December GPPAC NEA UBP Advocacy Visit 참여

- 김정수 상임대표

개요

- Dates: December 5-16
- Places: Washington DC, New York City, The Hague, and Brussels
- Participants: Blue Banner, Peace Boat, PSPD, Women Making Peace + GPPAC Global Secretariat
- Presentation of UBP, sharing of success stories and challenges, and engagement with relevant actor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to advocate the need for dialogue, a peace-based and regional approach, and discuss further collaboration amongst relevant stakeholders.
- Timed to also highlight the 30th anniversary of Mongolia's single state nuclear-weapon-free zone, and the upcoming anniversary in 2023 of 70 years since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1) Washington DC

- Participation in the 202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ace &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organised by the Korean Sharing Movement and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December 5, Washington DC)
- Meeting with GPPAC North America Regional Secretariat PartnersGlobal
- Bilateral meetings with key think tanks working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US Institute for Peac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 Programme at the Embassy of Mongolia



(2) New York City

- Public event on the regional approach to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 Meetings with UN Agencies: ○UN Department of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UNDPP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UNODA),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and more
- Bilateral meetings with Permanent Missions to the United Nations (Mongolia, Ireland)
- UN Advocacy training with GPPAC UN Liaison



(3) Brussels(Belgium)

- Meeting with the EU EEAS(European External Affairs Service) / EC
- Roundtable with the EPLO(European Peacebuilding Liaison Office) on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 Programme at the Embassy of Mongolia



(4) The Hague (The Netherlands)

- Visit to the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Public event at Leiden University College The Hague

- Bilateral meeting with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 Field visits to Peace Palace, Yi Jun Peace Museum
- Training for project coordinators (finance, monitoring and evaluation)
- Exchange with GPPAC Global Secretariat and colleagues



(5) 요점

① 전체적 인상과 배운 것

- Like a journey! Very challenging and interesting, learning experience for us
- Useful as first time for direct exchange with people from outside of NEA
- Internal exchange and learning: more about each other's views, perspectives
- Learned a lot through the questions posed to us - how others view the issues and how to prepare to respond
- Encourage us to recognise how valuable the UBP space is!
- (as validated by PartnersGlobal and response of others we met)
- Importance of having physical materials to share: thanks to Sooyoung / Korea Peace Appeal!
- UBP itself as confidence building process
- Conversations during visits provide hope for peace in our region
- Returned home very impressed and energised!

② 정책과 주창(홍보) 활동

- "Local initiative, global impact" - what we want to showcase, were able to achieve through these 2 weeks
- Opportunity to share alternative approaches, concrete steps for confidence building
- "NK Fatigue" in DC because of no movement, lack of will in US around the issue
- NK not priority. Important to share voices from Korea/NEA showing that this is not just something faraway that does not impact any lives
- Everyone asking: how do we get back to talks?
- Research shared by Frank Aum, USIP: unilateral conciliatory gesture from more powerful party yields important results
- Evidence-based advocacy points are very powerful
- Close cooperation with Mongolian embassies demonstrated to MN Government that UBP is not just Blue Banner initiative but much broader, serious regional initiative working on concrete issues
- Emphasise how we are able to maintain dialogue with DPRK, through UBP

③ 유럽에서의 주창활동에 대하여

- From NEA usually look to US / UN for public diplomacy, but recognize potential of EU both on official and people-to-people level as opportunity to develop more dialogue and cooperation.
- Learned through visit how 27 countries work together for EU foreign policy - very impressive.
- Role of small countries eg Netherlands/Belgium in creating environment for dialogue and peace: Mongolia as small country in NEA can learn from this contribution, model for potential future mechanisms
- Important to learn concretely re regional mechanism for peace and cooperation (EU) since NEA lacks - especially how supports not just within Europe but in other regions

2. 기타

1) WILPF 인터뷰 : 2022년 3월 13일(일) 오전 10시, 온라인

- 내용 : 20대 대선 결과가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미치는 영향, 향후 과제 등
- 인터뷰 참석 : 김정수

【6】 부설기구

I. 갈등해결센터

<p>【2022년 사업계획】</p> <p>1.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장 : 여혜숙 , 부소장 : 박인혜- 운영위원회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김정아, 손서정, 손희정- 기획자문위원 : 김희은, 이권명희- 전문위원 : 이덕경, 조영희- 평화통일교육팀 :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이권명희, 이현숙, 이향림, 여혜숙, 최영애, 신난희, 이하영- 교육매뉴얼 연구팀 : 박인혜(팀장), 김정아, 김다미,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이덕경 <p>2. 사업방향과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결적 관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을 연구, 발전시킨다.- 조직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다양한 역량발휘 및 활동의 기회를 넓히도록 한다.- 센터 회원들과의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소속감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평화·통일교육과 갈등해결교육의 통합적 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우리사회 내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p>3. 세부사업 (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별, 대상별, 계층별 이해를 반영한 교육 매뉴얼을 개발한다.- 소모임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교육과 사업내용을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평화·통일 역량 확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실천적이고 대중적인 평화·통일·갈등해결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평화, 갈등해결 교육을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고 진행한다.

1. 조직 구성

- 소장 : 여혜숙, 부소장: 박인혜
- 운영위원 : 김지선, 김다미, 박인혜, 여혜숙, 손희정, 손서정 (6명)
- 전문위원 : 이덕경, 김정아
- 평화통일교육 연구팀 :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신난희, 여혜숙, 이덕경, 이권명희, 이향림, 이현숙, 최영애, 이하영 (15명)

- 교육매뉴얼 연구팀: 박인혜 (팀장), 김다미, 김정아, 손서정, 손희정, 이덕경, 여혜숙 (7명)

2. 회의

1) 운영위원회 (격월 진행)

- (1) 1차 : 2022년 2월 14일(월) 20:30~21:40 (온라인)
 - 참석: 여혜숙, 김정아, 김지선,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 내용: 1월 사업보고, 2·3월 사업계획
- (2) 2차 : 2022년 4월 15일(금) 10:00~11:00 (온라인)
 - 참석: 여혜숙, 김지선, 김정아,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 내용: 2·3월 사업보고, 25주년 행사 아이디어 모으기
- (3) 3차 : 2022년 6월 21일(화), 29일(수) 10:00 (온라인)
 - 참석: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손서정
 - 내용: 4·5월 사업보고, 7·8월 사업계획, 25주년 행사 논의, 갈등해결센터 전망찾기
- (4) 4차 : 2022년 8월 24일(수) 20:00~20:45 (온라인)
 - 참석: 여혜숙, 김다미, 손서정, 손희정
 - 내용: 7·8월 사업보고, 9·10월 사업계획
- (5) 5차 : 2022년 11월 28일(월) 17:30~ 19:30, 서울역 서가앤쿵
 - 참석: 여혜숙, 김다미,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 내용: 2022년 갈등해결센터 사업 평가, 2023년 갈등해결센터 사업 계획

2) 평화통일교육팀 - 카톡방을 통한 정보 공유

3) 교육매뉴얼 연구팀 - 진행되지 못함

3. 설렁설렁 모임 (온라인)

o 준비팀: 손희정(모임장), 김다미, 여혜숙

- 1) 1차 모임: 3월 31일(목) 20:00~21:30
 - 참석: 김다미(진행), 손희정, 여혜숙, 이하영, 이향림, 김지혜
 - 내용: 코로나와 나
- 2) 2차 모임: 5월 19일(목) 20:00~21:30
 - 참석: 이향림(진행), 손희정, 여혜숙, 이하영, 손서정, 김지혜
 - 내용: 몸챙김, 마음챙김 대화 I
- 3) 3차 모임: 7월 29일(금) 20:00~21:00
 - 참석: 이향림(진행), 손희정, 여혜숙
 - 내용: 몸챙김, 마음챙김 대화 II

- 4) 4차 모임: 9월 2일(금) 20:00~21:30
- 참석: 김다미(진행), 손희정, 이하영, 여혜숙
 - 내용: '나의 죽음은 내가 결정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4. 대화모임 진행(Facilitation)

- 1) 평화여성회 대화모임 “대선 한 달 후, 지금 어떠신가요?”
- 일시: 4월 9일(토) 20:00-22:00, 온라인(zoom)
 - 참석: 여혜숙, 이덕경 (진행), 김성은, 김정수, 손서정, 이하영, 이에덕, 박인혜, 이권명희
 - 질문:
 1. 어디에 계신 누구인가요?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드는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인가요?
 2. 대선 과정과 결과가 나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3. 대선 과정을 통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4. 대화모임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또는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2) 2022년 평화통일사회적대화 (8월~9월)
- 전문가 사회적대화 : 여혜숙
 - 국민참여 사회적대화 퍼실리테이터 : 여혜숙, 이덕경, 박인혜
 -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2022 사회적대화 심포지움> 토론: 여혜숙
- 3) 2022 여성평화통일기행(8/26~27, 인제 생명평화동산)
- 기획 및 진행: 여혜숙, 박인혜, 이덕경, 김다미, 이권명희
 - (통교협 프로젝트 진행 보고 참조)

5. 회원 번개모임

- 1) 3월 30일(수) 12:30, 시청 근처
- 참석: 김희은, 이덕경, 손희정, 여혜숙
- 2) 10월 3일(월) 11:00, 덕수궁 근처
- 참석: 김다미, 김정수, 김희은, 박인혜, 손희정, 이덕경, 여혜숙

6. 외부 교육

- 1) 강화 덕신고등학교 '의사소통 역량강화 캠프'
- 일시: 8월 16일(화), 17일(수) 18:00-21:30
 - 진행: 여혜숙, 이덕경

7. 평가

- <교육매뉴얼 연구팀>은 자체 모임은 갖지 못했으나 통교협 프로젝트 “위기와 전환의 시대, 여성의 눈으로 평화와 통일을 다시 들여다 본다”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참여하였다. 2021년부터 ‘평화적 공감대화’의 연습모임으로 진행된 <설렁설렁 모임>은 4번의 모임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비회원까지 참여를 열어놓았으나 회원 중심으로 모임을 하게 되어서 갈등해결센터 회원모임으로 전환하기로 하다.
- <사회적 대화>방식의 대화모임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내부적으로는 ‘대선 한 달 후’와 ‘2020 평화통일기행’에서 대화모임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퍼실리테이션 역량이 강화되었고, 교육 현장에서도 시도한 결과 긍정적 성과를 이루었다. <평화통일 국민참여 사회적대화> 모둠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였고, <전문가포럼>에도 참여하였다. 앞으로도 사회적 사건에 대한 사안별 대화모임이 추진하기로 하다.
- 회원 개인의 사정변화로 인해 정기적 모임을 갖지 못했고, 2023년에는 현실적인 팀 구성과 모임이 필요해 보인다.

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총평

첫째, 가장 큰 성과로는 연구원 이사회와 연구위원들간의 소통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여성과 평화 포럼> 과정에 이사들의 참석이 꾸준히 있었고, 연구 주제 선정이나 진행 과정에도 이사들의 제안과 조언이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내실성을 차츰 키워나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원의 규모가 제법 커졌다. 연구원 이사 14인, 연구위원 18인(중복 2명)으로 구성되어 형식면에서는 어떠한 외부 연구원에 비해서도 우수한 역량이 모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2022년 연구원은 『여성과 평화』 제7호(1월)를 발간했고, <여성과 평화 포럼> 4회, 연구원 내부 워크숍 2회 등을 개최하였다. 성인지적 감수성과 여성평화운동 문제의식을 키우고, 연구원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학술 활동에도 기여했다. 특히 <여성과 평화 포럼>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원들이나 관심있는 외부인들이 참여하여 우크라이나전쟁 문제를 포함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인식과 현실을 성찰하고 장을 열었다.

넷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연구원은 자원성에 기초하는 연구원이라는 조건에서 재능기부와 헌신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은 특성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18인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자 바쁜 조건에서 시간과 여력을 내어 운영을 하는 상황에 상호 상승 작용할 힘이 부족했다는 점도 있다. 또한 워드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대면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구성

이사회: 한정숙 이사장, 강명숙(배재대 교수), 김귀옥(연구원 원장, 한성대 교수), 김동환(한성대 교수), 김명환(서울대 교수), 김성경(연구원 부원장,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김성보(연세대 교수), 박명림(연세대 교수), 원재연(연세대 교수), 정경훈(아주대 교수), 정진아(건국대 교수),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정아(통일연구원 부원장), 홍승희(대영고 교사) (14인)

연구위원: 김귀옥(원장, 한성대 교수), 김성경(부원장,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강인화(서울대 연구교수), 김수지(릿거스 대학 부교수), 김정아(‘기억과 기록’ 대표), 김태경(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도지인(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손서정(가톨릭대 대학원 박사과정), 윤보영(동국대 강사), 윤여령(충북대 강사), 이애덕(흑석초 교사), 이은정(KBS뉴스 전문위원, 의학박사), 이현희(민주평통

전문위원), 전수미(변호사, 송실대), 정용숙(춘천교대 교수), 정은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승주(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연구위원) (18인)

연구원 간사: 김태원

3) 2022년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주요 활동

(1) 연구위원 워크숍과 회의

- ① 6차 연구위원 워크숍(2022.3.10)
 - 워크숍 발표 “2022년 북한의 전망과 한반도 평화의 길”
발표자: 정은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회의 “2022년 연구원 행사 계획 및 논의” 진행
- ② 연구위원 회의(2022.6.4), 연구위원 상견례 및 하반기 활동 논의
- ③ 연구원 소위원회 회의(2022.11.14) 2023년 사업 계획 논의
- ④ 7차 연구위원 워크숍(2022. 11. 25)
 - 워크숍 발표 “독일 통일과 여성: 젠더 관점에서 조망한 독일의 분단과 재통일” 발표자: 한정숙(wmp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 회의. 연구원 내년 계획 논의 및 수립

(2) 2022년 여성과 평화 포럼

<p>① 제6회 여성과 평화 포럼(2022.4.21.)</p> <p>주제 - “우크라이나 사태의 기원과 향후 전망”</p> <p>발표 - 정재원/국민대</p> <p>사회 - 한정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서울대학교</p> <p>토론 - 서재정/국제기독교대학교(도쿄)</p> <p>배현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WCC중앙·실행위원</p> <p>손서정/한국여성평화연구원, 가톨릭대학교</p>	
<p>② 제7회 여성과 평화 포럼(2022.6.29),</p> <p>주제: “다른 정치는 가능한가? 대선과 지선 평가와 여성정치세력화”</p> <p>발표 -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대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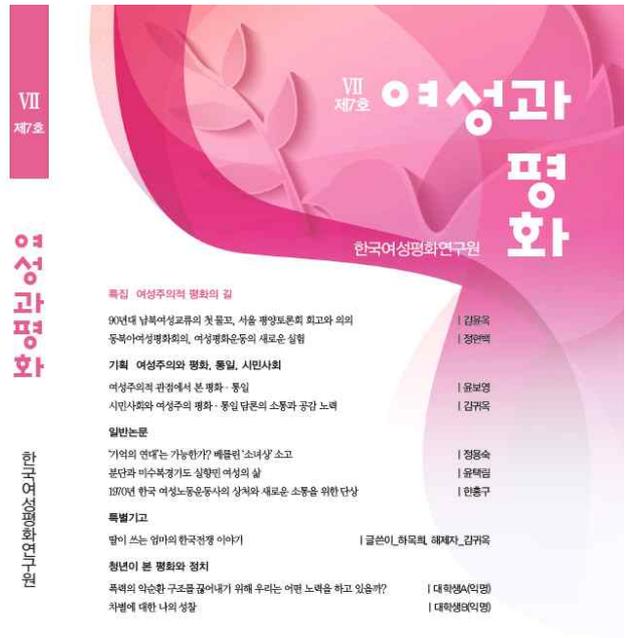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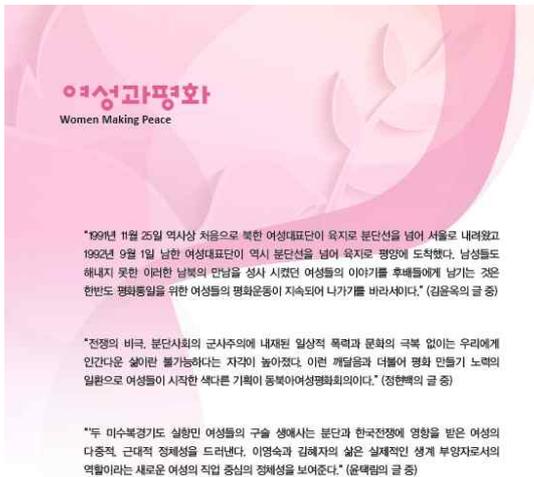
<p>사회 - 윤보영/동국대학교</p> <p>토론 - 남은주/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박지유/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문아영/피스모모 전수미/변호사, 숭실대학교</p>	
<p>③ 제8회 여성과 평화 포럼(2022.8.23),</p> <p>주제 : “한반도 평화의 비전과 경로:철학과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위하여”</p> <p>발표 -박명림/연세대학교</p> <p>사회 -조정아/통일연구원</p> <p>토론- 이태호/참여연대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차승주/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윤여령/충북대학교</p>	
<p>④ 제9회 여성과 평화 포럼(2022. 12.19.월,오후 5시)</p> <p>주제: “사회적 재난과 여성:팬데믹과기후위기를 중심으로”</p> <p>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소통홀(대면 진행)</p> <p>발표- 이은정연구위원</p> <p>사회- 정현백/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p> <p>토론- 하정옥/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권명희/가치교육연구소-숨 소장 김태경/국회미래연구원</p> <p>-당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송년회 진행</p>	

(3) 『여성과 평화』 7호 발간
- 발간일 2022. 1.

- 출판사: 평화여성
- 인쇄 및 배본: 도서출판 선인(
 - ※ 선인-DBpia에서 『여성과 평화』 7호 이용 가능
- 2022년 『여성과 평화』 7호 출판지원금

번호	이름	금액
1	김귀옥	500,000
2	김성은	500,000
3	김윤옥	1,000,000
4	여혜숙	500,000
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000,000
합 계		3,500,000

- 『여성과 평화』 7호 표지



2022년 결산보고

2022년도 결산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본회 결산

계정과목	수입부				지출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예산	결산	달성율				예산	결산	달성율		
회비수입	36,000,000	30,218,240	83.94%		30,218,240	사업비	18,800,000	20,192,960	107.68%	9,000,000	29,192,960
회원	25,000,000	21,218,240	84.87%		21,218,240	회의비	400,000	585,600	146.40%		535,600
이사	11,000,000	9,000,000	81.82%		9,000,000	평화통일사업	5,000,000	2,276,190	45.52%		2,276,190
후원금	32,400,000	39,011,111	120.40%		39,011,111	재정사업	5,000,000	9,481,170	189.62%		9,481,170
개인	15,000,000	10,300,000	68.67%		10,300,000	연대사업비	3,000,000	3,000,000	100.00%		3,000,000
재정모금	15,000,000	26,311,111	175.41%		26,311,111	출판지원금	3,000,000	2,500,000	83.33%		2,500,000
부설기관후원	2,400,000	2,400,000	100.00%		2,400,000	부설기구 교부금	2,400,000	2,400,000	100.00%		2,400,000
참가수입	-	-			-	갈등해결센터	1,200,000	1,200,000	100.00%		1,200,000
자료제공	200,000	-	0.00%		-	여성평화연구원	1,200,000	1,200,000	100.00%		1,200,000
기타수입	1,127,351	864,158	76.65%		864,158	인건비	29,640,000	29,640,000	100.00%		29,640,000
차입금	-	-			-	업무추진비	3,600,000	3,600,000	100.00%		3,600,000
						인건비	26,040,000	26,040,000	100.00%		26,040,000
						운영비	17,050,000	15,135,573	88.48%		15,135,573
사업후원 (통교협)				9,000,000	9,000,000	관리비	7,500,000	7,743,459	103.25%		7,743,459
						복리후생비	4,000,000	3,083,025	77.08%		3,133,025
						사무비	4,000,000	2,977,616	74.44%		2,977,616
						통신비	850,000	706,580	83.13%		706,580
						기타지출	700,000	574,893	82.13%		574,893
						미지급금	500,000	500,000	100.00%		500,000
						차입금	-	-			-
						연대사업비	500,000	500,000	100.00%		500,000
						적립금	2,160,000	2,160,000	100.00%		2,160,000
						퇴직적립금	2,160,000	2,160,000	100.00%		2,160,000
						예비비	3,850,000	-	0.00%		-
소계	69,727,351	70,093,509	100.53%	9,000,000	79,093,509	소계	72,000,000	67,628,533	93.93%	9,000,000	76,628,533
전년이월금	2,272,649	2,272,649			2,272,649	차년이월금		4,737,625			4,737,625
총계	72,000,000	72,366,158		9,000,000	81,366,158	총계	72,000,000	72,366,158		9,000,000	81,366,158

2. 갈등해결센터 결산

계정과목	수입부					지출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예산	결산	달성율				예산	결산	달성율		
전입금	1,200,000	1,200,000	100%		1,200,000	사업비	1,300,000	389,400	29.95%		389,400
후원금	4,400,000	1,600,000	36.36%		1,600,000	회의비	300,000	139,400	46.47%		139,400
참가수입	50,000	0	0.00%		0	강사비	200,000	250,000	125.00%		250,000
자료제공	50,000	0	0.00%		0	프로젝트사업비	800,000	0	0.00%		0
기타수입	7,620	1,281	16.81%		1,281	운영비	6,100,000	2,601,500	42.65%		2,601,500
						인건비	5,700,000	2,400,000	42.11%		2,400,000
						사무관리비	50,000	0	0.00%		0
						복리후생비	300,000	200,000	66.67%		200,000
						기타지출	50,000	1,500	3.00%		1,500
						예비비	300,000	0	0.00%		0
소계	5,707,620	2,801,281	49.08%		2,801,281	소계	7,700,000	2,990,900	38.84%		2,990,900
전년이월금	1,992,380	1,992,380			1,992,380	차년이월금		1,802,761			1,802,761
총계	7,700,000	4,793,661			4,793,661	총계	7,700,000	4,793,661			4,793,661

3.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결산

계정과목	수입부				지출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예산	결산	달성율				예산	결산	달성율		
본회교부금	1,200,000	1,200,000	100.00%		1,200,000	사업비	6,100,000	3,564,000	58.43%		3,564,000
이사회비	7,000,000	6,500,000	92.86%		6,500,000	회의비	100,000	264,000	264.00%		264,000
참가수입	150,000	110,000	73.33%		110,000	강사비	500,000	200,000	40.00%		200,000
자료제공	100,000	0	0.00%		0	<여성과 평화> 출판비	4,000,000	3,100,000	77.50%		3,100,000
기타수입	117,635	3,118	2.65%		3,118	프로젝트 사업비	1,500,000	0	0.00%		0
후원금	1,000,000	0	0.00%		0	운영비	7,100,000	6,609,500	93.09%		6,609,500
출판지원금	3,000,000	2,500,000	83.33%		2,500,000	인건비	6,600,000	6,600,000	100.00%		6,600,000
						사무비	100,000	0	0.00%		0
						복리후생비	300,000	0	0.00%		0
						기타지출	100,000	9,500	9.50%		9,500
						기관 후원비	100,000	0	0.00%		0
						차입금반환	0	0			0
						예비비	600,000	0	0.00%		0
소계	12,567,635	10,313,118	82.06%	0	10,313,118	소계	13,900,000	10,173,500	73.19%		10,173,500
전년이월금	2,932,365	2,932,365	100.00%		2,932,365	차년이월금	1,600,000	3,071,983	192.00%		3,071,983
총계	15,500,000	13,245,483	85.45%	0	13,245,483	총계	15,500,000	13,245,483	85.45%		13,245,483

비고 :

2022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부설기관 포함)의 재정 현황

1. 일반회계

1-1. 일반회계

수 입		지 출	
전년이월	7,197,394		
본 회	2,272,649		
갈등해결센터	1,992,38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932,365		
2022년 수입	83,207,908	2022년 지출	80,792,933
본 회	70,093,509	본 회	67,628,533
갈등해결센터	2,801,281	갈등해결센터	2,990,90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0,313,118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0,173,500
		차년이월	9,612,369
		본 회	4,737,625
		갈등해결센터	1,802,761
		한국여성평화연구원	3,071,983
합 계	90,405,302	합 계	90,405,302

수 입		지 출	
2022년 수입	90,405,302	2022년 지출	90,405,302
본 회	72,366,158	본 회	72,366,158
갈등해결센터	4,793,661	갈등해결센터	4,793,661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3,245,483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3,245,483
합 계	90,405,302	합 계	90,405,302

1-2. 특별회계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2022년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지원사업 “위기와 전환의 시대, 여성의 눈으로 평화와 통일을 다시 들여다 본다: ‘2022 여성평화통일아카데미’&‘2022여성평화 통일기행”	9,000,000	8,825,760	통일교육협의회
이월금		174,240	- 2022년 지원사업 하반기(7-12월) 원천세액 - 2023년 1월 10일 지출
1건	9,000,000	9,000,000	

2. 기금

2-1. 남북교류기금

내역	수입	지출	잔액	내역
전년이월	77,893		77,893	
2022년 이자	76		76	
합계	77,969	0	77,969	

2-2. 퇴직적립금

내역	수입	지출	잔액	비고
2021년 이월금	1,051,249		1,051,249	
2022년 내역	2,160,000		2,160,000	
2022년 이자	1,973		1,973	
합계	3,213,222	0	3,213,222	

3. 자산 및 부채

3-1. 부동산자산 : 여성미래센터 전세금 55,711,000원

2022 회원회비 현황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번호	이름	금액
1	강경란	60,000	41	문명녀	30,000
2	강미연	120,000	42	문영금	120,000
3	강성천	80,000	43	민정숙	60,000
4	강인화	120,000	44	박경로	240,000
5	강지윤	240,000	45	박난희	120,000
6	고유경	120,000	46	박명림	120,000
7	권희수	120,000	47	박배균	120,000
8	김경미	120,000	48	박병인	120,000
9	김경민	20,000	49	박선옥	120,000
10	김귀옥	120,000	50	박은미	120,000
11	김귀희	120,000	51	박인숙	120,000
12	김다미	120,000	52	박인아	120,000
13	김동환	360,000	53	박인혜	100,000
14	김미경	360,000	54	박정렬	60,000
15	김민화	240,000	55	박지용	120,000
16	김선일	120,000	56	박진경	60,000
17	김선혜	120,000	57	박현선	220,000
18	김성경	360,000	58	박현숙	330,000
19	김숙임	120,000	59	박남희	120,000
20	김아름	40,000	60	백미순	120,000
21	김연수	120,000	61	백영민	120,000
22	김영리	100,000	62	서명숙	240,000
23	김은진	120,000	63	서미숙	120,000
24	김정수	120,000	64	서민순	120,000
25	김정아	120,000	65	서영주	240,000
26	김정옥	120,000	66	손빛나리	120,000
27	김지선	100,000	67	손서정	120,000
28	김지호	110,000	68	손은정	120,000
29	김진환	120,000	69	손희정	120,000
30	김태경	100,000	70	송소희	60,000
31	김현미	40,000	71	송혜련	120,000
32	김현희	120,000	72	신난희	120,000
33	김혜경	120,000	73	신정완	120,000
34	김홍희	50,000	74	신혜진	90,000
35	김화숙	240,000	75	안경호	120,000
36	김희순	70,000	76	안김정애	360,000
37	김희은	120,000	77	안수경	120,000
38	노귀남	120,000	78	안영미	120,000
39	노향란	50,000	79	양덕열	120,000
40	도지인	40,000	80	여혜숙	600,000

81	오미영	70,000	121	전희정	120,000
82	오순애	60,000	122	정경란	120,000
83	오종열	120,000	123	정경훈	120,000
84	오채림	30,000	124	정경희	220,000
85	유시대	60,000	125	정범진	120,000
86	유은주	240,000	126	정용숙	120,000
87	유임하	120,000	127	정원진	120,000
88	유지연	48,240	128	정은미	240,000
89	윤경원	240,000	129	정은아	110,000
90	윤보영	120,000	130	정현기	120,000
91	윤수경	15,000	131	정혜진	120,000
92	윤여령	120,000	132	조구희	600,000
93	윤은주	360,000	133	조윤희	120,000
94	윤혜란	50,000	134	조영미	110,000
95	이경순	120,000	135	조영숙	360,000
96	이권명희	120,000	136	조영순	60,000
97	이금순	120,000	137	조영주	120,000
98	이덕경	120,000	138	조영희	110,000
99	이명화	120,000	139	지혜경	120,000
100	이미숙	10,000	140	차승주	80,000
101	이상임	40,000	141	천정환	90,000
102	이상화	90,000	142	최민정	55,000
103	이소윤	50,000	143	최선희	20,000
104	이애덕	240,000	144	최안진경	60,000
105	이예정	120,000	145	최영숙	60,000
106	이유란	120,000	146	최영애	120,000
107	이윤아	120,000	147	최윤태	110,000
108	이은영	60,000	148	최은순	300,000
109	이은정	300,000	149	최은영	120,000
110	이정은	120,000	150	최형숙	20,000
111	이진옥	60,000	151	한모니까	240,000
112	이충진	120,000	152	한산석	110,000
113	이하영	110,000	153	한옥자	60,000
114	이향림	60,000	154	한옥화	120,000
115	이현숙	120,000	155	한정숙	120,000
116	이현주	60,000	156	함경숙	40,000
117	이현희	240,000	157	함영미	120,000
118	이화진	120,000	158	허영란	120,000
119	전상희	240,000	159	허옥	120,000
120	전수미	120,000	160	홍승희	120,000
			161	황영주	120,000
합 계					21,218,240

2022 이사회비 현황_본회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귀옥	1,000,000
2	김성은	1,000,000
3	김정수	1,000,000
4	김정아	1,000,000
5	김지영	1,000,000
6	배현주	1,000,000
7	여혜숙	1,000,000
8	윤은주	1,000,000
9	한정숙	1,000,000
합 계		9,000,000

2022 후원 현황_본회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성은	1,500,000
2	김윤옥	2,000,000
3	김정수	1,000,000
4	김지영	2,000,000
5	㈜미디어스페이스	1,000,000
6	박수선	200,000
7	신낙균	1,000,000
8	양미강	120,000
9	여혜숙	1,000,000
10	윤여령	100,000
11	조윤희	380,000
합 계		10,300,000

2022 후원 현황_갈등해결센터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여혜숙	500,000
2	박인혜	100,000
3	㈜미디어스페이스	1,000,000
합 계		1,600,000

2022 이사회비 현황
_한국여성평화연구원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귀옥	500,000
2	김명환	500,000
3	김성경	500,000
4	김성보	500,000
5	박명림	500,000
6	원재연	500,000
7	정경훈	500,000
8	정진아	500,000
9	조영주	500,000
10	조정아	500,000
11	한정숙	1,000,000
12	홍승희	500,000
합 계		6,500,000

평화여성회 25주년 '25공감' 후원행사 개인과 단체 후원 현황

<개인>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번호	이름	금액
1	고유경	100,000	34	윤여령	100,000
2	김귀옥	500,000	35	윤은주	500,000
3	김다미	50,000	36	이계환	100,000
4	김명현	50,000	37	이나영	100,000
5	김민문정	100,000	38	이덕경	50,000
6	김성경	100,000	39	이문숙	100,000
7	김성은	300,000	40	이문우	100,000
8	김숙임	100,000	41	이미경	100,000
9	김정수	500,000	42	이숙진	30,000
10	김지영	3,000,000	43	이승환	50,000
11	김지은	50,000	44	이예정	50,000
12	김지호	500,000	45	이정아	50,000
13	김혜원	50,000	46	이현숙	100,000
14	남은주	100,000	47	장원택	50,000
15	노주희	100,000	48	정경란	100,000
16	문명녀	50,000	49	정현경	100,000
17	박수선	300,000	50	정현백	500,000
18	박인혜	100,000	51	조민숙	111,111
19	배현주	100,000	52	조영미	100,000
20	백미순	100,000	53	조영희	200,000
21	변준희	100,000	54	조윤희	100,000
22	손서정	30,000	55	진형탁	50,000
23	손은정	100,000	56	최선희	100,000
24	손희정	100,000	57	최신옥	100,000
25	신선	50,000	58	최은영	30,000
26	신혜진	30,000	59	최인숙	100,000
27	심영희	100,000	60	한산석	50,000
28	안김정애	500,000	61	한옥화	100,000
29	안수경	100,000	62	한정숙	1,000,000
30	양미강	100,000	63	함필주	100,000
31	여혜숙	400,000	64	홍승희	200,000
32	오채림	10,000	65	익명1	100,000
33	유은주	100,000			
합 계					12,591,111

<단체>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615남측위	100,000
2	갈등해결과대화	100,000
3	겨레하나	100,000
4	경기평화교육센터	50,000
5	기독교민회	200,000
6	대전평화여성회	100,000
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00,000
8	비폭력평화물결	100,000
9	수원여성회	100,000
10	어린이어깨동무	100,000
11	전국여성연대	100,000
12	정의기억연대	100,000
13	젠더정치연구소여성연	50,000
14	참여연대	100,000
15	평화삼천	100,000
16	피스모모	100,000
17	한국YWCA	100,000
18	한국여성단체연합	100,000
19	한국여신학자협의회	50,000
20	한반도평화포럼	100,000
합 계		1,950,000

정관개정(안)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 개정안 검토 자료 -

※ 2010년 1월 20일, 제14차 정기(제15차)총회 의결

※ 2023년 2월 2일, 제27차 정기(제28차)총회 의결

- ** 개정 사유: 제14차 정기총회(2010년 1월 20일) 개정 이후 비영리민간단체(법인) 관련 법/규정 조항의 변경 및 조항 간 내용 불합치된 부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함
- ** 개정 후 등기소 변경은 명칭, 주소, 목적, 사업 등 등기상 기재 내용 변경 아닌 경우 하지 않아도 됨, 그 외 변경 사항은 주무관청(통일부) 보고사항임
- **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에 제출한다.	
변경 사유	승인주체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없어서,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정회원의 의무)

- ①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개정 전		개정 후	
8조, 11조, 13조, 15조, 16조 등 조/항에서 (회원의/은~)		8조, 11조, 13조, 15조, 16조 등 조/항에서 (정회원의/은~)	
변경 사유	정회원의 경우 의무, 총회의결 등이 해당되므로 추가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개정 전	개정 후
	본회의 재산은	기 납부한 회비와 기증품은
변경 사유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변경함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정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연장자 순으로	호선하여
변경 사유	권위주의적 내용이므로 변경함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전		개정 후	
회원의 징계에 대한 사항		삭제	
변경 사유	회원의 징계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음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④ ~~총회의 의결은 월격수단으로 할 수 있다. (신설: 코로나19 상황 등 반영하여 신설함)~~

제16조(의결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개정 전		개정 후
이내		내외
변경 사유	이사회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변경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전		추가/ 개정후
		(추가) 인선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후) 이사, 운영위원 포함 5인 내외로 한다.
추가 사유	인선위원회를 어디에서 구성하는지, 구성 주체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추가 인선위원회 숫자에 대한 조항의 설명이 복잡하여 간단하게 기술함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중임	연임
변경 사유	중임과 연임, 법적 개념, 실제 사용하는 개념 차이가 있어 통일함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임시 이사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연장자 순으로	호선하여
변경 사유	권위주의적 내용이므로 변경함	

-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최 및 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이사회의 의결은 원격수단으로 할 수 있다.(신설: 코로나19 상황 등 반영하여 신설함)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명	징계
변경 사유	제명이 아니라 징계로 내용을 바꾸어야 하므로 징계에 제명이 포함, 징계가 더 포괄적임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 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명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비영리민간법인
추가 사유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하여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2023. 2. 2. 8차 개정

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안을 토대로 연임 및 신임 임원안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1항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임원 선출 (안)

공동대표(상임) 연임 : 김정수(2023)

이사 연임 : 김귀옥, 김정수, 여혜숙(2023년-2025년)

이사 신임 : 김형규, 이권명희, 이애덕(2023~2025)

감사 연임 : 안수경(2023~2025)

○ 인선위원회 운영 과정

- 2023년 1월 2일 2차 총준위에서 인선위원 추천, 변경사항 반영하여 확정함
(추천: 김정아, 김귀옥, 여혜숙, 이권명희, 김성경 회원)
(확정: 김정아, 김귀옥, 여혜숙, 김성경, 이덕경 회원)
- 2023년 1월 25일 인선위원회 개최하여 인선위원장으로 김정아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추천안 마련
- 2023년 1월 27일(금) 2023년 1차 이사회에서 검토 및 승인
- 2023년 2월 2일(목) 2023년 제27차 정기총회에 신임임원 인선안 제출됨

○ 2023년 임원 임기(안)

구분	명 단	임기	비 고	인선(안)
이사회	한정숙(이사장)	2022~2024	신임	
	김성은	2022~2024	연임	
	김귀옥	2023~2025	연임	
	김정수	2023~2025	연임	
	김지영	2021~2023	연임	
	김정아	2021~2023	연임	
	배현주	2021~2023	신임	
	여혜숙	2023~2025	연임	
	윤은주	2021~2023	신임	
	이권명희	2023~2025	신임	
	이애덕	2023~2025	신임	
	김형규	2023~2025	신임	
상임대표	김정수	2023	연임	
공동대표				
감 사	안수경	2023~2025	연임	
	박유희	2021~2023	연임	
부설기구	소장 여혜숙	2022~2024	연임	
	원장 김귀옥	2022~2024	연임	

2022년 평화회원상

김지호 회원

◎ 평화회원상 추천사

2022년 평화회원상을 추천할 때 모두 김지호 회원을
추천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매해 진도에서 땀 흘려 짓는 농산물을
사무실로 보내줍니다. 대파, 무, 쌈배추 등등
그것을 여성미래센터 입주단체분들과 나눌 때,
또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릴 때,

사람들은 그 소박함과 정성에 감동받습니다.

평화여성회 25주년 기념행사에도 직접 지은 잡곡 선물세트를
보내줘서, 참가하신 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김지호 회원이 평화여성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여성회에 대한 자매애,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연대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평화여성회 회원상으로 추천합니다.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2022년 평화회원상

이덕경 회원

◎ 평화회원상 추천사

이덕경 회원은

늘 그 자리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나

꼼꼼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해주는

갈등해결센터의 주인입니다.

갈등해결센터 여혜숙 센터장

2022년 평화회원상

윤여령 회원

윤여령 회원(연구원 연구위원)의
평화회원상 추천의 변

세월 때가 묻어도 여전히 지성으로 빛나고

평여와 더불어 한반도 분단을 직시하며

평화통일의 꿈을 나누고자 하는

윤여령님이 있어서 평여가 든든해집니다.

추천인: 김귀옥/연구원장

2023년 사업계획안

2023년 사업기조와 방향(안)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는 남북관계는 상대방을 적 혹은 주적으로 부르는 공공연한 적대관계로 접어들었고, 한국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미동맹의 편에서 독자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 일본은 '신안보전략' 수립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평화헌법 개정', 군비 증강 등을 확보하여 군대를 가지지 않는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이룩했다. 이렇듯 동북아에서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군비증강은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정학적 단층지대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현실이다.

국내적으로도 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 이행과 반성평등 정책이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대를 주도하는 여성단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수조사, 대통령실의 민간단체의 정부의 보조금 불투명한 사용' 발표 등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대적이고 악화된 환경에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과 전쟁을 예방하며, 동시에 아직도 끝나지 않는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평화운동에 집중하고자 한다. 70년 이어진 한반도 정전체제는 국가주의, 군사주의와 결합된 가부장적 성차별주의 속에서 살아온 여성들이 생존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더욱 위협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여성평화운동의 역할은 전쟁을 끝내고 전쟁을 예방하는 일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2023년 평화여성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과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1.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 참여,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쟁 예방을 위한 어드보커시와 여성들이 만드는 적극적 평화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 대응 성명서, 논평 발표
- 군사주의와 전쟁반대 및 여성평화군축운동 전개를 위한 국내외 여성평화시민사회와 연대 및 협력 강화
- '여성, 평화, 안보'(WPS) 의제 기반 네트워크 활동 전개

2. "여성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 전개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기반을 놓기 위한 여성들의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을 본회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 여성시민사회

등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 캠페인팀 구성하기
- 상반기 평화여성회 회원, 지역과 공동체, 여성시민사회에서 캠페인 전개하기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3월 4일 예정) 계기 집중 행동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 7.27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평화주간 중 여성평화 행동 기획 및 진행 등

3. 여성평화운동 자료 정리 및 아카이브 기초 작업 진행

평화여성회 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평화여성회 활동 자료, 도서 등을 정리하여 여성평화운동 자료로 정리하여 목록화하여 향후 여성평화운동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 여성평화운동 자료정리팀 구성하기
- 평화여성회 활동자료, 회의자료 정리 및 목록화 작업하기
- 여성평화운동 도서 목록화 작업하기 등

4. 평화적 갈등해결 역량강화

갈등해결적 관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을 연구, 발전시키며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회원들이 일상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연구, 개발한다.

5. 성인지적 여성평화 담론 형성과 확산활동 전개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여성과평화포럼>(3회)를 개최하고, 『여성과 평화』 제8호를 발간하도록 한다. 연구원의 내부 의사소통과 여성과 평화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위원 워크숍>(2회)은 북토크와 토론회를 결합시켜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23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 : 한정숙
 - 이 사 :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배현주, 여혜숙, 윤은주, 신임 김형규, 이권명희, 이애덕 이사

1-3. 운영위원회

-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

3) 내용 : 매주

2. 위원회

2-1. 정책위원회

1) 역할 :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제안한다.

2) 구성

- 위원 : 구성 중

【2】 평화통일 사업

1.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 참여,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쟁 예방을 위한 어드보커시와 여성들이 만드는 적극적 평화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 대응 성명서, 논평 발표
- 군사주의와 전쟁반대 및 여성평화군축운동 전개를 위한 국내외 여성평화시민사회와 연대 및 협력 강화
- '여성, 평화, 안보'(WPS) 의제 기반 네트워크 활동 전개

2. "여성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 전개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기반을 놓기 위한 여성들의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을 본회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 여성시민사회 등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 캠페인팀 구성하기
- 상반기 평화여성회 회원, 지역과 공동체, 여성시민사회에서 캠페인 전개하기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3월 4일 예정) 계기 집중 행동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 7.27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평화주간 중 여성평화 행동 기획 및 진행 등

3. 여성평화운동 자료 정리 및 아카이브 기초 작업 진행

평화여성회 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평화여성회 활동 자료, 도서 등을 정리하

여 여성평화운동 자료로 정리하여 목록화하여 향후 여성평화운동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 여성평화운동 자료정리팀 구성하기
- 평화여성회 활동자료, 회의자료 정리 및 목록화 작업하기
- 여성평화운동 도서 목록화 작업하기 등

【3】 정보·홍보, 회원, 재정 사업

1. 정보·홍보 사업

- 1) 홈페이지, 페이스북, 여성평화안보(WPS) 유튜브 채널 등 SNS 평화활동
-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 3) 메일을 통해 본회 소식 전달

2. 회원 사업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3. 재정 사업

- 1)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모금 활동
- 2) 연말연시 기금 마련 활동 (굿감 판매 등)

【4】 연대 및 협력 사업

1. 국내 상설 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대표자회의,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등
- 1-2.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의 국내 네트워크 활동)
-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여성본부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네트워크 총회, 수요시위 주관
- 1-6. 시민평화포럼
- 1-7. 통일교육협의회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2-2. 한반도평화교육 단체모임
- 2-3.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2-4. 기타

3. 국제 연대

- 3-1.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지역협의회 -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 3-2. 기타

【5】 부설 갈등해결센터

【2023년 사업계획】

1. 조직

- 센터장 : 여혜숙 , 부소장 : 박인혜
- 운영위원회 :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김정아, 손서정, 손희정
- 기획자문위원 : 김희은, 이권명희
- 전문위원 : 이덕경, 조영희
- 평화통일교육팀 :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이권명희, 이현숙, 이향림, 여혜숙, 최영애, 신난희, 이하영
- 교육매뉴얼 연구팀 : 박인혜(팀장), 김정아, 김다미,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이덕경

2. 사업방향과 목표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결적 관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을 연구, 발전시킨다.
- 조직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다양한 역량발휘 및 활동의 기회를 넓히도록 한다.
- 센터 회원들과의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소속감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평화·통일교육과 갈등해결교육의 통합적 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우리사회 내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3. 세부사업 (안)

- 세대별, 대상별, 계층별 이해를 반영한 교육 매뉴얼을 개발한다.
- 소모임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교육과 사업내용을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평화·통일 역량 확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실천적이고 대중적인 평화·통일·갈등해결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 평화, 갈등해결 교육을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고 진행한다.

【6】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목표

첫째, 여성평화운동 이론화를 위한 학술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2023년에는 연구원 본연의 사업으로서 <여성과 평화 포럼> (3회), 『여성과 평화』 8호 발간을 할 것이다. 2023년에는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과 공동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연구원 이사와 연구위원들간의 학술적 차원이나 운동적 차원의 소통과 관계의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셋째, 온/오프체계를 유연하게 가동하여 모임 형식에서 좀더 자유로와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넷째, 연구원의 운영위원회 체계를 정례화하여 연구원 사업에서 협력적 마인드, 주체적 관계 형성에도 힘쓴다.

다섯째, 본회와 갈등해결센터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연구원은 전임 간사제를 폐지하고 사안별 특별간사제를 도입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일 것이다.

2.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위원회-원장, 부원장,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 학술위원장과 부위원장, 실행위원장과 부위원장, 코디네이터
- 편집위원회-김귀옥(편집위원장); 부위원장-이현희; 편집위원-15명 연구위원 모두
- 학술위원회-김성경(학술위원장); 부위원장-윤여령, 정은미
- 실행위원회-윤보영(실행위원장); 부위원장-차승주
- 코디네이터-김정아 * 참고-본회, 갈등해결센터와 이어주는 역할

3. <여성과 평화 포럼> 개최

- 주요 담당: 김성경(부원장 겸 학술위원장); 윤여령, 정은미(부위원장)
- 1년 3회---4월/8월/12월
- <제10회 여성과 평화 포럼>
- ; 때. 4월 19일(화) 오전10-12시
- ; 주제. “여성과 징병제, 군사주의”(가제); 발표, 토론(2인)
- ; 방식. 줌 진행

- <제11회 여성과평화 포럼>(8월): 통일 교육은 지속 가능한가? (가제)
- <12회 여성과평화 포럼>(12월): 통일 방안 문제

4. 연구원 워크숍 및 모임

- 주 담당: 윤보영(연구원 실행위원장); 차승주(부위원장)
- 취지: 2023년에는 최근 신입 연구위원 발표와 연구원의 교류 모임을 연 2회 정도 개최 예정
- 상반기 워크숍
 때. 2023. 2. 21(화) 오전10-12시
 주제. 김재용·이상경의 『혁명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소명출판, 2022) 북토크
 방식. 줌 진행

5. 연구원 기관지, 『여성과 평화』 제8호

- 주 담당: 김귀옥 편집위원장; 이현희 부위원장; 편집위원- 그 외 모든 연구위원
- 연구원 기관지, 『여성과 평화』 제8호 발간 예정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원의 글(논문, 에세이 등) 환영

6. 학술행사(안)

여성의 눈으로 정전협정 70년과 전후 체제를 보자(기획안)

1. 제목: 여성, 전쟁과 평화(가제) 학술심포지엄

2. 공동주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한국여성평화연구원

3. 때와 곳: 2023. 11. 3, 4(금, 토), 강원대학교

4. 취지

2023년은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의 전쟁은 여성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세기적 관점에서 전쟁을 치르고 전후 체제에서 여성들은 전후 체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유럽의 전쟁을 통해서 비교하여 공통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21세기에도 굳건하게 한반도 분단의 위기를 상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과 DMZ를 둘러싼 여성들의 이야기를 경기도, 인천, 강원 지역의 여성들의 경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프로그램(안)

제1일(금)

제1세션 오전10-1. 여성의 전쟁 경험과 전후 체제(사회: 미정)

- 발제 태평양전쟁과 여성 송연옥(아오이야마학원대학)

한국전쟁과 여성

김귀옥(한성대학교)

유럽의 전쟁과 여성

한정숙(서울대학교)

○ 토론 심아정(독립연구자), 정용숙(춘천교대) 외

제2세션 오후 3-6시. 경계선에 선 여성들(사회: 미정)

○ 발제 21세기 경계선에 선 여성들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강원 접경지와 여성

박미현(강원도민일보)

경기 DMZ 여성

안태운(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천 전쟁과 여성

김정란(인천여성가족재단)

○ 토론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모니까(서울대),

차승주(강원대), 김태경(국회미래연구원)

제2일(토) 전쟁과 여성 답사: 화천, 양구 지역(안)

2023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본회 예산(안)

<수입부>

수입부		
관	항 목	2022년도 결산
일 반 회 계	전년이월	2,272,649
	회비	30,218,240
	회원	21,218,240
	이사	9,000,000
	후원금	39,011,111
	개인	10,300,000
	재정모금	26,311,111
	부설기관후원	2,400,000
	참가수입	0
	자료제공	0
	기타수입	864,158
	차입금	0
	합 계	72,366,158



수입부		
관	항 목	2023년도 예산
일 반 회 계	전년이월	4,737,625
	회비	2,500,000
	회원	2,500,000
	후원금	59,500,000
	개인	42,300,000
	이사	12,000,000
	재정모금	4,000,000
	부설기관후원	1,200,000
	참가수입	0
	자료제공	0
	기타수입	262,375
	차입금	0
	합 계	67,000,000

<지출부>

지 출 부			
관	항 목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예산
일반 회계	사업비	20,192,960	17,300,000
	회의비	535,600	600,000
	평화통일사업	2,276,190	5,000,000
	재정사업	9,481,170	3,000,000
	연대사업비	3,000,000	3,300,000
	[여성과평화] 출판비	2,500,000	3,000,000
	부설기구 교부금	2,400,000	2,400,000
	갈등해결센터	1,200,000	1,200,00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200,000	1,200,000
	인건비	29,640,000	30,600,000
	업무추진비	3,600,000	3,600,000
	인건비	26,040,000	27,000,000
	운영비	15,135,573	16,000,000
	관리비	7,743,459	8,000,000
	복리후생비	3,133,025	3,500,000
	사무비	2,977,616	3,000,000
	통신비	706,580	800,000
	기타지출	574,893	700,000
	미지급금	500,000	0
	차입금	-	0
	연대회의비	500,000	0
적립금(퇴직적립금)	2,160,000	2,300,000	
예비비	0	800,000	
차년이월	4,737,625		
합 계	72,366,158	67,000,000	

부 록

- 평화여성회 정관
- 평화여성회 조직도
- 2022년 성명서 목록
- 회원가입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 2023년 2월 2일, 제27차 정기(제28차)총회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정회원의 의무)

- ①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기 납부한 회비와 기증품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호선하여, 공동대표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호선하여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 ⑦ 총회의 의결은 원격수단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내외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임시 이사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

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최 및 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11. 이사회의 의결은 원결수단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감사)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 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해산)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 혹은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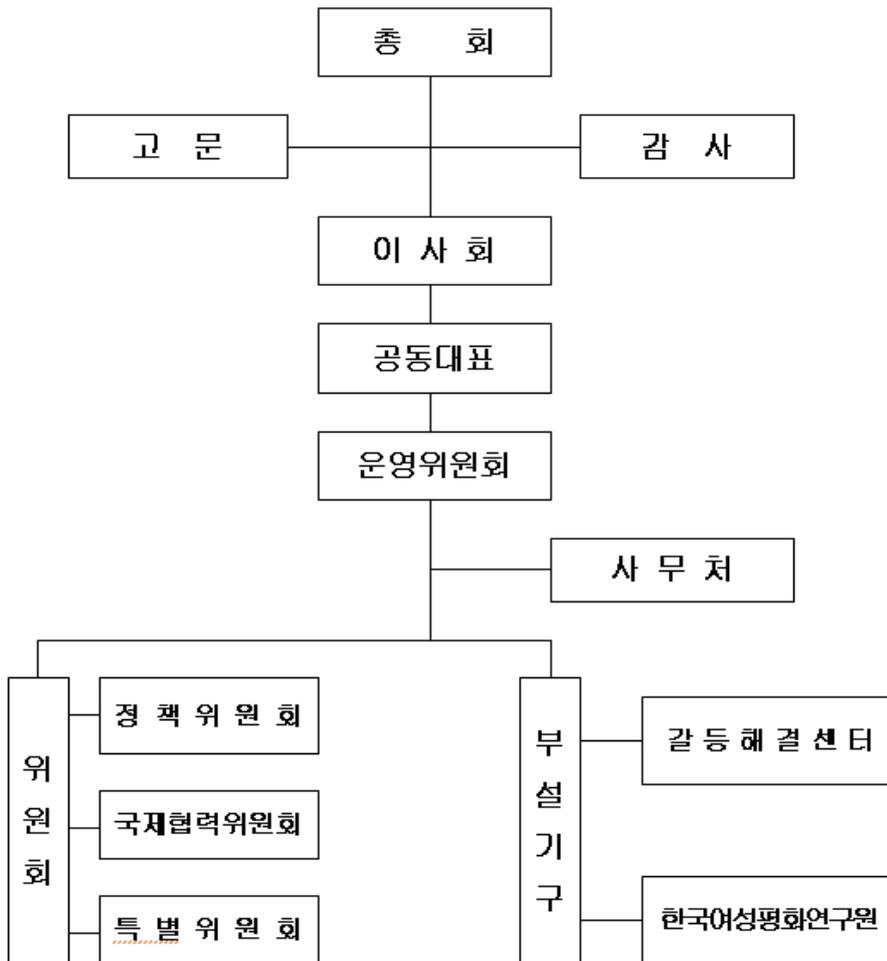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2023. 2. 2. 8차 개정

【 부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직도



【 부 록 】 2022년 성명서/기자회견문/의견서 목록

날 짜	제 목
1월 11일	[공동성명] 윤석열 후보의 반(反)페미니즘 선동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쳐
1월 21일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
2월 7일	[공동성명] 성차별에 무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야말로 ‘옛날 얘기’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라.
2월 8일	[여성시민종교단체 공동성명] 윤미향 국회의원의 제명처리 철회를 요구한다.
2월 10일	[공동입장문]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입장발표 기자회견 :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한다
2월 12일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선언문]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2월 28일	[공동성명] 윤석열 후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악의적 오해와 혐오 편승 유세를 규탄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Stop the War in Ukraine! Give Peace a Chance!
3월 2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의 회복을 염원하는 91개 한국여성단체 공동 입장문: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3월 3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 : “평화와 협력이 유일한 길입니다!”
3월 11일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기자회견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쳐 [기자회견문]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끊어낼 것이다
3월 25일	[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3월 28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입장문]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3월 30일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바랍니다. 남북 합의 존중과 이행, 적대 관계 종식,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적극 나서주시요”
4월 5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에 연명
4월 18일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올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전면 중단하라!”
4월 19일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

날 짜	제 목
	라!” 여성시민사회 성명서 연명
4월 20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입장문 연명
4월 25일	[2022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Stop arms race, Give peace a chance
4월 2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고려인 동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의 긴급 구호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5월 17일	[공동입장문] 북한 주민을 위한 코로나 방역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월 19일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우리는 인간안보를 보장할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6월 21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반대 공동기자회견문]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6월 ??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존치 결정을 염원하는 세계시민들의 요청서] “우리는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압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테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 존치 결정을 요청합니다!”
7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평화의 약속 결의문> “대결로 치달는 위기의 한반도,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듭시다”
10월 4일	[공동성명]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불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10월 25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한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10월 27일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기자회견문]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11월 7일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
11월 15일	[기자회견문]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한다!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충돌 조장하는 통일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공동성명] 윤석열 후보의 반(反)페미니즘 선동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쳐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월 7일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윤 후보가 생각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물이해를 드러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개탄스럽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反)페미니즘을 도구로 지지율을 올려보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를 정책으로 내놓으며 일부 남성들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다르지 않은 행태이다. 언제까지 차별과 혐오를 동력 삼아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차별·혐오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 안을 것인가?

선거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이고, 시민들은 투표로 그 열망을 표현한다. 차별과 혐오는 그 열망을 대표할 수 없으며, 이를 동력 삼는 선거 전략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평등과 연대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향해야 한다.

2022년 1월 11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한국민예총,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사)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

한반도에 70여년간 이어져 온 분단과 전쟁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가로막아 온 근원적 문제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6위권의 국방력을 자랑하면서도 최악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성평등지수와 노조가입률, 출생률 등과 같이 사회적 문제점이 심각한 것은 분단과 전쟁 체제 속에서 사회적 자산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고, 사회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극복,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2018년 평화의 봄을 이룬 합의들이 결실로 채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지난 3년 동안 우리 정부가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미국이 제재에 집중하는 사이, 북 역시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단했던 조치들의 재고를 거론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대와 대결이 긴장과 불안의 고조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반도에 평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 종교 시민사회 대표들은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과 정치 세력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는 관계개선의 기본입니다.

이승만 정부 이래 남북관계의 진전과 교착을 반복하던 가운데, 상대방을 붕괴시키겠다거나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식의 정책이 펼쳐진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책은 갈등과 대결을 심화시켰을 뿐, 남북관계의 발전을 결코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남북관계의 발전은 오로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적대하지 않는 가운데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성과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관계개선을 말하면서 군사훈련과 무기 증강에 몰두한다면, 이는 오히려 신뢰를 훼손한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삼년간의 교착상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는 관계개선의 기본입니다.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는 반드시 계승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남북합의들은 남과 북이 분단과 전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합의한 원칙과 구체적인 과제입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근거이며, 가장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부가 합의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전면적인 남북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협력사업은 물론이고, 다방면의 사회문화교류협력도 전면화해야 합니다. 분단의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및 운영도 필요합니다. 남북의 왕래, 협력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유엔사가 아닌 남과 북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평화의 봄은 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분위기가 훼손되는 데에는 훈련의 재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기해

야 합니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국방비와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남측이 먼저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섬으로써 평화의 봄을 다시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북미관계의 역사는 적극적인 신뢰구축 조치들이야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켜 왔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제재는 더 큰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뿐입니다. 적대의 중단과 평화를 위한 노력만이 비핵화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가 중단된 지난 3년, 우리 정부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과 최첨단 무기 도입에 몰두하고 미국이 제재를 강조하는 동안 북 역시 미사일 발사 등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힘에 의한 평화, 무기도입, 군비증강 정책을 멈추고 평화군축에 나서야 합니다. 종전을 말하면서 무기증강과 선제타격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동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불평등한 대외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트럼프 -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며 대중국 압박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동맹과 관련국을 동원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도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뚜렷합니다. 주변국과의 호혜평등한 관계를 해치거나,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침해하는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건강한 동맹이라 할 수 없습니다.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의 활동 범위를 대중국 압박으로 확장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헌법개헌 움직임에도 명확한 경고를 보내야 하며, 과거사 및 군사대국화 관련 우려가 제대로 해결될 까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멈춰야 마땅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현 전작권 환수방식을 중단하고 전작권을 즉각 환수해야 하며,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도 보건·환경·사법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주민 합의,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미군 무기 배치, 훈련장과 기지 확장을 멈춰야 합니다.

촛불항쟁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저항과 참여가 만들어 낸 위대한 성과이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긴 주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촛불항쟁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관계와 외교, 국방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는 여전히 차단되고 있으며, 폐쇄적인 정책 결정, 운영 과정에서 숨은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평화통일교육도 충분치 않습니다.

외교·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과 사회적 대화의 확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활발해지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남북교류에서의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보장하고 민중공동행사 등 각계 교류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평화통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평화통일 활동 영역에서 여성의 참

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북에 대한 정보 접근과 평화통일 제반 활동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등 제반 법제도 역시 정비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 참가자 일동

(총 145명 연명, 가나다순)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강정미(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고진형(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상임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영길(평화철도 이사장) 권오현(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기철(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의장) 김희현(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장, 목사) 김남규(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덕수(통일농수산 상임대표)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선(민족통일체육연구원 원장) 김동연(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한국회장) 김동윤(평화통일센터하나 대표) 김동한(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 김명신(전두환심판국민행동 대표) 김명환(평화철도 공동대표)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서중(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김승무(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식(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김영주(평화통일시민회의 상임대표) 김영하(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용우(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용철(OP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김윤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이경(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김인규(부경주권연대 공동대표) 김인환(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일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종기(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준기(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진익(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김창현(한국시민연대 대표) 김하중(미래를위한예비교사모임오늘 대표) 김한성(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혜순(사)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호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희선(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 남주성(6.15남측위원회 경북본부 상임대표)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명예회장) 명호(사)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제열(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민정기(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박길수(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덕신(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원로목사) 박두규(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만규(흥사단 이사장) 박민우(아산시민연대 대표) 박석준(6.15남측위원회 대구본부 상임대표) 박세인(경천애인 대표) 박영철(KYC 한국청년연합 대표)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진용(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창일(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박한창(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박해진(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현선(이화여대 교수)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배득현(수원청년회 회장) 백선기(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손규호(부산합파나눔공동체 본부장) 손미희(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공동대표) 손병휘(서울민예총 이사장, 민화협 명예위원장) 송성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신철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심재환(통일의길 대표) 안건수(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미애(우리다함께시민연대 공동대표)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오민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원희복(사)민족일기기념사업회 이사장) 유현석(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윤금순(5.18민족통일학교 이사장) 윤소년(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총재) 윤영전(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장) 윤은주(사)뉴코리아 대표) 윤정숙(녹색연합 상임대표) 윤진영(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 이경진(달팽이마을 대표) 이경희(환경정의 이사장) 이길재(사)통일농수산 고문) 이범창(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상진(예장뉴스 대표) 이성재(인천자주평화연대 상임대표, 노동희망발전소 이사장) 이아란(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대표) 이명아(원불교 한민족한삶운동본부 본부장) 이성우(범민련 부산연합 의장)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불평등한한미 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재선(천도교청년회 회장) 이정이(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종걸(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종철(6.15남측위 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청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이태형(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호윤(서울지역민주운동회협의회 대표) 이흥만(부산환경운동연합 고문) 임문철(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상임대표) 임순혜(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임태환(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장선화(부산여성회 상임대표) 장유진(진보대학생넷 대표) 전경수(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전남병(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사무총장) 전덕용(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전승수(사)생태지평연구소 소장) 전태삼(13일의지킴이 공동대표)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병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선경(민화협 베를린지회 상임의장) 정용일(사)녹

색교통운동 이사장) 정육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정종훈(6.15남측위원회 수원본부 상임대표) 정태효(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공동대표)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원호(서울통일의길 대표) 조헌정(예수살기 공동대표) 지은주(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진영종(참여연대 공동대표) 최동성(대한도덕회 회장) 최소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장,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최영숙(한민족유럽연대(독일) 부의장)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공동대표) 최용기(한철학과통일헌법연구소 소장) 최재숙(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현관송(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홍강철(통일중매꾼 대표)

**[공동성명] 성차별에 무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야말로 ‘옛날 얘기’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라.**

오늘(2/7),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도·보수에선 여가부가 역사적 기능을 이미 다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다.”라고 발언했다.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과연 “옛날얘기”인가.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다(32.5%, 2019).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8.5%(2020년 기준), 기업(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은 5.2%(2021년 1분기 기준)로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 윤 후보가 몸담았던 검찰의 경우에도 간부급 검사 중 여성 비율은 부장검사급 17%, 차장검사급 8%, 검사장급 5%(2020년 9월 기준)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해고되었다. 2020년 여성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 수 감소폭에 비하면 1.7배 더 큰 규모다. 여성의 안전 또한 디지털 기술 기반 성범죄로 인해 더욱 위협받고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총 4,973명으로 2019년(2,087명) 대비 2.4배 증가했으며, 피해자 중 81.4%가 여성이다.

이 수치들을 개인적인 문제들로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평등 국가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를 망각하고, 성차별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윤 후보의 발언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성차별’은 성별로 인한 ‘구조적’ 차별을 내재하는 단어이다. 성차별은 여전히 공고한 가부장제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과는 구분되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험하는 실재하는 사회문제이다.

대통령의 역할은 한국사회에 놓인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에 힘쓰며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성차별의 현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윤 후보의 태도는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는 인지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여전히 진행 중인 ‘지금의 얘기’다.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폭력이라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성차별·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냈고, 국가와 사회를 향해 변화를 요구해왔다. 윤 후보는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여성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 후보는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나 역사적 기능 운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평등 추진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라.

2022년 2월 7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대구 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여성시민종교단체 공동성명] 윤미향 국회의원의 제명처리 철회를 요구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개의 소위원회를 꾸려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벗어나 사법부의 판단 없이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물론 죄가 있다면 의원직을 제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죄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 대원칙이며,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이다.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벗어나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선 것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법을 준수하고, 헌법에 기반한 법률을 만드는 곳이 대한민국의 국회다. 국회의원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다면 법을 만들 자격도 없다.

윤미향 의원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과정에 있다.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12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을 통해 진실을 다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 사법기관의 판결을 기다리기에 앞서 입법부에서 국회의원직 박탈이라는 또 다른 판결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또한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공정한 법의 집행을 행사해야 하는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이다.

윤미향 의원의 거취와 관련한 판단은 재판이 종결된 후에 그 죄의 기본값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죄의 유무와 경중에 대한 판결이 결정되어야 징계든, 제명이든,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했던 복당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들의 소명이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감정을 고려한다는 원칙적이지 않은 정치적 판단은 미래를 밝힐수 없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걸어 온 30년 운동의 역사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부정되어선 안 된다.

진정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제명 절차가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만으로도 일본군'위안부' 문

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역사에 부정으로 작용 될 것 임이다.

이미 2년 전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게 가해진 의혹과 오해들로 인해 이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운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의혹과 의심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면 운동이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도 운동의 주체인 단체들과 시민들은 제기되었던 의혹과 오해를 통해 오히려 그간의 운동을 성찰하고, 쇄신의 계기로 만들어 가려는 뼈아픈 노력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수요시위를 지속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여파로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위안부’ 소녀상 앞 수요시위 장소는 2년이 넘도록 보수적 유튜버와 역사부정세력에 의해 아수라장이 되고 있으며, 극우 언론과 반민족 세력들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 대해 지속적인 공격을 하며 ‘위안부’ 피해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지금의 제명 절차는 또다시 정의기억연대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극우 언론과 역사부정세력에 의해 공격당하게 하는 빌미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며, 결과적으로 역사부정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헌법적 원칙에 맞게 윤미향의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길 요구한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과 정의 추구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2022년 2월 8일

경기광주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관악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기독교민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부산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성남여성회, 성남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이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신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함안여성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화성여성회 (44개 단체)

[공동입장문]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입장발표 기자회견 :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한다

지금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의 후퇴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공약의 남발과 공방전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힘겹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을 시민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1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자, 킬 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는 “평화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2월3일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사드가) 수도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드 추가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정면으로 무시할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정세를 뒤흔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만한 언사를 사려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행한 <2016년 국방백서>에서도 당장 단거리 미사일 대응이 시급한 터에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도입은 현실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힌 대로, 사드라는 고고도(高高度) 미사일의 추가배치는 그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강화될수록 핵과 미사일 증강으로 맞서왔습니다. 이미 사드가 배치된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배치 주장이 나온 후 충남과 강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이러한 방안이 안보와 국익에 진정으로 기여할지에 대해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대다수 국가의 군사전략에서 일촉즉발의 선제타격 가능성에 맞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은 일반적이고, 한국에서도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방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간 선제타격 강조는 상대를 자극하여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우리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한이나 미국의 선제타격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은 미사일을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연료와 고정식 발사대에서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대 기술로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선제타격의 효과성은 극히 낮습니다. 효과는 없이 무력 충돌만 야기되었을 때 그 후 벌어질 일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간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들이 보여주듯이, 위기관리와 군비경쟁 역제를 통한 ‘전략

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공동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진보 정부를 넘어 우리 현대사 속에서 국민의 지지와 함께 착실히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우리들은 한반도 평화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지도자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평화와 평등의 민주주의 정치를 원합니다. 갈등과 혐오가 아니라 돌봄과 상생,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성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정치화되어 여성혐오가 조장되고 남녀 갈라치기가 난무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격차 지수가 153개국 중 108위 그리고 성별임금 격차가 32.5%(2019)로 OECD 최하위인 국가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중으로 인해 우선 해고 등 구조적 성차별이 심화되는 것 또한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렸습니다. 성평등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은 사려 깊지 못한 이 일곱 글자에 환호성을 올리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후속 논의나 대안 제시의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은 끝났다"는 주장만 내놓은 채 남녀 고용차별과 임금격차 문제에도,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도 눈 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주장이 약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대선후보로서 진정으로 할 일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간 꾸준히 이어온 성평등 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손상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성취의 모범적 사례로 호평받아 온 대한민국에서 반페미니즘이 증가하는 놀라운 기류에 해외 언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폐지는 1995년 <세계여성행동강령>을 통해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UN의 정책에도 위배됩니다.

정무2장관실과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0년에 여성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성평등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한계 때문에 여성계의 적극적인 요구와 지원을 통해 출범하였습니다. 적은 인력과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 3법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의 보완, 성매매방지법,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내어 여성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금도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양육비 이행강제 등의 사업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불법 촬영물과 더불어 횡행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역시 여성가족부의 고유하고 주요한 역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성가족부가 더 많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역사적 노력과 성과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현실이 두렵습니다. 20-30대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는 주거와 자산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런 현실에 맞서 교육구조와 노동시장 관리에 실패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지만,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공공연히 거론하며 여성이나 여성가족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실 왜곡이 일어나는 현실은 정말 슬픉니다. 지엽적인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악용하는 분열의 정치도 두렵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평화롭고 성평등한 사회로의 과감한 전환에 달려있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염원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참여의 방식으로 함께 행동합시다! 동시에 아래와 같은 요구를 알립니다!

- 각 당의 대선후보는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공약을 폐기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국 사회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철회하고, 각 당의 대선후보는 성평등 정책의 실제적 확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하십시오!
- 정치인들은 젠더 문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행동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2022년 2월 10일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220명 일동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선언문]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가 상존하는 부정의의 세상에서 이 땅 페미니스트들은 긴 세월 싸워왔다. 서로 다른 이유로 차별받는 소수자,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함께 생존권과 평등권, 정의와 민주주의를 요구해 왔다. 여성들은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고발하며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 성폭력 문화를 바꿔냈다. 여성에게만 전가되어 온 육아와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교육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낙태죄 폐지도 이루어내었다. 부족하나마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규율하고 성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도 가지게 되었다. 너무나도 작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성평등을 고민하는 전담 행정부처도 존재하고 있다. 거저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모두 페미니스트들이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다수의 여성들이 존재하며, 교제폭력은 사랑으로 위장되고 있다.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 강간죄로 처벌조차 하지 못하며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간 성폭력은 더욱 교묘하게 여성들을 옥죄고 있다. 또한 한국은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었는지 모를 불법촬영 카메라를 두려워 하는 나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여전히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성평등의 기반들을 “역차별”이라 칭하고, 지독한 백래시를 젠더갈등으로 호명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는 이에 맞장구 치며 저열한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의 대선정국은 대선후보들이 과연 여성의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성평등 국가 비전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오히려 정치가 적극적으로 혐오를 생산, 유통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며 이를 모든 갈등 봉합의 해결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협잡꾼의 추잡한 도박판이다. 차별과 혐오를 먹이 삼아 자라나는 정치, 증오를 선동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를 집어치워라.

잊지말아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다.

그 어떤 혐오도, 배제도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주권자인 우리는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원한다. 여성에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내 몸에 대한 나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어떠한 방해도 없이 나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나라, 차별로 인한 빈곤이 없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를 원한다. 차별과 폭력 없는 삶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는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지속 가능한 모두의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우리는 흩어져 각자도생하고 있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목소리 내고 연대하는 페미니스트이다. 우리 페미니스트는 성평등한 사회, 여성의 삶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지 않고 지지치 않고 더욱 거세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2월 12일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00년생 여성주의 소모임 파란, 가족구성권연구소, 고양페미, 광주 동물권 소모임 밥 잘 사주는 성난 비건,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다른몸들,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맴뎌뮤직무브먼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서폐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시나브로' 인권연구모임,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여성인권티움, 여성현실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영희야놀자, 우롱센텐스, 유니브페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추적단불꽃, 탈진실시대의 진실연대자들,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페미니스트 북카페 femm,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페미당당, 페미플로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행동하는페미니스트, FeAc인천페미액션, (사)광주여성민우회, (사)파주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성폭력치료예방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부산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 정읍성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 제주여민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사)광주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의전화, (사)청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 강릉여성의전화,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전주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사)포항여성회, 경남여성회, 광주여성회, 대구여성회, 사단법인 인천여성회, 서울여성회,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공동성명] 윤석열 후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악의적 오해와 혐오 편승 유세를 규탄한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고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예산사업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이 포함된 예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성평등 효과성을 측정, 제고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제도 수행 성과로는 모든 정부재정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사회와의 성평등 가치에 대한 합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라는 약속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는 그 대상사업 범주 확대 속도가 매우 더딤서, 2022년 정부 총예산의 5~6% 정도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만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후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몰이해는 상식을 넘어선다. 그는 지난 27일 포항 유세에서 “이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라는 것을 30조(원) 썼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 돈이면 그 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핵 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성인지예산은 윤후보의 말처럼 뚝 떼어내어 쓸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아니다.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는 보편적인 주거, 복지, 산업 등의 예산사업들로 교육부, 국토부, 국방부 등 각 정부 부처의 사업들이 포함된다. 내용과 본질은 삭제하고 예산 총액만 제시하며 성인지(감수성)예산이라고 칭하며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주장은 역지를 넘어 악의적 왜곡으로 읽힌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오해와 논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촉구하는 일부 여혐 커뮤니티에서 자주 거론되어 문제로 제기했던 내용으로,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 관계 오류임을 확인한 사안이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론자들의 가짜뉴스에 편승해 국가 예산과 안보 정책을 묶어 혐오 세력의 입맛을 충족하려 한 셈이다. 과연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후보는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와 혐오를 세력화하는 데 동조하는 일을 당장 멈추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악의적 오해를 바로잡고,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멈추라.

2022년 2월 28일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거창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Stop the War in Ukraine! Give Peace a Chance!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 남부 국경에 일제히 진격한 지 하루 만에 수도 키예프가 포위되었다. 침공 첫날 이미 우크라이나인 사상자만 최소 450명 이상 발생했다. 오늘도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하라

전쟁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회원국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 존중, 무력에 의한 위협 금지를 명기한 유엔 헌장에 위배되며, 무력이 아닌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우리는 평화를 외치는 전 세계 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철군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쟁이 시작된 2014년부터 발생한 피난민은 지금까지 약 85만 명에 달하며, 앞으로 최대 5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군사적 해법은 없다.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수년 간 평화적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파병한 것은 주권 침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우려를 명분으로 들지만, 우려를 근거로 공격한다는 것은 명백한 '선제공격'에 해당한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군사동맹 확대, 병력 증강, 무기 배치 등으로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높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나토 가입국은 냉전이 끝난 뒤 오히려 더 확대되어 14개국 추가되었고, 2008년부터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이 열리기도 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東進)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외교를 통해, 그리고 다른 국가의 유사한 이해를 고려하면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 유엔 등 관련 정부와 기구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러시아에서 전쟁에 저항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지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2년 2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39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제주다크투어, (사)좋은교사운동, (사)한국인권교육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햇살사회복지회, 2030 여성 청년활동가 거버넌스 공부모임, 5·18기념재단, 60+기후행동, 가가우리해방물결,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기후행동,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성문화원, 개척자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녹색당, 경기다문화뉴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려대학교 교지 고대문화편집위원회, 고려대학교 사회과학학회 작은자유,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정치경제학연구회 수레바퀴, 고양녹색당, 고양YMCA, 공간주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공동체 도꼬마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적인사적모임, 공주책임여성행동, 관악동작녹색당, 광주 민중의 집, 광주 인권지기 활짝,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 학생행진, 광주지역연합사회과학회 <알다>, 광주청년유니온,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신문사,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구로노동자조사그룹, 구로아이쿱생협, 구분기생활경제연구소,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군인권센터, 글로벌 우먼 리딩 그룹 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독교민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예수사회행동,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아대책,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후악동대, 기후위기 기독교인 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준), 꿈끼기움터, 나눔문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네트워크 Re:, 노뉴워크, 노동·정치·사람, 노동도시연대,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자교육기관, 노틀담수녀회, 녹색교동운동, 녹색당, 녹색당 국제위원회,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전환청년그룹, 늘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소니자립생활센터, 다이어나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답엘에스,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대학생네트워크, 대전참여차지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추리평화마을,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더세움, 더인디고, 동국대학교 정치경제학연구학회, 동덕여대 중앙여성학 동아리 WTF (What The Feminism), 동작공동체라디오, 동작마을넷 마음껏,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두레방센터, 두루두루배움터, 들꽃향린교회,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러빙핸즈, 로빈이네, 루트온협동조합, 리스투더시티, 리제너레이션무브먼트, 마네트상사화, 마리아의 전교지프란치스코수녀회, 마포녹색당, 매듭, 명상공동체 아하, 모두를위한기독교영화제, 목표환경운동연합, 문다세 네트워크, 문화나눔다가치,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문화예술비빔, 문화인천네트워크, 뮤지션유니온, 미디어기독연대, 미세먼지고양삼전선로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학당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야놀자,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바다생각, 발전대안 피다, 번역공동체 있다, 보령 에너지 전환 포럼, 보문브룩스,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여성연대, 북부노동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꽃페미액션, 브라마쿠마리스 명상센터, 비건 커뮤니티 '아삭아삭', 비평그룹 시각, 빈땅, 사단법인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사랑의씨튼수녀회 JPIC위원회, 사포,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상여자의 착지술,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색깔있는 그림자, 생각나는마음을만드는청년들,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교회, 서강대 여성학과,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서울녹색당,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특별시의회남북평화교류연구회, 석남동성당, 성가소비녀회,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해화동분원,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성남4.16연대, 성문밖교회, 성바오로딸수도회, 성산중앙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리산 여성회의, 세계시민선언, 세계평화를 위한 시민모임, 세상을기록하는 사람들, 수요평화모임,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스튜디오 여러, 시대복지공감, 시민건강연구소, 시민모임 즐거움교육상상, 시민환경연구소, 시소픽쳐스, 신대승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실천불교승가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무튼, 유랑단,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앤의친구들(페미니스트시민모임), 언니들의병원놀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북, 연세대학교 비정규 공대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열린네트워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예산시민연대,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예술행동 한뼘, 오월어머니집, 와우책문화예

술센터,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우롱센텐스, 우루루, 울산시민연대, 월간 정상순, 이때진피스, 이윤
 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
 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교구
 석남동 성당, 인천성소수자인권모임, 인천지역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작은따
 움표, 작은형제회 복자 에지디오 수도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재) 성 프란
 치스코 평화센터, 재단법인 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재미차세대협의회, 재속프란치스코회, 재속프란치스
 코회 인천보나벤투라형제회, 재속프란치스코회 중서올프란치스코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
 노동조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부, 전국공공연
 구노동조합 ETRI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영양교사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국특수교사노조,
 전국학생행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전환, 정
 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교통동호회 - 정가다, 정의당 국제관계&미중
 패권경쟁 공부모임,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정의당 한반도평화특위,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비
 기후행동,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줌마S, 중랑민중의집사람과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
 워크, 지구촌나눔운동, 지리산필름, 직접행동DxE, 진보 3.0,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참여의실현청년한의사회, 창작제작소 선, 책방토닥토닥, 책임는 나, 천주교 예수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
 센터,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작은형제회, 천주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천주교 제
 주교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섭리수녀회,
 천주의 성요한 JPIC,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오픈플랫폼Y, 청년유니온, 청년정의
 당 경기도당,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양산
 지부추진모임, 촛불교회, 춘천나눔의집,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교사노조, 컴
 퓨터과학을 여행하는 보드게이머, 코빌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모임), 타원형교회, 태평2동재가복지센터,
 통일나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
 화연대, 페미니즘교육플랫폼be.do,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페미드로잉,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평택평
 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디딤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아카데미 산울, 평화움직임연구소
 도화선, 푸른아시아,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라가미, 플랫폼C, 피스모모, 피스어스, 하이세계시민교육강
 사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
 년회 전국연합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실크연
 구원,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예수교회연대, 한국인
 터넷기자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NVC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베평화재단, 한살림전남생산지연합회, 함께여는
 교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연대, 행동하는 미안마 청년연대, 행동하는교사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
 대, 향린교회, 향린교회 미래선교위 퀴어페미니즘팀, 향린교회 책임기모임 <인문공화국>, 현촌교회, 호모
 북커스, 흙리스행동,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화복성당, 환경운동연합, 휴먼아시아, SE4A: 인천광역시 소
 프트웨어 교사연구회

개인 132명 강다희, 강은주, 고다혜, 공책여행-이서희, 권성구, 권순목, 김광시, 김나형, 김대용, 김동연,
 김동영, 김모드, 김범규, 김상국, 김선희, 김성겸, 김영규, 김영순, 김영진, 김용민, 김원석, 김윤수, 김은
 혜, 김정숙, 김정자, 김지예, 김태홍, 김해니, 김혜란, 김희정, 나원진, 노지현, 류인근, 문경미, 문수현,
 민선, 박경아, 박상혜, 박선하, 박시연, 박연준, 박영인, 박은희, 박지환, 박현정, 방은미, 배미리, 백경화,
 변정우, 서단비, 서유진, 서정숙, 소혜순, 손경희, 손유리, 심예린, 안성혜, 안수진, 안현진, 오다영, 오수
 환, 오혁준, 유가흔, 유영미, 유유리, 유지연, 윤미선, 윤세영, 윤영대, 이강민, 이경진, 이경진, 이계영,
 이광오, 이미지, 이상미, 이성숙, 이세진, 이수경, 이승용, 이연우, 이용애, 이유민, 이자연, 이정옥, 이정
 옥, 이지현, 이현정, 이형호, 이형호, 이효정, 이희옥, 인경 활동가, 임운찬, 임재윤, 장광훈, 장신영, 장신
 원, 장신현, 장영배, 장지훈, 장하진, 전영후, 전은서, 전진경, 전해남, 정대성, 정무빈, 정상순, 정상희,
 정수영, 김범규, 정해진, 조영상, 차태영, 최수옥, 최정필, 최종두, 표영민, 한공기, 한세현, 한승옥, 한재
 영, 함수연, 허지선, 허지혜, 현여순, 홍예준, 홍지순, 홍현재, 황지원, Ha ryeomi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의 회복을 염원하는 91개 한국여성단체
공동입장문 :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냉전이 해체되었다고 일컬어진 지 30년 남짓, 국제사회는 신냉전을 넘어선 실제 전쟁을 목격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여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러시아 측이 무슨 이유를 대든, 우크라이나를 선제공격한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권, 영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파괴한 잘못된 일이다. 어린이와 환자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약자들, 민간인들이 죄없이 죽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난민이 인근 나라들로 내몰리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우호적이지 않은 조치를 취하자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운용부대에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키예프)와 하르키우(하르코프)에 위치한 핵폐기물 저장소가 지난 공습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유럽 2위의 원전국인 우크라이나의 원전시설이 폭파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성이 있어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미국-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핵무기 세계대전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연쇄적 핵확산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깊은 걱정 속에 빠져 있다. 무엇보다 핵무기 사용위협이라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미국과 소련은 외교적 협력을 통해 냉전 종식을 선언했고, 나토를 동구권 등 소련의 영향권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 독일의 통일을 이뤄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나토 동진 금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열강들의 지정학적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고 그것이 결국 이번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우리는 열강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동맹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을 목격했다. 군사적 패권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한다. 무력에 의한 침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은 철수해야 한다. 나토와 러시아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교와 협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미국-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극한적 대립,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미-중 대립은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사이에 긴장이 완화된다면 한반도에서도 남북한 사이에 공존과 평화를 위한 협력과 대화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합심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인류는 오히려 권력자들이 촉발한 패권경쟁 때문에 분열과 미움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냉전의 심화로 세계는 평화나 강대국들간의 유혈대결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 외교와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며 우

리 스스로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3월 2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의 회복을 염원하는 91개 한국여성단체들(가나다순)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광주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분당여성회, 사)대전여민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우리더불어이웃, 사)천안여성의전화,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사천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연대(준), 새움터, 서울한부모회, 성남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팽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여성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화성여성회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 : “평화와 협력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내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엿새 후면 마무리 됩니다.

평화와 화해 협력으로 나아가는 균형있고 똑심있는 정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종교 시민사회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 △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의 계승과 실현 △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것 △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와 불평등한 대외관계 개선 △ 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 보장, 성평등한 방향에서의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요구안을 마련하여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하였고, 직접적인 답변과 해당 분야의 공약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답변을 보내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노동당 이백윤 선본 모두 종교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요구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아무런 답변도 보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종교 시민사회의 요구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멸공, 일방적인 북한 비핵화만을 강조하는 미국 네오콘 식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더 큰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정책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이미 국민이 심판하고 배격한 함양 미달의 정책이기에, 이를 되살리려는 것은 너무나 노골적인 시대 역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남북합의 계승과 평화체제 구축, 균형 외교와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 보장, 신뢰조성 및 적대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 등 윤석열 후보와는 다른 기초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의 군비경쟁 중단 요구와는 반대로 핵잠수함 등 군사력 증강 기초를 이어가고 있으며 불평등한 대외관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협과 경제위기,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국 패권의 시대가 저무는 가운데, 세계적인 패권의 각축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패권 경쟁이 또 다른 군사적 충돌로 치닫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냉전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강대국들의 신 냉전 대결에 휘말려 사회적, 경제적 재부를 낭비하고 주권과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일국 중심의 편 가르기나 줄 세우기가 아니라 주변국과의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위협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사이의 적대와 대결이 군사적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과 분단의 시대에도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협력,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평화와 화해협력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전쟁과 대결을 선동하는 정치, 무기증강과 군비경쟁으로 향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남북합의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정치, 냉전 대결에 휘말리지 않는 균형 외교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진전시켜 온 유권자의 저력과 힘을 다시금 모아주십시오.

2022년 3월 3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각계 대표 총 456명 연명, 가나다순)

가명현(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강류안(사천YWCA 사무총장)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강성철(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강신하(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강옥천(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직무대행) 강정미(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춘석(사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강호광(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부 지부장) 고경하(제주주권연대 대표) 고광성(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고명정(진주YWCA 사무총장) 고영남(교수노조 부울경 지부장)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고진형(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상임대표) 공행식(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공동대표) 곽부현(기장 거성교회 목사) 구교형(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구희현(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경희(합천군여성농민회 회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영길(평화철도 상임대표) 권오현(사)정의평화인권유한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영(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공동대표) 김경태(한민족유류연대) 김경호(진주범민련후원회 대표) 김광일(6.15공동선언실천 대양주위원회 위원장) 김광훈(진보련 재미위원회) 김구채(경남겨레하나 마산지부 공동대표) 김군섭(6.15진주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기원(예수살기전국총무) 김기철(한국노동총서울지역본부 의장) 김남규(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달범(도교민주연합 대표) 김덕수(통일농수산 상임대표) 김도근(경성대민주동문회 회장) 김동균(TLtC Justice & Peace Committee (New York) 목사)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선(민족통일체육연구원 원장) 김동수(사천진보연합 대표) 김동연(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한국회장) 김동운(평화통일센터하나 대표) 김동한(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 김명신(전두환심판국민행동 대표) 김명환(평화철도 공동대표) 김미연(진해진보연합 대표)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민웅(서울겨레하나 공동대표) 김복근(진주시농민회 회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상범(거제시농민회 회장) 김서중(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김서진(창원대겨레하나 대표) 김석봉(남북평화재단 사무총장) 김선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김성(남해진보연합 공동대표) 김성윤(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대표) 김성호(직접민주주의뉴스 공동대표) 김송미(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 김수복(6.15공동선언실천 뉴욕지역위원회 대표위원장) 김수은(양평민예총 대표) 김수현(중남미-주)베네플 대표) 김수홍(6.15공동선언실천 중남미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재(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공동대표) 김승무(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식(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김영록(사)우리민족 이사장) 김영만(경남평화회의 대표) 김영애(우리누리평화누리 대표) 김영주(평화통일시민회의 상임대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김영하(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오은호(안산희망교회 목사) 김용규(양산시농민회 회장) 김용량(경남겨레하나 창녕지부 공동대표) 김용우(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용철(OP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김용필(평희시민네트워크 대표) 김우성(화성식품 부경지부장) 김유철(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김윤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익곤(창원대민주동문회 창우회 회장) 김의향(거제YWCA 사무총장) 김이경(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김인규(부경주권연대 공동대표) 김인환(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일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김장석(범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대표) 김재명(범민련경남연합 상임대표) 김재운(경희총민주동문회 회장) 김재학(사)광주전남겨레하나 상임대표) 김재환(고양평화청년회 대표) 김점숙(노무현재단경남지역위원회 상임대표) 김정광(6.15창원시지부 상임대표) 김정길(6.15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상임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정애(교육희망밀양학부모회대표) 김정화(남해여성회 회장) 김준근(경남겨레하나김해지부 상임대표) 김종기(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종수(목표산돌교회 담임목사) 김주일(의령군농민회 회장) 김준기(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지수(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공

동대표) 김지영(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김지태(인천새벽교회 목사) 김진억(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김진향(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김진호(창원진보연합 대표) 김창동(멕시코 천주교 신도회장) 김창현(한국시민연대 대표) 김철봉(고성희망연대 대표) 김태린(민족예술인총연합회본부 지부장) 김태웅(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공동대표) 김태임(6.15시민합창단 운영위원장) 김하중(미래를위한예비교사모임오늘 대표) 김한성(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한수(경남한살림협동조합사무) 김형기(중남미불교연합 대표) 김혜순(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호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희선(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 김희식(경남겨레하나 창녕지부 상임대표) 김희정(제주통일청년회 회장) 김희현(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장, 목사) 남용현(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 회장) 남주성(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남희정(거제YMCA 사무총장) 노경석(전교조경남지부 지부장)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명예의장)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공동대표) 류문수(원불교인권위원회)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류정화(합천군농민회 회장) 리미일(통일공방 회장) 명진(평화의길 이사장) 명호(사)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신부) 문정현(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평화바람, 신부) 문제열(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민점기(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공동대표) 박경수(중남미-주)비엔디 대표) 박경하(양산YWCA 사무총장) 박광수(통일촌 회장) 박길수(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덕신(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원로목사) 박두규(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만규(흥사단 이사장) 박문화(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의장) 박미자(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박민우(아산시민연대 대표) 박상권(중남미-일심태권도관장) 박석준(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박세인(경천애인 대표) 박신희(창녕군여성농민회 회장) 박영애(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영주(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공동대표) 박영준(6.15공동선언실천 엘에이지지역위원회 대표위원장) 박영철(KYC 한국청년연합 대표)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재혁(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상임대표) 박정권(계명대학교민주운동회 사무국장) 박정호(진주교육사랑방 대표) 박종권(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공동대표) 박종택(김해진보연합 대표)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지미(서비스연맹 경남수석본부부장) 박진용(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창일(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박한창(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박해전(자주통일평화변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현건(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현선(이화여대 교수) 박현수(천주교 정평민족 화해분과) 박형선(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 교무) 박혜정(경남여성연대 대표) 박효성(중남미-주)비담은 대표)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반혜영(창원YWCA 사무총장) 방정엽(중남미-주)한오선 대표) 배기남(합천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배득현(수원청년회 회장) 배병석(함안군농민회 회장) 배용한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고문) 배종혁(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백남해(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회장) 백성기(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백창환(사)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지부장) 법현(열린선원 선원장, 스님) 변호순(경남한살림협동조합이사장) 서광일(경성대학교재경민주운동회 회장) 서민기(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공동대표) 서상필(경남겨레하나 양산지부 상임대표) 서영만(나라사랑청년회OB대표) 서진호(사무금융 부울경 본부장) 석순자(다함께사는세상 위원장) 신경석(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성종대(한국민족종교협의회 전 사무총장) 소승점(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 손규호(부산밥퍼나눔공동체 본부장) 손미희(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공동대표) 손병희(서울민예총 이사장, 민화협 명예위원장) 손운(사)동학민족통일회 의장) 손정목(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형근(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일본지역위원회 의장) 송모열(남해군농민회 회장) 송성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신경호(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동경협의회 대표) 신복인(6.15공동선언실천 중남미위원회 사무처장) 신석규(경남겨레하나 상임대표) 신영배(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분부 집행위원장) 신철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필영(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 신호열(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신부) 심재환(통일의길 상임대표) 안건수(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안미정(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집행위원장) 안석태(금속노조경남지부 지부장) 안순호(공주대민주동맹회 부회장) 안은희(함석헌사상연구회) 안재웅(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안정선(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기관(산청진보연합 대표) 양미애(우리다함께시민연대 공동대표) 양병룡(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도쿄본부 대표위원)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양정석(산청군농민회 회장) 양현승(6.15공동선언실천 워싱턴지역위원회 대표위원장) 엄기웅(멕시코 법인법인한솔 대표변호사) 엄상빈(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여명순(사천여성회 회장) 여인철(장준하부활시민연대 상임대표) 오동현(법무법인 린 구성원 변호사) 오명운(성균민주기념사업회 이사) 오민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오세욱(가온시온성교회 목사) 오순애(사)평화철도 여성모임 대표) 오신택(기장생명선교연대 목사) 오영철(6.15공동선언실천 시카고지역위원회 대표위원장) 오은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오정규(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창훈(사)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이사장) 오현수(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우은정(과천영광교회 목사)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원희복(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월우(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스님) 위정량(강동노동인권센터 대표) 유종석(사)동학민족통일회 사무총장) 유현석(경남시민사회단체연

대회의 공동대표, 창원YMCA 사무총장) 윤경선(수원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윤금순(5.18민족통일학교 이사장) 윤동영(거창군농민회 회장) 윤미리(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공동대표) 윤소년(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총재) 윤순애(거창군여성농민회 회장) 윤순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경실련 사무총장) 윤영전(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장) 윤은주(사)뉴코리아 대표) 윤정숙(녹색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윤진영(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 은우근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상임의장) 은희만(통일나무 운영위원장) 음민서(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공동대표) 이강숙(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이건희(진보대학생넷경남지부대표) 이경수(교육희망마산학부모회대표) 이경애(고양YWCA 사무총장) 이경진(달팽이마을 대표) 이경희(환경정의 이사장) 이경희(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상임대표) 이규희(예술공동체 큰들 대표) 이기묘(AOK한국 상임대표) 이길재(사)통일농수산 고문)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난주(김해YWCA 사무총장) 이덕규(경기민예총 이사장) 이도영(고양여성민우회 대표) 이동현(가톨릭공동선연대) 이명아(원불교 한민족한삶운동본부 본부장, 교무) 이민숙(함안여성회 회장) 이바다(고양평화누리 공동대표) 이범창(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이병하(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이병호(남북교육연구소 소장) 이부영(자유연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상민(푸른내서주민회 회장) 이상진(산돌생명평화포럼 대표) 이서후(연론노조 경남신문 지부장) 이선경(원주시민연대 대표) 이선애(경남겨레하나 밀양지부 대표) 이성우(범민련부산연합 의장) 이성재(인천자주평화연대 상임대표, 노동희망발전소 이사장) 이소영(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대표) 이순일(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 이신(통일사회연구소 소장) 이아란(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대표) 이에라(마산YWCA 사무총장) 이연희(겨레하나 사무총장) 이영우(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윤권(하동군농민회 회장)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이윤덕(원불교 독일 레겐스부르크교당 교무) 이자훈(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경(진해YWCA 사무총장) 이재선(천도교청년회 회장) 이재용(고성군농민회 회장)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미(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종걸(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종욱(민주노총 광주본부 본부장) 이종철(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종훈(경남대학교동문공동체회장) 이준영(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회장) 이지양(양산YMCA 사무총장) 이진택(양산진보연합 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청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이태형(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태호(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현식(밀양시농민회 회장) 이현순(부천YWCA 사무총장) 이호윤(서울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 대표)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이흥만(부산환경운동연합 고문) 이흥석(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공동대표) 임경란(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 임광빈(금강산평화잇기 상임대표) 임문철(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상임대표) 임병택(함양시민연대 대표) 임선화(원평화 대표) 임순혜(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임종만(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임태환(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국민위원회 상임대표)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구갑(천도교 사회문화관장) 장문국(홍사단 뉴욕지부 지부장) 장선화(부산여성회 상임대표) 장연조(진주청년불교단체연합회 대표) 장유진(진보대학생네트워크 대표) 장윤정(세월호를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대표) 장의균(헌법문제연구소 소장) 장일중(재도이첼란트등포협력회 회장) 전경수(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전개연(경남겨레하나 마산지부 공동대표) 전남병(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사무총장) 전덕용(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전성기(함양군농민회 회장) 전승수(사)생태지평연구소 소장) 전윤희(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대표) 전진숙(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상임대표) 전태삼(전도환심판국민행동 상임고문) 전현옥(전여농경남연합 회장) 정갑환(6.15공동선언실천 중남미위원회 위원장)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대일(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정명주(김해YWCA 사무총장) 정명환(한길남북교류협력단상임대표) 정병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상시(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정선경(민화협 베를린지회 상임의장) 정성희(평화철도 집행위원장) 정숙자(광명YWCA 회장) 정애숙(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정영금(함안군여성농민회 회장) 정영훈(촛불혁명완성연대 대표) 정용일(사)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정육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일용(성공회수원나눔의집 원장) 정일용(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대표) 정재준(6.15공동선언실천 중남미위원회 기획실장) 정종근(6.15진주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정종미(세종여성 이사장) 정종성(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정종훈(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정진강(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정진남(진주여성민우회 운영위원장) 정진아(의정부YWCA 사무총장) 정진우(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 정창현(한국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태효(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공동대표) 제경화(통영YWCA 사무총장) 제해식(김해시농민회 회장) 조갑찬(사천시농민회 회장) 조미진(창원여성회 회장) 조병옥(전농부산경남연맹 의장)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용병(민주일반연맹 경남 본부장) 조원호(서울통일의길 대표) 조정필(전대협동우회 전 회장) 조정현(인천송현샘교회 목사) 조창중(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조현정(예술살기 공동대표) 조현갑(창원노동자겨레하나상임대표) 조현기(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대표) 조형래(민주노총경남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조희순(남해군여성농민회 회장) 지은주(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지종근(진주YMCA 사무총장) 진승일(평화비경기연대 집행위원장) 진영중(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창호(공론넷 대표) 차재우(재경대구경북 민주동우회 부회장) 최동

성(대한도덕회 회장) 최명철(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대표) 최병현(진보3.0 상임활동가) 최상은(양파자조금협회 운영위원장) 최성민(예벳교회 목사) 최소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장,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최영숙(한민족유럽연대(독일) 의장)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공동대표) 최용기(한철학과 통일헌법연구소 소장) 최우진(중남미-주)시티코스메틱 대표) 최유숙(교육희망창원학부모회 대표) 최윤희(고성군여성농민회 회장) 최일호(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 지부장) 최재숙(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정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최태봉(고양시민회 대표) 최형숙(강동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최휘주(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넷 대표) 추미숙(제주도여성농민회 회장) 추혜성(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회장) 하연호(새로하나 공동대표) 하춘수(천주교정의구현부흥회 마산교구사제단 대표, 신부) 한금진(수원YWCA 회장) 한기양(울산새생명교회) 한명자(진주시여성농민회 회장) 한미경(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한성(평화연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한용걸(함께걷는길벗회 이사장) 한은정(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공동대표) 한정로(재독평화여성회 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현기(창녕군농민회 회장) 허태유(경남겨레하나 마산지부 상임대표) 현관송(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현지(6.15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상임대표) 홍강철(통일중매꾼 대표) 홍종용(중남미-한글학교 감사) 홍종한(공공운수노조 경남 본부장) 홍찬(6.15공동선언실천 씨앤티지역위원회 대표위원장) 홍희덕(새로하나 상임대표) 황규호(시애틀진보연대 의장) 황철하(6.15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기자회견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쳐>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끊어낼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P 차이로 당선됐다. 10%P 격차로 승리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의 호언장담이 무색하다. 윤 당선인은 선거과정 내내 여성 유권자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투표 하루 전인 3.8 세계여성의날에도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또다시 SNS에 올리며 여성을 배제한 표몰이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여성 유권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고, 심지어 20대 남성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도 못했다. 이는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갈라치기 정치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성별로 갈라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당선이 된 후에도 일고의 성찰도 없이 본인의 행태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당선자의 모습에 분노한다. 이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가 행정상의 실수를 운운하며 말을 바꿨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성차별을 외면하고 조장했던 후보는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반 페미니즘 전략으로 증오를 선동한 후보는 그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은 성평등과 여성의 삶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차기정부에서 성평등 추진 체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전혀 없음을 표명했고,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을 통해서도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여기는 낙후된 인식을 드러냈다. OECD 10년 연속 최하위인 ‘유리천장 지수’를 비롯하여, 여성의 노동 참여율, 성별 임금 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등 수많은 지표에서 한국의 불평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당선자는 여성이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라.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이 윤 당선인을 외면한 것은 혐오를 등에 업고 여성의 삶을 목살한 결과이다. 지금처럼 차별과 혐오를 동력 삼아 국정을 운영한다면 더 큰 외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임을 알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 윤 당선인은 이제라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국가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페미니스트 주권자는 멈추지 않고,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끊어낼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벗어나 각자의 모습으로 삶을 꾸려온 1인 가구 여성, 비혼주의 여성, 노동자로서의 여성이 있다. “성폭력 무고죄 강화”가 아닌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법의 체계를 바꿔나가는 페미니스트가 있다. 페미니스트는 성차별적 사회

를 고발하고 바꿔나갈 것이다. 윤 당선인이 한국 사회의 성평등을 견인했는지 후퇴시켰는지 평가하고, 크게 외쳐 알릴 것이다. 최악의 '성차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라.

2022년 3월 11일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12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파주여성민우회, (사)포항여성회, 00년생 여성주의 소모임 파란, 가족구성권연구소,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페미, 광주 동물권 소모임 밥 잘 사주는 성난 비건,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또 하나의 문화, 마감마녀, 맴맴뮤직무브먼트,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 부산성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성폭력치료예방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청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 강릉여성의전화,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인천여성회, 사단법인 전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부산성폭력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성폭력근절을위한지리산여성회의, 수원여성회, 시나브로'인권연구모임,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언니네트워크, 에코페미니스트 연구센터 달과 나무,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여성인권티움, 여성현실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영희야놀자, 우릉센텐스, 울산성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유니브페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탈페미,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읍성폭력상담소,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추적단불꽃, 춘천여성민우회, 탈진실시대의 진실연대자들,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페미니스트 북카페 femm,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페미니즘교육연구소 연지원,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페미당당, 페미플로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행동하는페미니스트, FeAc인천페미액션)

**[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등 시급하고 무거운 과제들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장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었다.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p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자 시절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도 해당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와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사회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다(31.5%, 2020).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2021년 기준), 기업(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은 5.2%(2021년 1분기 기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은 여성이라 뽑지 않고, 가사노동, 육아 등 돌봄은 여성에게 전가되어왔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거나,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둘째,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독립부처가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담 부처의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기 전,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로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90년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몇 차례 직제개정을 거치며 오랫동안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정책의 ‘수행’이라는 면에서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에 어느 한 부서이기보다 조정기능을 갖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성주류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원회는 조직·기능·인력·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부처로서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가진 여성부가 출범했다. 이처럼 ‘전담 독립부처’의 필요성은 여성가족부 설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미 증명된 지 오래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로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를 전담으로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8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베이징여성행동강령>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미 27년 전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규범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수많은 법과 정책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라 법과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집단이 배제되거나 차별받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는 ‘독립부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예산과 인력(정부예산 중 0.24%(2022), 279명(2021))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 윤 당선인은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시민’에서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하며 싸워왔다. 다시 한 번 성평등 실현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대통령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며 싸울 것이다.

2022년 3월 25일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감을 잡다,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북여성주의 문,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갯년기잡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여성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설노조,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민예총 이천시부, 경기민예총 평택지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연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다산인권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도민여성의회,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북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이팝,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상국립대분회, 경상남도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

터, 경원사회복지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공간엘리사벳,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공릉.월계여성회(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여성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YMCA, 광명YWCA,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광주 언니네,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 광주교육청지부, 광주복지공간플러스,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성빈여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이음, 광주여성회,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EWKHP 지회, 광주YWCA, 교육문화예술공동체 봉림문예사발,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리YMCA, 구미경실련, 구세군정다운집,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산YWCA, 군포탁틴내일, 글로벌한부모센터,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기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대한솔루션지회, 금속노조 엠코지회,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여성위원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교민회, 기본소득네트워크,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꿈자람사회적협동조합, 나를 돌봄 서로 돌봄, 봄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남양주여성회, 내일여성쉼터, 내일을 여는 집, 내일을 여는 집, 노동당, 노원여성회,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연합, 늘푸른쉼터,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솜공동체, 담쟁이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ncc),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청년유니온,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저여성장애인연대, 대전 YWCA가족쉼터, 대전경실련,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폭력통합연구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부설푸른희망담쟁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덕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동아리 WTF, 동백작은학교, 동서울여성회, 두레방, 두레방쉼터, 두루두루배움터, 디딤터, 따뜻한침자리, 레드리본인권연대, 로템의집, 마들렌의 집, 마인하우스,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평등사, 목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무지개인권연대, 문화도시를 위한 시민포럼 <문항시>,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미리암이주여성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변 여성위),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과함께하는연계진료모임 길벗, 믿는페미, 반성매대인권행동이룸, 밝은미래복지재단부설 징검다리, 배워서 남주자 학습공동체 까치밭,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건의료노조 울산병원지부, 보건의료학생 매듭,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복지공감 플러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부경대분회, 부산광역시가정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여성회, 부산장애인여성연대,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시 성평등네트워크 담장넘어, 부천시여성의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빅웨이브, 사) 씨알여성회, 사) 익산여성의전화, 사) 함께크는여성울림,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김해여성회, 사)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사)부천여성노동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성북청년시민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음지부 성폭력상담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청주여성의전화,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사)충북여성인권, 사)한빛회, 사)햇살사회복지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 집, 사단법인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광야만녹색연합, 사단법인 남북상생통일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실로암사람들, 사단법인 장애여성네트워크, 사단법인 전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탁틴내일, 사단법인 통일맞이, 사단법인 평화의샘, 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사단법인 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 사단법인월드유스비전강북지회, 사단법인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사무금융노조,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사철공종합상담센터, 사회복지법인 명지재단 양산여성의집,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해봄터, 산림연구소,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상상인(상생과상상의인권공동체), 새날을여는청소년여성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강대학교 여성학과,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지부,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의전화지부 영등포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성남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북마더센터 맘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평등정책 디자인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해늘, 소우주 성문화인권센터, 속초ywca, 송파청소년성문

화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돌봄,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순례자의집, 순창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나는디딤터, 신대승네트워크,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한카드노동조합, 실로암장애인선교회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산시민연대, 아침(아름다운외침), 안산민예총, 안산YWCA,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여성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안양ywca, 애꾸온캐피탈 지부, 앤의친구들,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언니들의병원놀이, 언론노조, 언론노조 MBC아트지부, 예산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장애인연대,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 소빛, 여성정치포럼,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성환경연대, 여수여성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연구공동체 인권과스포츠,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영광여성의전화,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우릉센텐스, 우리동네, 우리신학연구소, 울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움트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로의성모수녀회, 유쾌한젠더로, 은평지역교육콘텐츠험의회, 은혜의집터, 이시스,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천여성회, 이화여자대학교, 익산YWCA,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권교육온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녹색연합, 인천아동청소년지원센터 있다,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인천이주여성자립홈,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작은것이 아름답다, 장애인인권연대, 전교조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흐름”, 전교조 하남광주지회, 전교조세종지부, 전교조울산지부, 전교조음성지회, 전교조인천지부,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원중등공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조 저축은행중앙회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현대카드 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기신용보증재단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신한신용정보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여수신업종본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일산열차승무지부, 전국귀어모여라,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남대학교 페미니즘학회 F:ACT,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농 예산군농민회, 전농 충남도연맹, 전북교육마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바스락,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신용보증재단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전주YMCA, 전주YWCA, 제르마나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장애이상담소,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한부모회 <해밀>, 제주YWCA여성의집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문화연구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주민과함께하는 광명만남의집, 즐거운교육연구조합협동조합,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제주도당,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의전화,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창원도가야로 가야역사연구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회,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여성회, 천안YMCA,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촛불전진, 추적단불꽃, 춘천경실련, 충남대 여성주의 동아리 BIGWAVE,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연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여.세.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여성케어센터,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케이로드넘버원, 큐앤에이, 키움과나눔 부모교육연구소,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평택 여성회, 평택건생지사,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평택평화센터,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네트워크,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풀뿌리여성네트워크크바람, 풍물국패삼터, 하남가정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학비노조 광주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 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한국비

정규교수노동조합 인제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릉원주대학교 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분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실로암선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등등,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전북이주여성쉼터, 한국장애포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MCA간사회젠더정의분과, 한부모 연합 해밀,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아름교회, 함께걷는길벗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 성가족상담소, 합천가정상담센터, 행동연대,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헌법개정여성연대,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화성여성회, 화순YMCA, 환경운동연합, 휴먼케어센터,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FeAc인천페미액션,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진해여성의전화,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사)녹색교육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두꺼비친구들,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사)부산여성의 전화 성가장폭력상담소, (사)부천여성의전화, (사)사람과경제,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사)수원여성인권돋움, (사)시흥여성의전화, (사)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인천여성회, (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충북민예총,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 (사)포항여성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416약속지킴이도봉모임, 6.15공동선언실천경기충북본부, 6.15남측위대구경북본부

[평화여성회 입장문]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1990년대 이후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조직적 성폭력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무력분쟁지역 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에 2000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분쟁 하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하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및 후속 결의안들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 분쟁 예방 및 분쟁 후 평화 구축 활동에 성인지 관점 반영, △ 평화 협정 체결 및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 분쟁 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 폭력 행위자의 처벌, △ 성평등과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 증진 등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2월 국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을 통해 2012년 범정부 차원의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2014년 5월 제1기 국가행동계획(2014-2017)을 수립하였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2010년), 네팔(2011)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된 것이며, 2021년 9월 현재 전 세계 98개 국가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1325 국가행동계획’은 2기(2018~2020)를 거쳐 3기(2021~2023)에 들어섰다. ‘3기 국가행동계획’은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민주평통까지 10개의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10개 부처는 △ 분쟁 예방, 평화, 활동, 국제개발협력 관련 종사자 여성·평화·안보 역량 제고, △ 국방·외교·평화·통일·치안 분야에 여성 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 확대, △ 군 관련 및 분쟁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처벌강화, △ 북한 이탈 여성 및 난민 여성 지원, △ 분쟁 관련 피해자 회복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강화 등을 각 부처별 과제로 이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히 각 부처 활동의 이행점검을 통해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치안 분야 성주류화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여성평화운동 단체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윤석열 당선자와 차기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로 되어 있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은 각 부처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데, 지속적이고 실효적 이행을 위한 여

성가족부의 총괄·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Monitoring & Evaluation: ME)의 중요성은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한 1325 결의안을 뒷받침하는 후속결의안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이행점검은 민간자문단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며, 여성가족부는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각 부처의 이행점검을 지원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지속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 역할을 통해 ‘여성·평화·안보’ 의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의 성주류화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나라는 자국의 ‘1325 국가행동계획’에 의거하여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외교정책의 하나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여성·평화·안보법’(Act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7)을 제정하여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페미니스트 국방정책, 그리고 페미니스트 통일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판 ‘여성·평화·안보법’의 제정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각 부처가 별도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는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수렴을 통해 명실공히 국가적 주요 의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정부는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와 권한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이 평화구축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인 차원의 남북여성 교류 뿐 아니라 남북 정부 당국 간 여성교류, 성인지적 교류와 협력 의제 발굴, 남북여성의 정치·경제적 역량강화, 그리고 평화협정 등 다양한 협상 과정에 여성참여와 젠더 의제 포함 등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참여와 개입을 통해 법적, 정책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한반도를 수립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1325 국가행동계획’ 주관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도 후보 시절 “여성 참여 보장과 ‘1325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통한 여성·평화·안보(WPS) 정책 수립”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 이런 약속의 진정성을 살려 차기 정부는 여성의 평화활동 확장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역할 강화를 지원할뿐만 아니라, OECD 수준의 성평등으로 진전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022년 3월 28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여는 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최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남, 북, 미 모두 군사 행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분단과 적대, 정전 체제로 한반도에는 무력 대결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연합군사연습(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의 대규모 무력을 한반도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유사시 북에 대한 선제 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미 당국은 늘 해오던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에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촉발해왔습니다.

남북 또는 북미 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은 무력 시위가 또다른 무력 시위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인해 신뢰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재개되었고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가 이어져 왔습니다. 북은 미국의 적대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여,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북의 선언도 4년만에 폐기된 상황입니다. 새로운 관계 수립을 비롯한 정상들의 합의를 이행하는 진전된 조치 없이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길로 다시 퇴보한다면 그 후과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연습이나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미 갈등의 근본 원인인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고립, 압박, 제재를 통해 북의 비핵화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미국은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 있는 국가는 군사 행동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전쟁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없애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기억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4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이 추구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남북, 북미 간의 진정한 대화와 외교를 다시 열어낼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감염병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데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군사적 대결과 압박이 아닌,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해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년 4월 5일

한국 단체(총 182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South 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June 15 Joint Declaration)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 South Korean Committee, Gyeonggi branch)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중부본부 (6.15 South Korean Committee, Gyeonggi-jungbu branch)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 South Korean Committee, Gwangju branch)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 South Korean Committee, Daejeon branch)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수원본부 (6.15 South Korean Committee, Suwon branch)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 (6.15 South Korean Committee, Ansan branch)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 South Korean Committee, Ulsan branch)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 South Korean Committee, Incheon branch)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 South Korean Committee, Jeju branch)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 South Korean Committee, Youth & Students Headquarters)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 South Korean Committee, Chungnam branch)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 South Korean Committee, Chungbuk branch) 가톨릭농민회 (Corea Catholic Farmers' Movement) 강정평화네트워크 (Gangjeong Peace Network)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Korean Federation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 : 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Korean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y Society, Korean Nurses association for health rights,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겨레의길 민족광장 (Gyeoleuigil Minjoggwangjang) 겨레하나 (Movement for One Korea)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Gyeonggi Bukbu Peace Action) 경기여성단체연합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경기여성연대 (Gyeonggi Women's Solidarity)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Gyeonggi Christian Action for Justice and Peace) 경기주권연대 (Gyeonggi Sovereignty Solidarity) 경기진보연대 (Gyeonggi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경기평화교육센터 (Gyeonggi Peace Education Center) 경기환경운동연합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younggi) 경남진보연합 (Gyeongnam Progressive Association) 고양여성민우회 (Goyang Womenlink) 고양평화청년회 (GyPeaceYouth) 고양YWCA (Goyang YWCA) 공릉.월계여성회(준) 광주진보연대 (Gwangju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국민주권연대 (Jukwonyeonda) 국제전략센터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Sisters of the Christian Doctrine) 기독교청년아카데미 (Christian Youth Academy)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Reunification of Korea) 남원YWCA (Namwon YWCA) 노동복지나눔센터 (Labor Welfare Sharing Center) 노동희망발전소 (Plant for Labor's Hope) 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d) 대경진보연대 (Deagyeong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독도사랑협의회 (The Association of Dokdo Sarang) 독립유공자유족회 (The Association of Descendants of Korean Independence Patriots)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동학실천시민행동 (The Citizens' Movement of Donghak Revolution) 미디어기독교연대 (Media Christian Solidarity) 민들레 (Progressive artists union 'Dandelion') 민족문제연구소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Goyang Paju Committee)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Ansan Siheung Committee) 민족문학 연구회 (Writers Association of Korea)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Minjatong) 민주노동자전국회의 (Democratic Workers' National Conference) 민주노점상전국연합 (Korea Democratic Street Vendors Confederation)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uwon Yongin Osan Hwaseong Regional Branch)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Association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for Democracy and Equality)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gahyeop) 민중민주당 (Peoples Democracy Party (PDP)) 부산민중연대 (Busan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구 주민회 (Buggu Juminhoi)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KDEMO) (사)경기민예총 (Federation of People's Art Organizations, Gyeonggi) (사)광주전남겨레하나 (Movement for One Korea in Gwangju & Jeonnam) (사)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The Education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Gwangju) (사)민족미술인협회 (The Korean People's Artists Association) (사)안산민예총 (Korean People's Artists Federation in Ansan) (사)어린이어깨동무 (Oked

ongmu Children in Korea) (사)울산민예총 (Korean People's Artists Federation in Ulsan) (사)정의 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Support Committee for Prisoners of Conscience for Justice, Peace and Human Rights) (사)평화삼천 (The Corea Peace 3000) (사)평화통일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and Unification)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Hankyoreh Unification Forum) 사단법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Corp. Minjuhwaundong-Jeongsingyeseung-Gugminyae) 사단법인 수원민예총 (Federation of People's Art Organizations, Gyeonggi-Suwon Council) 사단법인 희망레일 (Rail of Hope) 사월혁명회 (April Revolution Association) 사할린한인역사기념사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회 (The Righteous People for Korean Unification) 새로하나 (New One) 생명평화포럼 (Life and Peace Forum)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Democratic Alumni Association) 서울진보연대 (Seoul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West Sea Peace Zone Association) 성골롬반외방선교회 JPIC (Columban JPIC Korea) 성골롬반평신도선교사 (Columban Lay Missionaries (CLM)) 성미산학교포스트중등 (Sungmisan-School-Post Secondary)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 수원그린트러스트 (Suwon Green Trust Foundation) 수원여성회 (Suwon Women's Association) 수원일하는여성회 (Suwon Working Women) 수원진보연대 (Suwon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수원환경운동센터 (Suwon Center for Environment Movement) 수원YWCA (Suwon YWCA) 슬로푸드한국협회 (Slow Food Korea) 시민평화포럼 (Civil Peace Forum) 액션원코리아 (Action One Korea)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Civilian Military Watch) 예수살기 (Living with Jesus)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Civil Network for the 'Chosun School' & Student in Japan) 울산대학교 민주동문회 (Ulsan University Democratic Alumni Association) 울산여성회 (ULSAN-WOMEN) 울산진보연대 (Ulsan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 (The Won-Buddhist Emergency Committee to Guard the Sacred Site at Seongju) 원불교평화행동 (WON-PEACE) 원불교환경연대 (Wonbulgyo Eco Network) 인권교육센터 들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인천노사모 (Incheon NOSAMO) 인천자주평화연대 (Incheon Independent Peace Solidarity)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자주통일평화변영운동연대 (Great Korea Action)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Silcheonyeondae)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Goyang Middle and High School Branch) 전교조 고양초등지회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Goyang Elementary Education Branch) 전국교직원노동조합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전국농민회총연맹 (Korea Peasants League)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Busan-Gyeongnam League, Members of Korean Peasants League)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Yugahyep)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전국빈민연합 (National Federation of the Poor)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Korean Women Peasants Association) 전국여성연대 (Korea Women's Alliance)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National Youth Movement Union Somyeong) 전남진보연대 (Jeonnam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전북교육마당 (Cheonbuk Edumadang) 전주YMCA (Jeonju YMCA) 정의사법실천연대 (Jungsilrun) 제주통일청년회 (Jeju Unification Youth Association) 제주평화인권센터 (Jeju Peace Humanrights Center)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Pan-Korea Alliance for Reunification)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진보 3.0 (Progressive 3.0) 진보당 (The Progressive Party) 진보당 수원시지역위원회 (The Progressive Party Suwon Committee) 진보당 울산시당 (The Progressive Party Ulsan Committee) 진보대학생넷 (Jinbo College Student Network) 진주YMCA (Jinju YMCA)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rents for Cham-Education, Gyeonggi)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rents for Cham-Education, Gimpo) 참살이문학 (CHAMSARI Literature) 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창작21작가회 (Changjak21) 천주교인권위원회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Korean Catholic Federation for Justice) 코리아국제평화포럼 (Korea International Peace Forum) 통일광장 (Tongillkwangjang) 통일로 (Tongilro) 통일맞이 (Greeting the Unification of Korea) 통일시대연구원(구, 4.27시대연구원) (Tongilsidae Research Institute) 통일엔평화 (Unification and Peace) 통일의길 (The Happy March for One Korea) 팩스 크리스티 코리아 (Pax Christi Korea (PCK)) 평등평화세상 온다 (Equal Peace World ONDA) 평택평화센터 (Pyeongtaek Peace Center) 평화네트워크 (Peace Network) 평화를만드는여성회 (Women Making Peace) 평화바람 (Peace Wind) 평화어머니회 (Peace Mothers of Korea)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만인회 (YMCA 10000 Committee for Korea Peace and Reunification) 평화재향군인회 (The Korea Veterans for Peace) 평화협정운동본부 (Peace Treaty Movement)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Peace Treaty Movement, Incheon) 풍물굿패 삶터 (Poungmulgutpai) 피스모모 (PEACEMOMO)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

hes in Korea, Reconciliation & Reunification Committee)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한국대학생진보연합 (Korea University Advancement Association) 한국에클레시아생명학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the Study of Ecclesia and Life)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한국진보연대 (Korea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한국청년연대 (Korea Youth Solidarity) 한국YMCA전국연맹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한국YWCA연합회 (National YWCA of Korea)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Campaign)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Korean Peninsula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Council) 흥사단 (Young Korean Academy (Hung Sa Dahn))

미국 단체 (98개)

1040 for Peace, 3 Pour Press, 350 Milwaukee, 6.15 DC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6.15 NY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6.15 Seattle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NSWER Coalition (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 Asian Refugees United, Atlanta Realty Central, Inc., Atlanta SaSaSe, Baltimore Nonviolence Center, Bethlehem Neighbors for Peace, Broome Tioga Green Party, 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and Common Security,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hina-US Solidarity Network, Citizens Academy for Korean Americans, Citizens Fighting for Social Justice, Coalition for Peace Action,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CODEPINK, Community Organizing Center, East Point Peace Academy,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FOR-USA), Friends Peace Teams-Asia West Pacific, Global Ministries of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and United Church of Christ,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Grassroots Global Justice Alliance, Hawai'i Peace and Justice, INOCHI / NoWarWithNorthKorea.org, Interfaith Alliance of the Ozarks, International Action Center, KANCC-Washington Regional Association, Katarungan, Korea Peace Committee of Korean Council of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 Peace Network,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orean American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Korean American Support Committee, Korean Americans for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KAPP), KPNGN PNW, MADRE Nabi USA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KA), Network for Peace & Unification in USA, New England Korea Peace Campaign, No War! No Sanction!, Nodutdol, O'ahu Water Protectors, Parallax Perspectives, Pax Christi UpState New York, Pax Christi USA, Peace Action, Peace Action Bay Ridge, Peace Action Broome County, Peace Action Chicago Area, Peace Action on Maine, Peace Action Massachusetts, Peace Action Michigan, Peace Action Network of Lancaster, Peace Action New Hampshire, Peace Action New Jersey, Peace Action New York State, Peace Action North Carolina, Peace Action Sacramento Area, Peace Action Wisconsin, Peace and Freedom Party, on the California Ballot, Peace, Justice, Sustainability NOW!, Peace21, PEACEWORKERS, PeaceWorks, Kansas City, Philadelphia Peace Plaza Committee, Popular Resistance, Presbyterians Peace Network for Korea (PPNK_), SASASE-Chicago, Seattle Evergreen Coalition, The Least of These Church (Manhattan), TLTC Justice & Peace Committee,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nited Methodist Church, Utah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Veterans For Peace, Veterans For Peace - NYC Chapter 34, Veterans For Peace Chapter 113-Hawai'i, Veterans For Peace Phil Berrigan Memorial Chapter, VFP#35, War Prevention Initiative, Washington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Issues,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Women for Genuine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U.S. Section, Women's Voices, Women Speak, Workers World Party, World Resource Center,

국제 단체 (76개)

6.15 Japanese Committee, 6.15 Overseas Committee, Blue Banner, Mongolian NGO, Bolivian Women's Efforts: Local Contributions for a Safer World, Commission 4-International League of Peoples' Struggles, Canada, European Chartered Engineer for Water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ustria, Fre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Spain,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Guam, I Hagan Famalao'an Guahan, Inc., Guam, Independent 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IFOR), International No to war - no to NATO network,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K-PA Global Network, KCRC Shanghai, China, Korea P

peace Now!, Korea Verband, Germany,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Koreanische Friedensgruppe in Deutschland (Women for Peace in Germany), Koreans for Woori Schools, Canada, Marrickville Peace Group, Australia, Netzwerk der Koreaner in Deutschland, Germany, 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Pax Christi Australia, Peace Boat, Japan, Peace Depot Inc., Japan, Peace Philosophy Centre, Canada, Peace Posse, Peace Treaty Now (PTN), Peace Women Partners Inc., Philippines, Peasia (Peace for East Asia), Canada, Philippine Women's Network for Peace & Security, PUAC, Canada, Rochdale and Littleborough Peace Group, United Kingdom, SASASE Ottawa, Canada, Solidarity of Korean People in Europe,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The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of Korea, The Korean Democratic Women's Association in Japa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oronto Minjoo Forum, Canada, URI COREA, France, WILPF Kyoto, Japa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Worker-Communist Party of Iraq, World BEYOND War, 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東京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東アジア市民連帯, 米軍基地に反対する運動をとおして沖縄と韓国の民衆連帯をめざす会(沖韓民衆連), 福島訪朝者の集い, 日朝友好連帯群馬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埼玉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静岡県民会議, 日朝友好福島県民会議, 日朝友好北海道民会議, 日朝国交正常化早実現市民連帯大阪, 日朝国交正常化推進神奈川県民の会, 日朝学術教育交流協会, 日朝教育文化交流を進める愛知の会, 日韓民衆連帯全国ネットワーク, 在日朝鮮人作家を読む会, 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東京本部, 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 朝鮮統一支持長野県民会議, 朝鮮の自主的は英和統一を支持する日本委員会, 朝学校支援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 村山談話を継承し発展させる会, 平和憲法を守る荒川の会, 「憲法」を愛する女性ネット, 憲法を生かす会東京連絡会, 強制動員問題解決と過去清算のための共同行動, ノレの会, ふえみん婦人民主クラブ,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올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전면 중단하라!”

오늘부터 2022년도 상반기 한미연합연습이 시행된다. 4월 12일부터 실시된 위기관리연습에 이어 28일까지 지휘소 연습 위주로 실시된다고 한다. 대규모의 야외 실기동 훈련 없이 실시함으로써 공세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나 지휘소 연습이라지만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는 작전계획 5015를 익히기 위한 전쟁연습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남북, 북미 대결과 한반도 위기를 격화시키고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 강화로 북미 간 강대강 대결이 격화되어 온 데 이어 북한이 4년 남짓의 유예를 깨고 ICBM을 시험발사하고 이에 한미 군 당국이 군사적 위협(엘러펀드 워크 등)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오버랩되고 ‘대북제재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골드버그가 주한 미 대사로 임명되는 등 소위 한반도 4월 위기설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실시된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연합연습의 위기로의 격화와 전쟁으로의 고위발성에 우리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먼저 우리는 ICBM을 시험발사한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ICBM 시험발사가 미국의 계속되는 제재와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항의하고 남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새판짜기를 의도한 것이라고 해도 당장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조성하고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 통일에 역행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북한이 선언(2017.11.29.)한 대로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다면 이는 북한이 한미 등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ICBM 시험발사가 정치군사적으로 긴요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추가적인 ICBM 발사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완전히 닫히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북한이 다시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렇다고 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올 한미연합 전쟁연습 시행을 결코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가장 공세적이고 무력적인 수단으로 북한 핵보유의 원인을 제공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는 근본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그 자체로는 한미와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지 않는 반면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대북 선제공격과 인민군 격멸, 체제 전복, 점령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를 수행하기 위한 연습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인력과 영토,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성명을 낸 것은 위협 개념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서 나온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통합방위법은 2조에서 도발을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 위협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특별히 한미일 영토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면 이를 한미일에 대한 도발은 물론 위협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대북 선제공격과 인민군 격멸, 체제 전복, 점령 등 명백히 대북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로 볼 수 있다. 러시아·벨라루스 연합연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진 사례도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위협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미가 침공·도발·위협 등의 대결적, 군사적 방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도, 한미연합 전쟁연습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데도 한미연합군은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한미연합군의 새 작전계획은 여전히 대북 선제공격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공격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22. 3.31). 이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방어를 넘어 오키나와, 괌 등의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중국 동북부에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해 발사되는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과,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의 미중 무력 충돌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한반도 역외 작전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새로운 작전계획이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을 수행하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내외의 위기관리권도 계속 행사하려 들 것이며, 이에 위기관리범위를 '미국 유사'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다 노골화할 것이다. 현재 한미 국방 당국 간 위기관리권한과 절차, 적용범위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이 제시한 전략기획지시에 의거해 수립되는 새 작전계획 수립에서 유엔군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위기관리권한을 행사하고 위기관리범위도 '미국 유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동원된 미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함정들과 전개한 해상 연합연습도 새로운 작전계획과 연습이 갖는 한반도 역외작전적 성격을 예고해 주고 있다. 2019년 상반기 한미연합 전쟁연습에서도 한미 양국군이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올 한미연합 전쟁연습에서는 훈련 장소가 동해 남쪽 해상이라는 점에서 오키나와보다는 일본 본토 미군기지나 괌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영해에서 한미일 연합연습을 진행하자는 미국의 무모한 요구를 한국이 거부한 것은 그나마 바른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합연습은 한국군이 미일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동원될 가능성과 한국이 한미일 미사일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을 향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

한국이 대북 선제공격과 미일 방어에 동원되는 모험주의적인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에 말려들어 가는 것은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대결과 위기를 조장, 확대하는 무책임한 선동적 주장에 기대여 미국의 이른바 확장억제정책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은 핵선제 사용(First-Use)과 핵군비경쟁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정책으로 그 끝은 남북미를 끊없는 안보딜레마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중국에는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하는 정책이다. 더욱이 바이든 정권이 최근 발표한 핵태세보고서(NPR)에서 핵선제공격을 고수함에 따라 남북미가 핵선제공격전략으로 맞서는 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은 미국이 이미 실전배치한 B61-12, W-76-2 등의 이른바 저위력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만큼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은 증폭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미 본토 방어와 대만 유사시 등 한반도 역외작전에 동원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과도 같은 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과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동원 가능성을 막아야 했으나 끝내 그 길을 터주고 말았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패착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의 산물이다. 그는 2018년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평양선언/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서까지 ‘힘에 의한 평화’를 외쳤다. 거제도 안창호 중형 잠수함 진수식(2018.9.15.)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며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 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힘에 의한 평화’와 짝을 이루면서 이의 구현을 뒷받침해 주는 정책이 소위 억제정책이다. 억제정책은 힘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해 상대가 그 의지와 능력을 믿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달리 말해서 상대를 겁주고 위협해 이른바 ‘도발’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적대하는 국가들이 상호 간에 힘을 과시하고 위협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필히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대에 매달릴수록 위협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어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과거 미소 간, 현 미중 간, 남북 간 군비경쟁은 모두 ‘힘에 의한 평화’와 억제정책의 산물이나 이를 통해 안보 위협이 해결되기는커녕 전략과 전력에서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대결과 위협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도 역대 정권을 능가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대북 공세전력을 도입하며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매달렸으며, 그 결과는 판문점/평양선언의 참담한 파탄뿐이다.

그러나 강한 군사력으로만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는 시대착오적이며 스스로 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도 전면 배치된다. ‘힘에 의한 평화’는 전쟁이 합법이고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하지 못했던 시대에서나 그나마 허용될 수 있었던 주장으로 유엔헌장에 의해 전쟁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핵전쟁과 핵무기 못잡은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전쟁으로 인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 늦어도 2차 세계대전과 유엔헌장 채택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국제사회에서 배척받아 온 안보관이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과 성과를 전면 부정한 윤석열 차기 정권은,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힘에 의한 평화 정책만은 금과옥조로 계승할 모양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에 대한 지나친 경도도 모자라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는 개념이 모호하나 가치적·다자적·기능적·영역적·지역적 안보 영역을 망라하는 중층적 목적과 임무를 가진 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해저에서 우주까지, 한반도에서 태평양·인도를 넘어 전 세계로, 쌍무적 동맹관계에서 다자 간 동맹관계로, 재래식전에서 대테러전이나 사이버전으로, (시장)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까지 모든 군사 분야에 걸쳐 임무를 갖게 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될 요

구한다. 한마디로 미국을 쫓고 뒷받침해주기 위해 무한대의 임무와 군비를 갖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과 통일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대북 선제공격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외작전, 한국군의 북미, 미중 대결에의 군사적 개입은 대한민국 헌법, 유엔헌장, 헤이그법 등 국내법, 국제법 위반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역내외 분쟁에 한국군이 미군의 뒤를 쫓아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국가와 민족, 민중의 삶에서 희망과 생명을 앗아 버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수구적인 대미 추종과 대북 대결 정책에서 벗어나 판문점/평양선언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추구해 가기를 강력히 당부한다. 그 길은 냉전의 산물인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고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근거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한미연합연습을 한국군 단독의 방어작전연습으로 대체하고 군사합의서를 공세 전력의 후방배치와 감축을 담는 내용으로 발전시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열리게 될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 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여성시민사회 성명서]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분법으로 인한 강고한 성차별은 물론 다양한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통해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치를 담은 법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뜨겁고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차별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차별과 혐오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이들의 언어를 활용했고 엄연히 존재하는 성차별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선 이후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성차별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공약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헌법에 명시된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부처이다.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과 인력이지만 현재 부여된 성평등 정책과 청소년/가족정책,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등 성차별 시정과 성평등 관점에서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능을 다해왔다. 하지만 설치 이후 20여년 동안 여가부는 끊임없이 폐지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성차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성별을 남성과 여성 둘로만 나눈,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와 배제가 성차별이고 이는 여전히 강고하다. 채용성차별, 저임금·불안정에 치우친 ‘여성’일자리, 각종 사회위기에서의 여성노동자 우선해고와 고용단절, 유리천장과 낮은 대표성, 독박돌봄의 결과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로 나타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젠더기반 폭력은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여성들의 현실은 성평등 정책의 전면화, 이를 전담할 부처의 강화를 가리키고 있지만 윤당선인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고수하고 있다. 차별의 작동 방식을 발견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지만 이들이 표를 위한 정치로 오히려 차별과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이용함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치하고 있는 동안 차별은 오늘도 여성과 사회적약자의 삶을 위협하고 이들을 거리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여성들이 장애인들이 청년들이 성소수자들이 이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차별을 말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운운하며 왜곡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헌법에 반하는 것은 '비장애 이성애 남성 중심' 기존 사회 질서다.

15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의 요구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통해 시작되었고 연대의 힘으로 지속되어왔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부터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위해 이종걸(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과 미류(인권운동사랑) 두 활동가가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위기 돌봄의 위기는 인간중심, 남성중심,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결과이다. 정치가 차별과 혐오에 동조할 때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국회는 혐오세력의 눈치보기로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한다는 오명을 벗고 4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에 동참하라. 바로지금!

2022년 4월 19일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울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 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울산여성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청각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전국 94개 여성단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입장문 연명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30년 넘도록 변함없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오랜 침묵을 깨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세상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매주 수요시위에 참석하신 이유는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되며 '이 땅에 전쟁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뜻을 이어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이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30년간 수요시위를 함께 지켜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수요시위는 미래세대들이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인권·평화 교육의 공간이자, 국경을 넘어선 세계 시민들의 연대의 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수요시위는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로 받고 있다. 역사부정세력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명예 훼손과 모욕으로 평화의 장인 수요시위를 혐오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수요시위 중단’을 목적으로 평화로 부근 모든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소음 방출, 비방과 혐오 발언, 폭력 유발 행위 등을 심각하게 자행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나눔의집, 수원시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소녀상이 세워진 지역의 고등학교 앞 등에 몰려가 부정과 혐오의 언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13일 긴급구제결정을 통해 경찰에게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또한 반대집회 주최측 일부가 장소를 선점만 하고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서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법률을 집행해야 할 주무서인 종로경찰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 선순위만을 언급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현재 역사부정세력은 서로 다른 단체명으로 신고하고 일부는 그 시간대에 실제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는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즉각 정의연이 요청한 시위 시간과 장소 분할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해 수요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요시위를 향해 자행되는 차별과 혐오 발언, 모욕과 명예훼손, 근거 없는 공격과 비방은 피해자와 활동가, 수요시위 참석 시민들을 공격하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한국정부와 경찰은 그간 인류가 평화와 인권을 위해 싸워 오며 성취한 역사적 진실을 이들 역사부정세력들이 뒤흔들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수요시위 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수요시위 30년의 역사는 단지 한 단체만의 의지로 이룬 것이 아닌,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세계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우리 모두의 역사다. 우리는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역사부정세력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와 역사부정 행태에 맞서 역사교육의 장, 인권교육의 장, 평화교육의 장, 전 세계 시민연대의 장인 수요시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평화로운 수요시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요시위 공격과 방해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반인도적 전쟁범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 공식사죄,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와 경찰은 수요시위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라!

2022년 4월 20일

제단체

水曜デモの正常化を求める記者会見

1992년 1월 8日から始まった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水曜デモは、30年を越えて変わることなく駐韓日本大使館前で平和的に行われている。日本軍性奴隷制被害者は長い沈黙を破って苦痛に満ちた記憶を呼び起こし、日本軍の戦争犯罪を世に告発した。被害者たちが痛む身体を引きずって毎週水曜デモに参加された理由は再び「自分たちと同じ被害者が出て」きてはならず、「この地に戦争のない真の平和がくることを願う」という切実な思いからだ。

被害者の勇気と意思を継いで全世界の数多くの市民が日本政府の責任認定、公式謝罪と法的賠償、被害者の人権と名誉回復を要求して30年間水曜デモをともに見守ってきた。そして今日水曜デモは未来世代が人権と平和の重要性を学ぶ生きた歴史・人権・平和教育の空間であり、国境を越えた世界市民の連帯の場として拡大された。

しかし、この数年間水曜デモは歴史否定勢力からあらゆる攻撃と妨害を受けている。歴史否定勢力は「『慰安婦』はウソ」、「詐欺」として歴史的事実を否定することはもちろん、被害者に対する名誉毀損と侮辱で平和の場である水曜デモを嫌悪で汚している。彼らは2020年5月から現在まで「水曜デモ中断」を目的に平和路近辺のすべての場所に集会申告を先行して行い、騒音、誹謗と嫌悪発言、暴力誘発行為などを過剰に行い、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運動を執拗に攻撃している。これらはソウルだけでなく京畿道ナムヌの家、水原市 安点順記憶の部屋、少女像が立てられた地域の高等学校前などに群がって不正と嫌悪の言語を拡散している。

このような状況に国家人権委員会は1月13日緊急救済決定を通じて警察に「水曜デモの妨害にならないように反対集会の主催側に時間と場所を別にすることを積極的に勧め」た。また、反対集会の主催側の一部が場所を先行獲得だけして何の集会も行わないという点を指摘して、同じ場所と同じ時間に継続的に集会を開催できなければ水曜デモの目的と歴史性が失われることを憂慮した。

これは「集会およびデモに関する法律」第8条2項でも同様に明示されているが、法律を執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主務所である鍾路警察署はいまだにしかるべき措置を取らず、申告の順位だけに言及してその責任と義務を放棄している。

現在、歴史否定勢力はそれぞれ違う団体名で申告を行い、一部はその時間帯に集会をしないでいる。

虚偽申告は現行法により過料賦課もしくは処罰対象だ。警察は直ちに正義連が要請したデモの時間と場所の分割および虚偽申告に対する措置などを実施して水曜デモ保障方案を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水曜デモに対して行われている差別と嫌悪発言、侮辱と名誉毀損、根拠のない攻撃と誹謗は被害者と活動家、水曜デモに参加する市民たちを攻撃する問題を越えて大韓民国の歴史と民主主義の根幹を揺るがす。韓国政府と警察はこの間人類が平和と人権のために闘い、成就してきた歴史的眞実を彼ら歴史否定勢力が揺るがして、被害者の名誉を傷つけている状況をこれ以上放置することなく、より積極的な措置をとることによって水曜デモ保障の義務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

水曜デモ30年の歴史は単にひとつの団体の意志で成し遂げられたものではない、日本軍性奴隷制問題の正しい解決を望む世界市民がともにつくってきた私たちみんなの歴史だ。私たちは組織的で全方向的に行われている歴史否定勢力の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名誉毀損行為と歴史否定形態に対抗して歴史教育の場、人権教育の場、平和教育の場、全世界市民連帯の場である水曜デモを守るために最後まで闘い抜く。

一日も早く正常化して平和な水曜デモが持続できるよう、水曜デモ攻撃と妨害に対する警察の強力な措置を要求する。

－日本政府は反人道的戦争犯罪である日本軍性奴隷制問題に対して公式謝罪、法的賠償を行え！

－韓国政府と警察は水曜デモの正常化のために積極的に取り組み！

2022年4月20日

Press Conference urging restoration of the Wednesday Demonstration

The Wednesday Demonstration, which started on January 8, 1992, has continued peacefully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for more than 30 years.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urvivors broke decades of silence and unearthed painful memories to come forward to the world, raising awareness of the Japanese military's war crimes. They participated in the Wednesday Demonstration with hopes that there would be "no more victims" like them and that "true peace without war would prevail."

Numerous citizens who inherited the courage and will of victim-survivors have continued the Wednesday Demonstration for 30 years and demanded the Japanese government's acknowledgment of responsibility, official apology, legal reparations, and redress. The Wednesday Demonstration has become a space of education where future generations learn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peace and space of solidarity with global citizens across borders.

Over the past few years, however, the Wednesday Demonstration has faced all kinds of attacks and counter-protests from historical denialists. The denialists are denying the historical truth, claiming that "comfort women are false" and "fraudulent." They defame victim-survivors and stain the peaceful Wednesday Demonstration with hatred. With the purpose of "stopping the Wednesday Demonstration," they have been registering counter-protests all over Peace Road since May 2020 and making loud noises, committing slander, hate speech, and acts inciting violence, and persistently attacking the movement for justice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ey have been spreading the language of denial and hatred and staging counter-protests not only in Seoul but also at the House of Sharing in Gyeonggi Province, the Yongdam Ahn Jeom-soon Memorial Hall in Suwon, and high schools where Statues of Peace have been established.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ssued an emergency relief decision on January 13, which recommended that the police take proactive measures to ensure the Wednesday Demonstration from counter-protesters, through recommending a different time and space for counter-protesters to minimize interference with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Noting that some of the counter-protesters are taking over the location without actually holding the protest, the decision expressed concerns that the purpose and historical importance of the Wednesday Demonstration would be lost if it cannot be held at the same time and place.

Such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is also stated in Article 8 (2)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owever, the Jongno Police Station, which is in charge of enforcing the law, fails to take proper measures but neglects i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citing only the first-come first-serve order of registration.

Historical denialists are registering their counter-protests under different group names, and some are not holding actual protests at the registered time. False registrations are subject to fines and punishments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police should immediately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he Wednesday Demonstration by allocating different demonstration times and spaces and taking measures against false registrations.

The discrimination, hate speech, insults, defamation, baseless attacks, and slander against the Wednesday Demonstration are not just attacks on victims, activists, and participants but also a disruption to the foundation of Korea's history and democracy. The Korean government and police should no longer turn a blind eye to historical denialists defaming victim-survivors and shaking the historical truth that humankind has achieved through struggles for peace and human rights. They must execute more proactive measure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in ensuring the Wednesday Demonstration.

The 30-year history of the Wednesday Demonstration is a history of all, built by global citizens who called for just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rather than just one organization. We will continue to fight to restore the Wednesday Demonstration – a space of history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peace education, and global solidarity – against historical denialists' systematically organized defamations agains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urvivors and denial.

We demand strong measures from the police on the attacks and counter-protests so that the Wednesday Demonstration can continue peacefully.

-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officially apologize and make legal reparations for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 war crime against humanity!
- The Korean government and police must take proactive action to ensure the Wednesday Demonstration!

April 20, 2022

연명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1519명의 시민 및 244개 단체
(한국 209단체, 해외17단체, 일본18단체)

[2022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Stop arms race, Give peace a chance”

전 세계가 전쟁을 목도하고 군사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평화에게 기회를 주자’고 다시 한 번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8주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지금까지 5,381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470명은 어린이라고 합니다(4월 22일 기준).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들도 약 5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 받아 왔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은 멈춰야 합니다.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가 군사비를 삭감하고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전 세계의 동료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오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2조 1,13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국가로 2013년부터 9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군사비 지출 역시 2.8%로, 10위권 국가 중에서도 높은 비율입니다.

유럽 각국과 미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분으로 국방 예산 증액과 각종 무기 도입을 공식화하여 군비 증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산 업체의 주가 역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쟁을 예방할 수도,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군비 경쟁을 가속하여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 구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2017년 약 40조 원이었던 국방비는 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2022년 약 55조 원으로 늘어났고, 특히 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남북의 군사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남북, 북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결국 북한은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였고 한반도 상황은 판문점선언 이전의 대결 국면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킬체인 등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복원, 한국군 사드 배치,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은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제재라는

실패한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접근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북한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며, 2021년 한국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금액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할 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예산과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군사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 '평화 공존'을 위해 재조정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첨단 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지출하는 동안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기후 위기나 재난 대응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진화 헬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 예산의 대대적인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2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지수는 심각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현실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원을 군비 증강이 아니라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듭시다.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남북 합의 이행과 대화 재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2년 세계군축행동의 날, 전 세계 곳곳의 시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2022년 4월 25일

2022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강정평화네트워크, 경청과 사랑 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군산평화박물관, 기독교청년아카데미, 녹색연합,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외병,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성산환경을지키는사람들, 실천불교승가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녹색당,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앗, 제주풀무질, 진보 3.0,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 통일나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평화바다, 평화바람,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에클레시아생명학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총 39개 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고려인 동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의 긴급 구호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60일을 넘어가며 민간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산업시설은 물론 병원과 학교마저 무차별 포격과 포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고통 받는 민간인들 가운데는 2만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우크라이나를 떠나 폴란드, 루마니아 등 주변국과 유럽 각지로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 동포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등 연고가 있는 모국, 한국으로의 귀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피난 과정에서 여권 등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챙기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정부는 초기에는 서류 미비를 따지며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모국 귀환을 쉽사리 허가해 주지 않았으나, 재외동포 지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은 사증 발급 간소화, 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등의 전향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추가 조치를 우리정부가 취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모국 귀환을 원하는 모든 우크라이나 고려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포괄적 입국을 허용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친척이나 가족 등 연고가 있는 피난 동포들에게만 여행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연고가 없는 동포들의 귀환도 허용돼야 합니다. 더불어 소비에트가 붕괴되며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처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고려인들, 행정체계 붕괴로 관계증빙이 어려운 동포 가족들에게도 포괄적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둘째, 모국으로 귀환하는 동포들에게 전세비행기와 항공료를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귀환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항공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동포들이 대다수입니다. 일부는 한국에 있는 친인척이나 가족들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3-4명에 이르는 일가족 전체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와 협의, 전세비행기를 제공하고 항공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유럽 피난지에 있는 고려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구호를 시급히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에는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천명의 동포들이 있지만, 자세한 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루 빨리 유럽 현지의 상황을 조사하고, 피난민들에 대한 임시 숙소,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모국으로 귀환하는 동포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입국 피난 동포들에 대해 최소 6개월 정도의 임시 숙소 제공, 긴급생계비, 의료 보험 감면과 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경우 모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이 전쟁의 공포를 뒤로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고려인지원단체 (사) 너머 / 대한고려인협회 / 경북고려인통합지원센터 / 광주이주민종합지원센터 / 포승고려인마을 / (사) 더큰이웃 아시아 / 인천고려인문화원 / 초록별어린이협동조합 /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 동대문외국인지원센터 / 경북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 러시아인 걸리지 / (사) 희년재단 / 광주진보연대 / 동북아평화연대 / 기아대책 / 남양글로벌아시아센터 / 다움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민족문제연구소 / (사) 안산여성노동자회 / (사) 국제푸른나무 / 아시아의 친구들 / 사단법인 뉴코리아 / 사단법인 하나누리 / 사단법인 우리민족 / (사) 광주평화재단 / 생활성서사 / 시민평화포럼 /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 안산 YMCA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이주민노동인권센터 / 재단법인 함께나누는세상 / 지역사교육연구소 / 평등평화세상 온다 / 평화 3000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화성아이쿱 / 흥사단 / (사) 남북나눔 / KIN(지구촌 동포연대) / (사) 아태평화교류협회 / (사) 어린이어깨동무 / YMCA 전국연맹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참여연대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 생명평화위원회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한국종교인연대 / 한국생명의 전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한국자살예방협회 / 불교상담개발원 / 자비의 전화 /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꽃동네 / 생명존중시민사회 / 성균관선비문화학회 / 천주교주교회의생명위원회 / 서울꽃동네사랑의집 / 한국청소년자살예방협회 / 생명사랑연대 / 나눔국민운동본부 / 나누고베풀고봉사하는그룹 / 원다문화센터 / (사) 최재형기념사업회 / 선문대학교 사회봉사센터 / (사) 오픈월드 - 71개 단체

[공동입장문]
**북한 주민을 위한 코로나 방역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발열자 수는 148만 3,060여 명이며, 56명이 사망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 제재와 자연재해, 국경 봉쇄에 이어 코로나 확산으로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20년부터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어왔고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제재 조치를 추가했다. 금융 제재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남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방역·보건 협력을 제안해왔지만, 관계 개선이나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군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재개하였고,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지속해왔다. 남북·북미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신뢰가 무너지고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남북이 2018년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은 뼈아픈 일이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는 의약품과 방역 물품, 진단 장비, 백신 등을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백신 접종률은 0%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치사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접종자의 치사율은 10배 이상 높다. 보건 인프라가 취약하고 진단 장비, 기초 의약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사망률과 감염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남한 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에서 북한이 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 물밑 접촉은 물론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능동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시급히 대북 제재 완화와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 강도 높은 제재와 남북·북미 관계 악화는 급속히 확산하는 전염병에 대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했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국가라도 방역에 실패해 걸잡을 수 없이 번지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감염병은 다자간 협력이나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라도 제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더불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부 역시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봉쇄만으로는 확산하는 바이러스를 빠르게 막을 수 없다. 코로나 관련 대화와 협력 제의에 화답하여 함께 문제 해결의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2년 5월 17일

시민평화포럼

고양통일나무,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단법인 조각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어깨동무,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300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운동단체 기자회견문

**우리는 인간안보를 보장할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

지난 5월 10일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여성들은 매년 돌아오는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새 정부가 "평화와 군축을 위한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마침 5월 21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동시에 북한은 2년 3개월 이상 철저한 국경 봉쇄를 통해 유입을 막으려 노력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러한 때에 윤석열 정부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기조로 하여 외교, 안보 영역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바라며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은 이제 시작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를 공개한 만큼 한국정부는 민관 차원에서 방역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되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적 위기가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긴급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모니터링을 강조하거나 이른바 '원칙이 있는 접근'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방역물품, 진단키트, 치료제 등을 빠른 시일 내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보는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군인들에 대한) 정신전력 극대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 혹은 '주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대결을, 이를 위한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이 채택한 헌법적 의무인 평화적 통일의 파트너이자, 특별히 평화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공존과 공생의 동반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보는 관점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할 때라야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 평화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7.4 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 남북공동선언(2000), 10.4 선언(2007),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이상 2018년) 등 지난 50년 동안 남북 사이에 채택된 합의나 정상들의 공동선언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북한의 선비핵화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이미 실패로 드러난 ‘선 북한 비핵화, 후 남북관계 정상화’ 정책을 거둬들이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전쟁 종식, 그리고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네째,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 차원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들은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취약한 평화’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반대한다. 전쟁은 마지막 선택의 수단이나 가능성으로도 고려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핵전쟁을 의미하며 그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절멸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남북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뤄온 모든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 북한의 핵무력이 강화되면서 남한에도 핵무기 개발이나 한미동맹에 의한 확장억지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확장 억지가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은 냉전 시대 동서의 핵군비 경쟁의 경험이 보여줬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기 증가를 통한 공포의 균형”이나 “전쟁을 준비하는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다. 우리는 전쟁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외교, 대화와 협상을 선택하는 정부를 원한다.

다섯째, 윤석열 정부는 고조되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어느 한쪽이 치우치거나 선택을 하지 않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면서, 자유와 인권 가치의 외교를 시사했다.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는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충돌되는 동아시아, 특별히 중간에 낀 대한민국의 외교적 선택을 매우 협소하게 만들고, 결국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의 인도-태평양 전략,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과 군사동맹을 표방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선택은 남북분단의 평화적 해결과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가 유지해 온 균형 외교를 이어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계승하고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인도주의적 지원 외 정치·군사적 개입이나 미군을 통한 무기 지원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질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나 동아시아의 평화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미군을 통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고 전쟁에 연루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의 평화적 해결, 대화와 외교적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귀결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윤석열 정부는 통일, 외교, 안보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은 전통적 평화와 안보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고 정부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안전과 일상의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만들어 갈 정치적 주체로 참여하고자 한다. 통일·외교·안보 부처만이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유통하는 기존의 관행은 과감히 배제하고 시민들의 참여, 특별히 전쟁을 비롯한 무력 분쟁에서 가장 큰 피해와 희생을 겪어 온 여성들이 평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여성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통일·외교·안보 영역의 성주류화와 여성들의 평화역량 강화, 평화 과정의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출범했다. 바라건대, 모두의 남과 북,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무기와 군비, 적대정책과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인간안보를 보장할 평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의무와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2022년 5월 19일

64개 여성평화단체와 개인들(87명) (가나다순)

가치교육연구소'숨',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포여성의전화, 노틀담수녀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사단법인녹색평화연합, 사단법인디딤돌장애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포항여성회, (사)한국민예총,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겨레하나,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심자매회,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여성회, 수원여성회, 아카데미할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JPIC, 예수성심시녀회, 울산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에클레시아생명학연구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간사회센터정의분과, 한국YMCA전국연맹, 6.15남측위국제연대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여성본부, 6.15전남본부평화통일교육센터,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강경란(정의기억연대), 고유경, 고현, 구지혜(한국여성단체연합), 권계영(통일의길), 권수현, 김경선, 김귀옥(한성대), 김경희, 김기호(사단법인녹색평화연합이사장), 김다미, 김명화(평통사), 김민문정, 김민영(한국YMCA전국연맹), 김선실,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영재, 김유나, 김윤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아, 김태훈(평화통일연대), 김현수(한국여성단체연합), 김화순(성공회대학교민주자료관), 김희경, 남은주(대구여성회), 남윤주, 남윤진, 박근덕, 박미성, 박민서, 박영만, 박은주(한국여성단체연합), 박종운, 박주남, 박후임, 배현주, 변준희(평화바람), 손서정(평화를만드는여성회), 신선, 안김정애, 안미정(한국교회여성연합회), 안수경(강남지역자활센터), 안종희, 양이현경,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오경진(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오경진, 유인경, 오주현, 유정애, 유현주(진보당), 윤답(예수성심시녀회), 이덕경(평화여성회), 이래경, 이미영(우리신학연구소), 이수현(다시함께상담센터), 이선희, 이수현(한국YMCA전국연맹), 이숙진, 이영분(기독교민회), 이정섭, 이종하, 이진영(사랑의씨튼수녀회), 이창호(평화통일시민연대정책위원장), 이현숙, 임미정(성가소비녀회), 임선영, 장숙자, 정태신, 정현백, 조금숙(성심수녀회), 조경자(노틀담수녀회), 조은상, 진일우, 최만자, 최은아(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최은영, 최종택(겨레하나), 최형미, 한경아, 한운석, 함필주, 홍만희, 황지원, 무소속,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지도위원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종교·시민사회의 우려는 큼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질서가 급격히 신냉전으로 빠져드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북미 합의 이행이 중단되고 경쟁적인 신형 무기 개발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도 높아진 가운데, 세계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와 함께 공급망 위기, 핵과 무기 증강까지 동반하는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미국 주도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이 더욱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2022 림팩 훈련'에 대만을 초청한 것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하는 것도 미중 전략 경쟁이 대결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처한 내외 환경은 이처럼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이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공언했는가 하면, 실질적 구상도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걸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가 합의해온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주적', '선(先) 비핵화' 등 대결 시대로 회귀한 것이나 다름없는 적대정책을 남북관계의 선결과제로 앞세움으로써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한 축으로 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대결을 불러올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가 필요합니다. 미국 중심의 배타적인 군사동맹에 전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반도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주변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패권 이익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 통일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위기를 부를 대북 강경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기동 훈련 등을 강행한다면,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여 한반도를 남북, 북미 합의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되돌리고 한반도의 핵 위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합의 당사국들은 긴장을 불러올 역내의 모든 군사 행위

를 중단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제재와 압박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2018년 남북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으며, 지금도 출발선은 여전히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부터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사적인 질서의 전환이 시작되는 지금, 한반도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남·북·미·중 등 당사국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며, 냉전의 마지막 열쇠 한반도에서부터 신냉전이 아니라 진정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참가단체 (총 153개)

13일의 지킴이,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남측위원회 경기중부본부, 6.15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측위원회 문예본부, 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남측위원회 청학본부, 6.15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남측위원회 충남본부, 가톨릭농민회, 강동연대회의(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강동들꽃향린교회·강동구평화의소녀상 시민위원회·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강동동네청년모임·파도·강동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동서울시민의힘·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동송파지회·전교조중등강동송파지회·전교조초등강동지회·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강동지회·정의당 강동구위원회·전국택배노조우체국본부강동지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강동구지부·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클린에코지회·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강동문화재단분회·민주노총서울본부남동지부·둔촌역사문화공동체, 이상 19개 단체), 개천단군평화통일연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국민주권연대, 극단 고래, 기독교대한감리회갈릴리교회,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김복동의희망, 남북교육연구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대한도덕회,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철폐 성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사)겨레하나,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노동희망발전소, (사)뉴코리아,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동학민족통일회, (사)민족사회단체협의회,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우리민족, (사)울산민예총,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흥사단,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외병,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주시민연대, 의왕희망동,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통일평화변영운동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제주민중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앗,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도교청년회,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촛불전진,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농수산,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철도, 평화통일시민회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반도평화행동, 호남의열단, DMZ평화네트워크, KIN(지구촌동포연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반대 공동기자회견문]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6/29~6/30) 참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6월 1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완곡하게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온 캐나다에 낮은 가격으로 포탄을 수출하는 등 우회적인 무기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더불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 나토 비회원국이 참여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되고, 동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러시아의 폭격으로 도시와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다.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증거들도 밝혀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비인도적인 무기인 확산탄(Cluster Bomb)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불신도 커진다. 그리고 이는 다시 적대감으로 이어져 전쟁을 키울 뿐이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하루빨리 휴전에 합의하고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휴전과 평화협상을 위한 중재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힘써왔다.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전쟁 등 21세기 우리가 목도한 모든 전쟁에서 완벽한 승자는 없었고 죽음과 고통, 폭력의 악순환이 남았다.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고 무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즉각 전투를 중단하고 휴전에 합의하여, 진정성 있게 평화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원 무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군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금지 등 국내법상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의 핵심적 기준은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만 제한된다. 현재 교전 중인 국가 일방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허가 기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 캐나다 등을 통한 우회 지원 역시 사실상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매우 나쁜 선례만을 남길 뿐이다.

살상 무기 지원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많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고 러시아군이 병력을 철수하며 평화협상을 통

해 양국의 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더불어 전쟁 피해자와 난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평화적인 재건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이에 우리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를 중단하라!
-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협상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2022년 6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5·18기념재단, 가르멜재속회, 가톨릭기후행동,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고대문화편집위원회, 고양YMCA, 공적인사적모임,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민회, 나눔문화, 다소니자립생활센터, 답엘에스: DAP LS, 대전충청 비건커뮤니티 아삭아삭, 마리아의 종 수녀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베네딕도수녀회, 부여환경연대,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사단법인이주노동희망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성바로말수도회, 성베네딕도 수도원, 수원환경운동센터,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시민모임 독립,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예수성심시녀회,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예수회, 예수공동체,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우룡센텐스, 울산교사노조 평화통일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 전교가르멜재속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작은형제회 JPIC, 재속프란치스코 인천지구 보나벤투라형제회, 전교가르멜 재속회, 전교가르멜수녀회 재속회, 전국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리산필름, 진보 3.0, 착한목자수녀회, 참여연대, 창작제작소 선, 책방토닥토닥,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뚜쟁베네딕도수녀원,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교사노동조합,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원관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KIN(지구촌동포연대) (89개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존치 결정을 염원하는
세계시민들의 요청서] “우리는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압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테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 존치 결정을 요청합니다!”**

지난 4월 28일 일-독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독일 솔츠 총리에게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로부터 10여 일 후 한국 대통령 취임 식인 5월 10일에서야 일본 산케이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한 나라의 총리가 다른 나라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시민들이 설치한 소녀상 철거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날인 5월 11일,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독일 측에 협력 요청했음을 재확인했다. 마쓰노 장관은 “계속해서 다양한 관계자에게 접근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끈질기게 설명하고, 동상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6월 14일 산케이신문은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 결성된 한국 시민단체가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소녀상 철거 시위를 위해 독일 수도 베를린을 방문”한다면서 “기시다 총리에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단체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우연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이 주도하고 있는 ‘위안부사기청산연대’(22.1.6 결성)다.

이 단체의 핵심 인사들은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 현장 바로 옆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992년 1월부터 30여 년간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수요시위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장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기억·인권·교육의 장이다.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이들은 여성 혐오적 언동,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참가자 명예훼손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면서 ‘위안부는 사기,’ ‘성노예는 없다,’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는 등 일본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평화로운 수요시위 방해와 피해자 및 참가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2022년 1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려 이들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시민들은 일본 정부와 국내외 극우 역사부정론자들이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홀로코스트 가해자들과 부정론자들이 피해 당사국의 극우 시민들과 결탁해 홀로코스트 기념비 철거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경험뿐 아니라 지금도 만연한 전시 성폭력의 현실을 전 세계 시민들이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행동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성차별과 인종차별, 계급차별과 전쟁이 교차하며 발생하는 성폭력 근절을 바라며 과거를 통해 배우고 평화를 공고히 하려는 세계 시민들의 노력과 염원의 상징이다.

이제 소녀상이 설치된 공간은 평화와 인권의 상징, 소수자·약자의 연대의 상징이 되고 있다. 성폭력에 반대하고 여성 살해에 대항하는 공간, 원주민과 유색인종 등이 함께 모여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에 반대하는 공간, 탈식민주의 투쟁을 기념하는 민주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설치 직후부터 온갖 시련을 견뎌왔다. 독일의 한국 교민단체 코리아협회의 주도하 베를린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됐지만 미테구청은 일본 정부의 항의와 우익들의 공격에 설치 2주 만에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국 교민뿐

아니라 독일의 많은 시민단체가 함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나섰고,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독일 슈뢰더 전 총리도 “잔인한 폭력의 희생자로 고통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저버리는 반역사적 결정”이라 비판했다. 이후 미테구 의회는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미테구청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설치 연장 허가를 받고 있어 자칫 철거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한편, 출범 전부터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그랜드 바겐,’ ‘포괄적 해결,’ ‘튼튼한 방식’을 공언했던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저버린 정치적 합의인 ‘2015 한일합의’를 복권시키고, 안보동맹을 빌미로 또 다른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압력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정치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립비 문제, ‘성노예’ 용어”에 관한 이면합의까지 담겨있는 일방적 합의였다. 피해자들이 30여 년 간 외쳐온 범죄사실 인정,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가해자 처벌, 기억·기념, 역사교과서 기록 등 재발 방지책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던 일본 정부는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한국을 방문한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파비안 살비올리는 6월 15일 출국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제3국(일본)’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인도에 관한 법 위반’임을 명시하고, 관련국들이 기록 공개 등 피해자들의 진실 접근권을 보장하고, 진실, 책임, 배상, 추모를 위해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진실, 정의, 완전한 배상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2015 한일정부간 합의’의 개정을 여러 차례 국제인권기구가 호소해 왔음을 다시 상기하면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효과적이고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지 한일 간의 문제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의 상징이자 세계 시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되어왔다. 만약 이대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된다면 ‘한일 갈등’의 상징으로만 기억될 것이며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존재는 다시 어둠 속에 묻힐 것이다. 나치 범죄를 직시하고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 온 독일의 역사에도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우익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전시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호 및 명예 회복을 위한 길에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평화와 인권을 향한 전 세계 시민들의 발걸음에 독일 미테구청도 함께 하리라 믿으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철거 압박에 굴하지 말고 평화의 소녀상을 적극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평화의 소녀상 영구 존치 결정을 통해,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 역사부정 세력들에게 역사적 진실과 마주해 온 독일 시민들의 역사와 흔들림 없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2022년 7월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평화의 약속 결의문> “대결로 치닫는 위기의 한반도,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듭시다”

한반도에 불신과 적대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어렵게 맺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관계는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긴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70년이 다 되어가도록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오랜 시간 대립과 긴장,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곳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천명했던 지난 2018년을 기억합니다. 70년간 이어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마침내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적대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각국이 합의 이행을 위한 의지보다는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슬픈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통한 설득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과연 각국 정부가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실제로 줄이고 협상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근 수년간 남한의 군사비는 역대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북한 GDP 총액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점점 강화되었고, 남북 교류협력도 가로막았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도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유사시 선제타격도 공공연히 언급해왔습니다. 정말 이런 방법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부는 지금 군비 경쟁과 소모적 대결의 악순환 속으로 우리 모두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한반도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도 더욱 해결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힘에 의한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70여 년 동안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걱정과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DMZ 앞에 모였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면 과거보다 더한 불신과 적대가 힘을 얻고,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놔두지 맙시다.

우리는 오늘 임진각 평화행동을 시작으로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을 끝내고 세계를 좀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평화행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길이고, 평화가 답이라고 더 크게 이야기하고 행동합시다.

다 함께 외칩시다!

적대를 멈추자!

전쟁을 끝내자!

남북·북미 정상 합의 이행하라!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

2022년 7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69년을 앞두고 임진각에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참가자 일동

[공동성명]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불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결집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수만 명의 개인,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후 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며 대응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외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전담부처 강화 필요성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두렵지 않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성평등 전담 부처 폐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일상을 안위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신당역 사건에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했어야 할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현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할 일이 산적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처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과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 다시 여성인권을 불모로 정

2022년 10월 4일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가가호호돌봄센터,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자립홈 언니네,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설산업연맹, 거레하나,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경상남도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관악여성회, 광명YWCA,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금속노조경남지부 거동고조선하청지회, 기독교여민회, 김복동의 희망,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나무그늘,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노동건강연대,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병원지부, 녹색연합,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시함께상담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연우암공동체,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합, 동백작은학교, 두레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막달레나공동체, 문화연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 노조 강동성심병원지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백래시공동대책위원회 팀《해일》, 보건의료노조 강동경희대학교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드림스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불꽃페미액션,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디딤장애여성인권지원센터, 사)부천여성노동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수원여성인권돋움,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창원여성회, 사)통일맞이,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단법인 전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진해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평화의섬, 사단법인부산성폭력상담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천여성회, 사회건강연구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립중앙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울아산병원 노동조합, 서울여성회, 서폐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노동자해방행동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수원여성회, 송실대학교 학내 여성운동활동팀 "적토마",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름다운교육나눔사회적협동조합,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성가족상담소, 에스아시아이신용정보노동조합,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의당,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여성환경연대,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여울여성희망센터, 여협방역대, 역사문제연구소,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현대사분과,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여울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침차리,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폭력상담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유니브페미, 음성민중연대,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익산여성의쉼터,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회, 인천인권영화제, 일반노동조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활지원센터넉굴, 전교조 경남지부 양산중등지회, 전교조 인천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성평등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동양생명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롯데카드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신한라이프생명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 전국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일산열차승무지부, 전남이주여성상담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정의당 동대문구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제주여민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합예술단 봄날,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해성폭력상담소, 진해YWCA, 징검다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연대, 창원녹색당, 창원민예총, 창원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철도노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개네, 청주YWCA, 춘천길잡이의 집,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친구사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파주여성민우회,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페미니즘동아리 페미니-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센터하나,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피소모모,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

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집, 한국여성인권플러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성가족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페미니스트, 행복중심진해생협, 화성여성회,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수도권지부 성평등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휴먼케어, 휴먼케어센터, 희희낙낙상담소, ABL생명보험노조, PIGS,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달빛공방, (사)인권희망강강술래, (사)전주여성의전화, (사)진해여성의전화,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탁틴내일, (사)포항여성회, 1366전남센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한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과거사 졸속 해결과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 기간중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주권 침해 우려 없이 해결’하겠다,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선에 두는가 하면,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진행중인 대법원에 ‘양국간 협의가 진행중이다’면서 ‘신중한 판단’을 압박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국민적 심판속에서 사실상 폐기된 ‘2015 한일합의’의 합의정신에 따라 한일관계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유엔총회 기간 중 기시다 총리의 숙소로 찾아가 양국 국기도 없이 약식으로 30분 회동을 진행하면서 ‘한일 관계의 조속한 해결’만을 공언하고 돌아온 것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였습니다.

한국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하는 사이 일본은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고압적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한일 정상간의 회동에 대해서도 일본 정가와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애원하여 만나주었다’며 ‘스토커 외교’라는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2018년 10월 30일, 한일수교조약 당시의 불완전한 사죄와 배상을 보완하여 일본 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결정했던 한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피해국에 적반하장식의 수출규제로 대응하며 재무장에 몰두하는 일본의 오만방자한 행태, 과거 일제 식민 범죄 해결은 외면한 채 가해자에게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사대적 태도는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사죄배상 요구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것은 물론, 일제 식민 범죄의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 염원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일 과거사 문제의 졸속 해결과 더불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대한 역사왜곡과 현재 군사대국화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재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9월 30일, 5년만에 독도 앞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항공모함과 연계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였고, 10월 6일 다시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도 한국 해군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과의 군사적 전투훈련은 없다”고 했던 한국군은 최근 다국적 훈련의 외피속에서 일본과의 전투훈련을 수시로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은 미국-일본-필리핀 상륙작전까지 참여, 중국을 자극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자해적 조치에 다름아닙니다. 강대국들의 각축과 세계적인 전쟁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주권과 평화를 향한 균형있는 외교가 절실합니다.

독도 등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과거 침략과 식민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구걸하고,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할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일파의 범죄를 이 시대에 되풀이하는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들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거듭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일본의 요구에 맞게 졸속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이른바 ‘가치 외교’의 미명 아래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주려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고 역사왜곡 추세를 가속화 할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동맹 구축 움직임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사죄, 배상하라!
-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 방해 말고, 졸속 해결 추진을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가해자에 관계개선 구걸하는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뒷받침하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2년 10월 25일

선언 동참 단체 및 개인

(사)겨레하나,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대전민예총,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13일의 지킴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목포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KIN(지구촌동포연대), NCK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감리교목회자회,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설기계노조,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부산지구,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겨레하나, 경남민주교수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험과상상,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연대 노동조합 울산본부, 공연제작소 사람들,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 6월항쟁,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사노조연맹,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영여성회, 국민연금노동조합 부울지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금속/울산/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김복동의 희망,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난민안전연구소,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문제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민예총,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 대학생연합,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전통일의병, 대전평화여성회, 대학생자주모임`한가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화연락소, 도서출판 품, 동아대학교민주동맹회, 디아스포라연구소, 디자인 밝은세상,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문화공동체 더나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 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 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 민주노련 남동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구목련지역, 민주노련 대구신매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결혼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농협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동서1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동서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동서3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불로장생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성바오로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용두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제기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제기극장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청량리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청량리역전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 민주노련 동작지역 민주노련 말바우지역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밀양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동부 길음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 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 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 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 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 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 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 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 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 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 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 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 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 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 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 민주노련 송파지역 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 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 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 민주노련 시흥지역 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 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 민주노련 안산 다문화지부 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 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 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 민주노련 안산지역 민주노련 양주지역 민주노련 여수지역 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 민주노련 영등포지역 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 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지역 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 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 민주노련 인천서부 민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 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 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 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 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 민주노련 종

로 이스턴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 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
 로 창신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 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 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 민주
 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지역 민주노련 죽도지역 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 민주노련 중
 부 덕수 지부 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 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 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 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 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 민주노련
 중부지역 민주노련 지산지역 민주노련 진주지역 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 민주
 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
 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 민주노련 충청 중앙
 로 지부 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 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 민주노련 충청 향남 지부 민주노련 태평백화점 주변(동작지역) 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
 민주노련 푸른길지역 민주노련 함안지역 민주노련 해남지역 민주노련 화성오산 평택지부 민주노련 화성
 오산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
 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통일위원회 민주노총 전남지
 역본부 민주노총서비스연맹울산본부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자주동일대
 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
 연대 민중민주당 밀양교육희망학부모회 밀양시농민회 발걸이운동본부 범민련경남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보
 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봉화군농민회 부산 대학생 겨레하나 경성대지부 부산겨레하
 나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노동자겨레하나 부산대학교민주동맹회 부산민
 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회 부산진구겨레하나 부산청년겨레하나 부산청소년겨레하나 부산학부모
 연대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시민연합 복덕어린이영양뽕공장사업본부 분당여
 성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우리민족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
 보연합 사회대개혁직식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
 회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교회, 예수살기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인부
 천본부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서울겨레하나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진보연대 서천군농민회
 성남여성회 성주군농민회 성주군여성농민회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세종민중행동 손석용열사추모사
 업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년회 수원평화나비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
 성농민회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시민모임 독립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
 포럼 시민총회 아산시농민회 안동시농민회 안동시여성농민회 안성시농민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알바노조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겨레하나 양산시농민회 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
 인권 나무 양심수후원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성교회 여수진보연대 여주군여성농민회 여주시농민회
 연천군농민회 열린공대를위한시민연대 영광군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농민회 영암군농민회 영양
 군농민회 영주시농민회 영천시농민회 예산군농민회 예수살기 예천군농민회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모
 임 옥천군농민회 완주군농민회 용인여성회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울산겨레하나 울산여민
 포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평화행동 원주시농민회 음성군농민회 음성군여성농
 민회 의령군농민회 의성군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이스크라21 이천여성회 익산시농민회 익산시여성농민
 회 인천 통일로 인천겨레하나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일보군'위안
 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겨제시민모임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
 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
 거제시민모임 임실군농민회 임실군여성농민회 자립지공동체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
 일실천연대 장수군농민회 장흥군농민회 전교조 부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
 합 부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통일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북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
 서지역 까치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발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염창지부 전국노점
 상총연합 강서지역 우장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화곡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구로지역 전국노
 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노량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사당지부 전국
 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송실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신대방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양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논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담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당진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대
 전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마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송
 인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일요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1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
 지역 제2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3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4지부 전국노점상총연
 합 동묘지역 제5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6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청계삼일지부 전국
 노점상총연합 보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천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평지
 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노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당고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미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

합 북서부지역 삼선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중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창동 1.2.3.4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하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상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대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성남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소래포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원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아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용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용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원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익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가좌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계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남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동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북성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신도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종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중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파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평택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홍성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남 강원도연맹 전남 경기도연맹 전남 경북도연맹 전남 광주전남연맹 전남 부산경남연맹 전남 전북도연맹 전남 제주도연맹 전남 충청도연맹 전남 충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도연합 전여농 충남연합(준) 전주시농민회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선군농민회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녹색당 제주민중연대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주권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천시농민회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주권자전국회의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여백> 진도군농민회 진보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장애인 위원회 진보당 양산시 운영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은평구위원회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 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제주지부 진안군농민회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농민회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합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녕군농민회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여성회 창원철원군농민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송군농민회 청양군농민회 청주시농민회 청춘학교 청춘학교 촛불문화연대 촛불전진 촛불행동 춘천시농민회 충남대학교 민주동맹회 충주시농민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나무 은희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청년회 평등평화세상 온다 평택시농민회 평택여성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네트워크 평화어머니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협정운동본부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포천시농민회 포항시농민회 풍문곳패 샴터 하남여성회 하동군농민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실천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청년연대 한남대학교 민주동맹회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한살림 울산 함께크는여성 울림 함안군농민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함양군농민회 함평군농민회 합천군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해남군농민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흥천군농민회 흥천군여성농민회 화성시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순군농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진보연대 횡성군여성농민회

강경란 강경숙 강미경 강봉준 강서영 강소영 강연주 강완석 강지윤 강혜정 강혜진 강홍석 경동건설 고정순규 유가족 고건령 고은아 고진형 고희숙 공수현 광기준 광지연 구태희 권석철 권수정 권오양 권혜형 권형지 권혜경 권희경 기봉설 김갑제 김경미 김경희 김귀선 김귀옥 김군태 김남은 김남훈 김달아 김도형 김명선 김명술 김명신 김문정 김미경 김미라 김미란 김미령 김미영 김미진 김민서 김민아 김민중 김민희 김병균 김병철 김병학 김상균 김상욱 김상운 김선영 김선호 김성미 김성하 김성현 김성희 김소양 김송미 김수경 김수진 김숙희 김순자 김승원 김승재 김승희 김영광 김영애 김영제 김영준 김용연 김유란 김유자 김유철 김은진 김재만 김재하 김재훈 김정모 김정수 김정영 김정우 김정은 김종광 김종애 김종이 김지선 김지수 김지애 김지운 김지혜 김지희 김진희 김태우 김태우 김필운 김한봉희 김한중 김향미 김형남 김혜정 김호범 김화순 김화순 김효중 김효진 김희교 김희정 나윤지 남기정 남수중 남정희 노경현 노동천 노석균 노주현 류경완 류미연 류봉식 류재철 류현신 리화수 문경식 문봉인 문선화 문성희 문의영 문장렬 민운기 박길식 박동순 박민주 박병전 박병종 박상문 박상욱 박서현 박서희 박석운 박선영 박성우 박수기 박수희 박순철 박순희 박재성 박종익 박종현 박종화 박주원 박준엽 박지훈 박창수 박태진 박형진 박희선 박희영 배달샘 배득현 배수미 배원수 배은미 배정우 배형우 백보람 백수인 변보미 변재훈 변정환 서민태 서상필 서주선 서진영 서행선 성종대 손미희 손상흥 손은화 손정목 송도자 신경호 신맹순 신명아 신미연

신민구 신병륜 신영남 신영찬 신인숙 신정숙 신주백 신현경 심경수 심규협 심영자 심은희 심재선 안경남
 안순희 안연순 안영숙 안윤희 안지중 안충원 양성우 양승열 양승훈 양원영 양재근 양재익 양정은 양홍영
 양희선 오기석 오동원 오승윤 오영환 오인택 오정옥 오지은 오하나 오효열 오희진 옥효정 옥효정 용순옥
 우희종 원동욱 유선규 유영란 유윤주 유재도 유재룡 유정애 윤만식 윤미연 윤서은 윤선구 윤소영 윤영미
 윤영탁 윤유진 윤재호 윤혜영 윤희섭 은우근 은희만 이경순 이경원 이범열 이보영 이경훈 이경희 이관은
 이광숙 이국연 이나영 이남훈 이두현 이문숙 이미나 이미연 이미영 이범열 이보영 이상식 이상식 이상익
 이상일 이성한 이성호 이소진 이수진 이숙근 이승구 이승렬 이시현 이신석 이연희 이영하 이용석 이용수
 이용식 이은미 이은영 이인석 이재봉 이재술 이재호 이정섭 이정섭 이정아 이정원 이종란 이종옥 이종희
 이지안 이지원 이진석 이창운 이철우 이철현 이충근 이충모 이태영 이태재 이학규 이현진 이훈규 이훈규
 이희환 임민정 임윤희 임은주 임일 임정이 임정택 임지연 임지영 장미숙 장시현 장영심 장우식 장원택
 장원호 장재희 장현자 장형운 장화숙 전미령 전영민 전윤선 전은주 전태삼 전해상 정경애 정경희 정귀자
 정규식 정동근 정린수 정미영 정봉철 정부중 정수현 정승호 정윤희 정의환 정진아 정진아 정진희 정철우
 정태환 정해정 정현애 조계순 조석제 조선희 조옥형 조은 조정애 조현희 주광희 주선자 주제준 지은주
 지창영 진용호 천봉경 최권행 최도석 최명철 최민정 최상구 최은수 최은아 최재숙 최정민 최정옥 최지혜
 최진연 최창수 최창훈 최한국 최현오 최현옥 최희석 하상윤 한경준 한명석 한미옥 한소정 한은주 한충목
 함인숙 함인숙 허남호 허상수 현금규 홍경지 홍기정 홍윤주 홍인수 홍정임 홍지인 황권택 황승연 황재현
 황정옥 황정옥 황철하 황후남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기자회견문]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큰 위기감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연일 한국과 미국, 북한의 군사훈련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도,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9.19 군사합의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사고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군사훈련 중 강릉에 떨어진 미사일은 주민들을 밤새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축소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난 8월 다시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핵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도 강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북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실기동 훈련에 이어 다가오는 10월 31일부터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F-35A 전투기, 주일미군의 F-35B 전투기를 비롯하여 공군 전력 250대가 투입되어 북한의 전략 거점 수백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내용의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예고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더 큰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무력 시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순간의 실수로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위기와 불안한 정세가 지속된다면 사회와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냉전'이라 진단되는 혼돈의 국제 질서와 격화되는 군비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2018년 이루어진 남북·북미 합의,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제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결국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약속의 불이행과 협상의 실패가 오늘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 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적대를 멈추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지금 멈추면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2022년 10월 27일

704개 종교·시민사회단체

(사)겨레하나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양심수후원회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한반도평화경제회의 13일의 지킴이 427한반도평화번영 시민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구로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용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가톨릭농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겨레하나 경남민주교수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골목반 선교회의 정평향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시농민회 군산평화박물관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겨레하나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희망발전소 노동담 수녀회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대덕겨레하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서구겨레하나(준) 대전세종겨레하나(준) 대전유성겨레하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중구겨레하나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주리평화마을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 민실천연대 디자인 밝은세상 라파공동체 마산겨레하나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문화공동체 원주 더나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 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 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 민주노련 남동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구목련지역 민주노련 대구신매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결혼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농협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동서1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동서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동서3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불로장생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성바오로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용두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제기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제기극장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청량리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청량리역전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노점상연합 민주노련 동대문중앙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 민주노련 동작지역 민주노련 말바우지역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밀양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 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 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 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 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 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 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 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 민주노련 서부 흥대 지부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 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 주변)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 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 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 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 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 민주노련 송파지역 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 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 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 민주노련 시흥지역 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 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 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 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 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 민주노련 안산지역 민주노련 양주지역 민주노련 여수지역 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 민주노련 영등포지역 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 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지역 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 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 민주노련 인천서부 민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 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 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 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 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 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

부 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 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 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
 부 민주노련 종로지역 민주노련 죽도지역 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 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 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 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 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 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 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 민주노련 중부지역 민주노련 중부지
 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지산지역 민주노련 진주지역 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
 부 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 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 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 민주
 노련 충청 판암 지부 민주노련 충청 향남 지부 민주노련 충청지역 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련 태
 평백화점 주변(동작지역) 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 민주노련 푸른길지역 민주노련 함안지역 민주노련 해남
 지역 민주노련 화성오산 평택지부 민주노련 화성오산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의(민교협2.0)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밀양
 거래하나 밀양시농민회 범민련경남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범민련서울연합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봉화
 군농민회 부산거래하나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
 산학부모연대 부산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청년회 분당여성회 불평등한한미SOFA
 개정국민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
 회 사드철폐 성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대개혁직식인네트워
 크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살레시오 수녀회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여병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서울거래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대진연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울환경운동
 연합 서천군농민회 선한시민의힘 성가소비녀회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성남여
 성회 성남청년회 성남평화연대 성심수도회 성주군농민회 성주군여성농민회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
 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평화포럼 아산시농민회 안동시농민회 안동시여성농민회 안산청년회 안성
 시농민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거래하나 양산시농민회 양산여
 성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 인권 나무 여주진보연대 여주군여성농민회 여주시농민회 연천군농민회 열린군
 대를위한시민연대 영광군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농민회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영암군농민회 영양
 군농민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영주시농민회 영천시농민회 예산군농민회 예수살기 예수의작은자매
 들의우애회 예천군농민회 옥천군농민회 완주군농민회 용인여성회 용인청년회 울산거래하나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원죄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원주시농민회 음성군
 농민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의령군농민회 의성군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이천여성회 이화민주동맹회 익산
 시농민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보성체수도회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평화연
 대 인천참연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일과놀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임실군농민회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수군농민회 장흥군농민회 전교
 조 부산지부 전국가전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
 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
 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북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까치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발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염창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우장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화곡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구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노량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사당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송실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신대방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양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논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담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당진지역 전국노점
 상총연합 대전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마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송인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일요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1지부 전국노점상
 총연합 동묘지역 제2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3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4지부 전국
 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5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6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청계삼
 일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보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천지역 전국노점상총
 연합 부평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노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당고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미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산지부 전
 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삼선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중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
 지역 창동1.2.3.4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하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상주지역 전국노점상총
 연합 서대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성남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소래포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원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아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
 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용신지역 전국노점상총
 연합 용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원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익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전국

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가좌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계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남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동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북성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신도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종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중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파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평택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흥성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회의 강원지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 경남지부 전국회의 경북지부 전국회의 광주지부 전국회의 대구지부 전국회의 대전지부 전국회의 부산지부 전국회의 서울지부 전국회의 울산지부 전국회의 인천지부 전국회의 전남지부 전국회의 전북지부 전국회의 제주지부 전국회의 직할지부 전국회의 충남지부 전국회의 충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녹색연합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도연합 전여농 충남연합(준) 전주시농민회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선군농민회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천시농민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산연합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 진도군농민회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영등포구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 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제주지부 진안군농민회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농민회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미군세군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합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창녕겨레하나 창녕군농민회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녕겨레하나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천도교청년회 천안시농민회 천안여성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철원군농민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송군농민회 청양군농민회 청주시농민회 청주청년회 춘천시농민회 충주시농민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맛이 통일문화연합 통일시대연구원 평등평화세상 온다 평택시농민회 평택여성회 평택청년네트워크 피음 평택평화센터 평택YMCA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구합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이음 평화재단 평화철도 평화통일 시민행동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포천시농민회 포항시농민회 피스모모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하남희망연대 하동군농민회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서울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함안군농민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함양군농민회 함평군농민회 합천군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해남군농민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흥천군농민회 흥천군여성농민회 화성식품노조 울산지부 화성시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성희망연대 화순군농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민주청년회 화순진보연대 횡성군여성농민회 AOK(action one korea) 한국 KIN(지구촌동포연대) NCKK 화해통일위원회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찬양·고무·선전을 처벌하는 7조 1항, 찬양·고무 등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7조 3항, 문서·도화 등을 제작·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7조 5항은, 모든 조항들이 인권침해적인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특히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단순히 '반국가단체란 무엇인가'하는 정의 규정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전체에 녹아있는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은 소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처럼 특정 단체들을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후에, 이 단체와 관련한 활동들을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삼아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조문이지만 그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 5항은 모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했거나, 이를 위해 문서·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국가보안법 7조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함으로써 처벌을 받아야 하는 민주국가의 법률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심각한 인권침해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국가보안법 전문을 한 번만 정독해 본다면 그 심각한 문제와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법률이 대한민국에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의 각 위원회들과 조약기구, 특별보고관 등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폐지 권고를 이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들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섯 번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지내고 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위원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유엔의 주축 국가이고 아시아의 인권 상황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조약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막중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다면, 이는 온전한 평화와 인권의 사회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와 시민들이 함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여성시민사회단체 :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김해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 광주여성센터, 제주여민회,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기자회견문]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한다!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충돌 조장하는 통일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지난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전단 등의 살포가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단살포는 냉전시대 부터 ‘심리전’, 즉 ‘적대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켰던 행위이다. 때문에 남북이 모두 가입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 풍선 등의 무인자유기구를 타국 영공으로 날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 사이에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규범과 남북합의에 모두 위배 되는 부당한 주장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장관은 또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고사총이 날아오는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이미 수 차례 현실로서 확인된 바 있다. 지난 9월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당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사 위험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도 모순된다. 의견서의 위와 같은 주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문제점을 인위적으로 축소, 은폐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권영세 장관의 의견서는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명분하에 인정하고 옹호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동안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음에도 법률을 위반하며 버젓이 전단 살포를 강행해 왔던 일부 단체들의 범법 행위, 평화 파괴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고, 남북간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이다.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야 할 직분상 대북전단금지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통일부 장관이 이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강대 강으로 대결이 치닫는 시기일수록, 통일부는 대화와 화해의 보루로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통일부의 기본 직무이자 독자적인 부처로 존재하는 이유이다.

통일부 장관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채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 충돌 조장하는 권영세 장관은 자격 없다.

권영세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 훼손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22년 11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 강원본부, 6.15남측위 경기본부, 6.15남측위 광주본부, 6.15남측위 대구경북본부, 6.15남측위 대전본부, 6.15남측위 부산본부, 6.15남측위 서울본부, 6.15남측위 수원본부, 6.15남측위 인천본부, 6.15남측위 전북본부, 6.15남측위 제주본부, 6.15남측위 청학본부, 6.15남측위 학술본부,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개천단군평화통일연구회,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겨레하나 파주지회, 경기정의평화 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진보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시민회, 고양평화청년회,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군산농민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장 생명선교연대,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김제정의평화행동, 김종만, 김포경실련, 김포교육포럼, 김포농민회, 김포민예총,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시민주노련, 김포여성의전화, 김포장애인야학, 김포학비노조, 깨어있는 철원시민의 모임, 깨철모(깨어있는 철원시민모임), 노동사목 새날의집, 노동희망발전소, 단군교3.1동지회, 단군문화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경진보연대,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의 집, 프랑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천시민연합, 분단체험학교,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새여울21, 서울겨레하나, 서울진보연대, 수원민예총, 수원KYC, 시민평화포럼,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주군농민회, 어린이어깨동무, 연천희망네트워크,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원주시농민회, 인제군농민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김포지회, 전교조 인천지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연천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김포농민회, 전북교육마당, 전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전주시민회, 정선군농민회,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대학생넷,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참여연대, 창작21작가회, 천도교청년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철원군농민회, 춘천농민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맞이, 통일시대연구원, 평등평화세상 온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센터 하나, 풍물굿패 삶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두루미보호협회 연천군지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빛교회, 흥천농민회, 화천군농민회, 흥사단, 희망세상, AOK한국, NCKK인권센터 (160개 단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 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제출)

회 원 가 입 서

이 름		주민번호	
이동전화		전자메일	
집 주소			
거래은행		예금주	약정금액
계좌번호			이 체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관심 분야	<input type="checkbox"/>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 <input type="checkbox"/> 갈등해결 <input type="checkbox"/> 전쟁반대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 <input type="checkbox"/> 평화문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입 동기			
회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정 회 원 -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님 <input type="checkbox"/>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후원하는 회원		
가입 일자			

- 388-810005-03104 (하나은행)
 ● 후원 347-01-0018-351 (국민은행) 예금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계좌 064-157851-13-101 (우리은행)

2023년 제27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기총회 자료집

발행일 : 2023년 2월 2일

발행인 : 김정수

발행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_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847 / 팩스 02-929-4843 / 이메일 wmpeace@naver.com

홈페이지 www.peacewomen.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wmp

후원계좌: 388-810005-03104(하나은행) 예금주: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